

제3차 부산 미래유산 심화연구

2022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 제출문 |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용역의
심화연구 보고서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차 |

01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007

02 민주공원 016

03 부산의 봉수대(황령산 봉수대) 0

04 감천문화마을 035

05 온천천 046

06 충혼탑 054

07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064

08 기장미역 075

09 안용복 관련 유적 083

10 박재혁 의사 유적 092

11 우장춘 유적 102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북구청 공식 블로그

■ 주요개요

대상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	소재지	-동래시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길 46 -구포시장: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만세길
선정연도	2021년	형태	시장
건립시기¹⁾	동래시장: 1770년 구포시장: 1871년		
이력사항	<p>[동래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 3월 13일 (동래장) 오후 3시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 만세 선창. 약 200명이 참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 군경 발포와 주도자 검거로 진압. 서울 시위에 참여하고 귀향한 동래 출신 졸업생들의 활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매우 조직적인 성격을 띠었음 - 1919년 3월 18일 (동래장) 명정학교와 범어사 지방학림 학생들의 시위 - 1919년 3월 19일 오후 5시경 동래장터 남문 근처에서 시위 개시 -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3.1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옛 남문 터와 동래시장 주변이 동래만세거리로 지정되었고, 1996년부터 매년 3월 1일 동래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p>[구포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년 3월 중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이 구포로 내려와 구포면 서기 임봉래에게 서울과 평양의 3.1만세운동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고 독립선언서를 전달 - 1919년 3월 27일~28일 임봉래·유기호·윤경·김옥겸·김윤길·허정·김용이 등이 박영초·이수련의 집에서 논의를 거듭한 후 3월 29일 구포 장날을 거사일로 정함 - 1919년 3월 29일 정오 박덕홍·손진태·김장학 등 청년들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p>를 배포하고 시위를 시작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포 주민은 물론 김해·양산·동래 등에서 온 장꾼들도 시위에 참여했으며, 검거된 주도 인물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농민, 상인, 노동자들이었음 - 1995년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기념비를 제막하고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기 시작함 - 2021년 '구포장터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 '문화재 태극기 사진전'을 구포만세거리 내의 만세갤러리에서 개최
<p>보존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의 3.1운동은 상인, 노동자, 부녀자, 농민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운동이었으며, 경남 도내 각처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시형 대중시위였음 -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는 일상적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인 장터가 어떻게 저항의 장소로 변화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공간적 의미가 있음 - 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는 사건과 공간 두 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하며, 해당 장소인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보존이 필요 - 현재 만세운동 재현 등의 이벤트가 실시 중이며 이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역사 콘텐츠 활용법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설명문

<p>【개요】</p> <p>부산지역의 3.1운동 발생지는 동래와 구포가 대표적이다. 두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사람들의 이동이 비교적 많은 오일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동래의 경우 3월 13일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시작되었다. 곧이어 3월 18~19일 범여사 지방학림과 명정학교 학생들에 의한 조직적인 만세운동이 이어졌다.</p> <p>구포에서는 3월 중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이 구포면 서기 임봉래를 찾아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 준비되었다. 3월 27일 임봉래는 유기호 등과 29일 거사를 치르기로 계획하였고, 당일 정오 무렵 박덕홍, 손진태, 김장학 등의 청년들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장을 보러 왔던 김해, 양산, 동래 등 이웃 지역 사람들도 참여하였고, 이후 경남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p> <p>이상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의 3.1운동은 도시의 특성에 맞게 학생층이 주도하였으며,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였고, 경남 각지로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자못 크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위 현장은 현대도 시장으로 기능하며 시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의 3.1운동은 지역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매개로서 미래유산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성을 진닌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p>

1. 부산진에서 시작되고 동래에서 불타오르다

부산지역 3.1운동은 1919년 3월 11일 부산진(좌천)에서 시작되었다. 경성의 3.1운동 소식은 이틀만인 3월 3일에 부산에 전해졌고, 이를 접한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학생들이 태극기를 만들어, 11일 오후 9시 기숙사에서 좌천동 거리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였다. 이 시위에는 약 50~100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결과 마가렛 데이비스(Margaret Davies, 당시 일신여학교 교

장)와 데이지 호킹(Daisy Hocking, 선교사)이 일신여학교 직원과 생도의 시위를 인솔한 일로 보안법 위반죄를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11일 일신여학교 시위는 부산지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규모나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추후 동래시장 만세시위, 나아가 구포시장과 기장시장 만세시위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부산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산지역의 거센 3.1운동 열기를 받아 안아 꽃피운 것이 바로 동래에서의 시위였다. 이는 부산진 시위가 일어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13일, 동래시장에서 촉발되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래 장날이었다.

동래시장 만세운동은 박성해가 평양의 지인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박성해는 지역 인사인 김태곤, 최익수에게 독립선언서를 보여주고 만세시위를 권유했다. 이들은 학생들과 연계하기 위해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 엄진영에게 선언서를 전달하였는데, 엄진영이 이한주, 김귀룡, 고영건 등과 합심하여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이다.²⁾

3월 13일의 시위는 엄진영이 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 독립만세를 선창한 것을 신호로 동래읍성 남문 부근에서 전개되었다. 이를 목격한 동래경찰서의 경찰과 부산에서 지원 온 경관 및 수비대가 함께 군중들을 진압했다. 곧 주모자 18명이 체포되면서 만세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이 시위는 부산진 만세운동보다 그 수가 약 2~3배 많은 200여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3월 13일 만세운동 주모자로 체포된 이들은 보안법 위반죄와 출판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서 2년 6월까지 형을 받았다. 최고형을 받은 이는 처음 만세를 외쳤던 엄진영, 그리고 그를 도운 김귀룡이었다.³⁾

그리고 다음 장날인 3월 18일에는 범어사 지방학림과 명정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범어사 승려 김영규, 차상명, 김봉환과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 학생들이 3월 17일 범어사에서 열린 지방학림·명정학교 졸업생 송별회에서 생도 30~40명에게 시위를 권유한 것이 만세운동의 시작점이었다. 이들은 오후 9시경 동래시장에서 남문까지 시위를 벌인 후 자진 해산했고,⁴⁾ 이튿날인 19일 오후 5시 남문 부근에서 동래경찰서까지 다시 한번 행진하였다. 이로 인해 30여 명이 체포되었다.

동래시장 만세운동은 200여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부산진 만세운동보다 규모나 참여 세력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두 시위 모두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수의 민중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동래 시장의 시위는 부산의 대표적인 3.1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내로 확산되는 시위의 열기, 구포시장 만세운동

동래에 이어 구포에서의 만세운동도 장날에 일어났다. 그 시작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양봉근이 구포면 서기 임봉래에게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부터였다. 3월 27일 임봉래는 유기호 등과 논의한 끝에 29일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치르기로 하였다.

약속한 29일 정오 박덕홍, 손진태, 김장학 등 청년 유지들이 비밀리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 군중 중에는 동래시장의 시위에 영향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장을 보러 왔던 김해, 양산, 동래 등 인근 지역 사람들도 다수 참여하여 그 인원이 대략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일제 경찰은 우선 김옥겸 외 11명의 주동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구포주재소에 구금하였다. 이에 오후 3시경 검거된 인원을 석방하라며 군중들이 재차 항의하면서 주재소에 돌을 던지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다. 경찰은 시위 군중에게 발검, 발포로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7여 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시위의 결과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3월 29일 구포시장에 약 1천명의 군중이 운동을 개시하므로 구포경찰관주재소에서 수모자(首謀者) 12명을 체포하고 일단 해산시켰는데, 그 후 폭민은 체포된 사람을 탈환하기 위해 구포경찰관주재소로 몰려와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행을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발검, 발포하여 해산시키고 수모자 8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폭민 측에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1보)]⁵⁾

위 보고에 따르면, 동래에서의 200여 명의 시위는 구포시장에서 약 1천여 명의 시위로 확대되었고, 그 계층 또한 상인, 노동자, 부녀, 농민 등 다양했다. 군중은 체포된 이들을 탈환하기 위해 해산 후 재차 주재소에 몰려와 파괴적 행동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발검과 발포로 대응하면서 7여(기록에 따라 8)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낙동강 인근의 구포시장은 교통의 요지로 시장에 왔던 타 지역 장꾼이 다수 시위에 가담했으며, 결과적으로 경남 전체로 시위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포시장 만세운동 이전 서부 경남 등 각 군에서 폭력적 시위의 양상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구포 인근의 김해군 등에는 아직 시위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가 4월에서야 격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3. 부산지역 3.1운동,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매개로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의 3.1운동은 지역민들의 일상의 터전이자 타 지역민까지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인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곧 경남 각 지역의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두 곳의 시위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장소의 기능이 변함없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3.1운동의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주체들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현재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은 주로 만세운동 거리 지정, 3.1운동 재현 등의 다채로운 시도들을 통해 부산지역의 3.1운동을 기억하고 있다.

먼저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명위원회’는 ‘옛 대동병원사거리 맞은편 하나은행(옛 동래읍성 남문터) - 동래시장 - 동래구청 - 북천박물관’까지의 도로(연장 570m, 폭8m)를 3.1만세거리로 지정하였다. 이후 매년 3월 1일에 동래장터 3.1만세거리에서 동래고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동래장터 3.1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동래고등학교 정문에서 박차정 의사 생가를 지나 동래시장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까지 이어진다. 매년 이 행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될 만큼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구포시장의 3.1운동 역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그 기억을 계승하고 있다. 구포역부터 구포시장 입구까지 약 600m 도로가 구포장터 3.1만세거리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행사들의 유지와 시민들의 호응에 비해 기념비, 안내시설 등 유산 관련 시설들이 장터의 각종 구조물들과 함께 설치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경관이 연출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구포의 경우, 구포만세길을 문화체험거리로 만들어 구포시장과 구포성당 등 지역의 의미 있는 장소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시장 구조물과 함께 혼재되어 있거나 구포역 철길이 만세거리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등 만세운동 장소와 시장이 혼재되거나 제대로 된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부산지역 3.1운동의 진정성과 의미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스토리라인에 기반 하여 VR기술로 이를 구현하고,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의 3.1운동도 이런 방법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가 3.1운동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시장은 과거부터 지역민들의 광장이었다. 그곳에서는 온갖 대화와 흥정들이 오가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자 세상을 배워가는 교실이였다. 이러한 시장의 역할은 이후 민주화 과정으로도 이어져 광장과 거리는 독립, 자유, 민주와 같은 중요한 삶의 가치들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은 100여 년 이상 지역의 전통시장으로써 현재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날의 독립에 대한 민중의 의지는 여전히 시장과 함께 살아 있다고 하겠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서,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의 3.1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1) 동래시장과 구포시장은 각각 1770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871년 『영남 읍지(嶺南邑誌)』 최초 기록이 확인된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大正8年刑控第566號, 1919.6.14. ; 大正8年刑控第513號, 1919.6.27.
- 3) 『매일신보』, 「東萊騷擾公判, 이년 육개월 이하」, 1919.4.24.
- 4) 「내지 독립단 소식」, 『신한민보』, 1919.5.13. ; 大正8年刑控第377號, 1919.5.20.
- 5)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獨立運動에 관한 건」(高第9476號, 제31보), 1919.3.30. ; 「騷擾事件의 後報, 경상남도 龜浦, 부득이 발포」, 『매일신보』, 1919.3.31.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강대민,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호, 2010.

홍순권, 「부산지역 3.1운동 전개 양상과 특징」, 『항도부산』 37권, 2019.

- 신문

『매일신보』, 『신한민보』

-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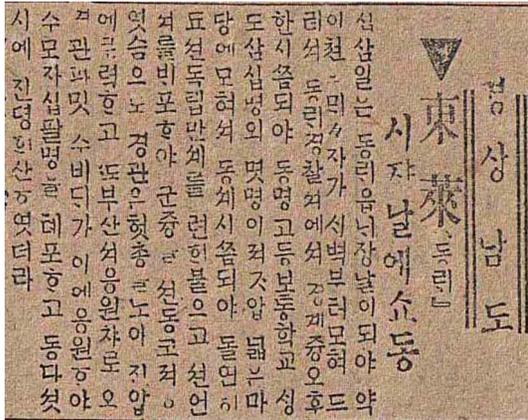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동래문화원(<http://dongnae.kcc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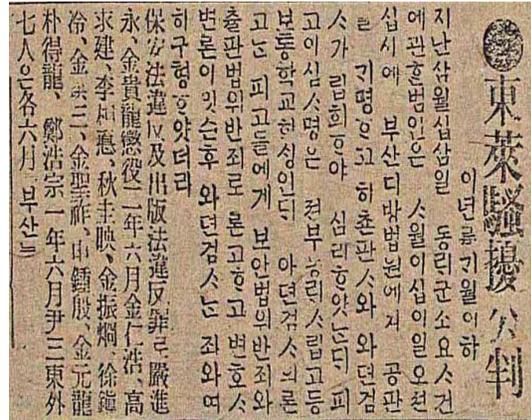
부산북구문화관광(<https://www.bsbukgu.go.kr/tour/index.bsbukgu>)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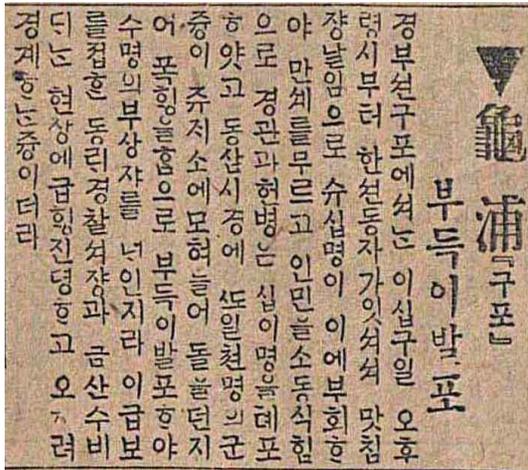
▶ 사진기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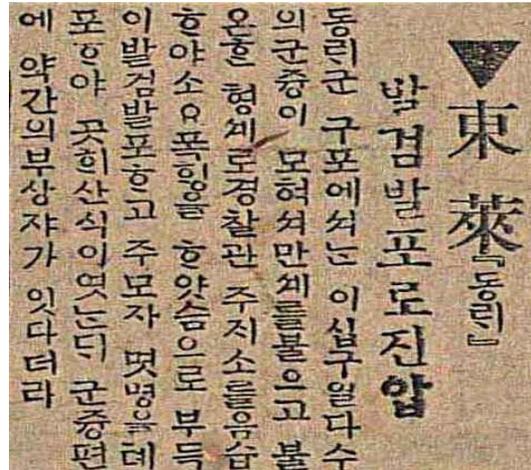
「동래 시장 날에 소동」 『매일신보』, 1919.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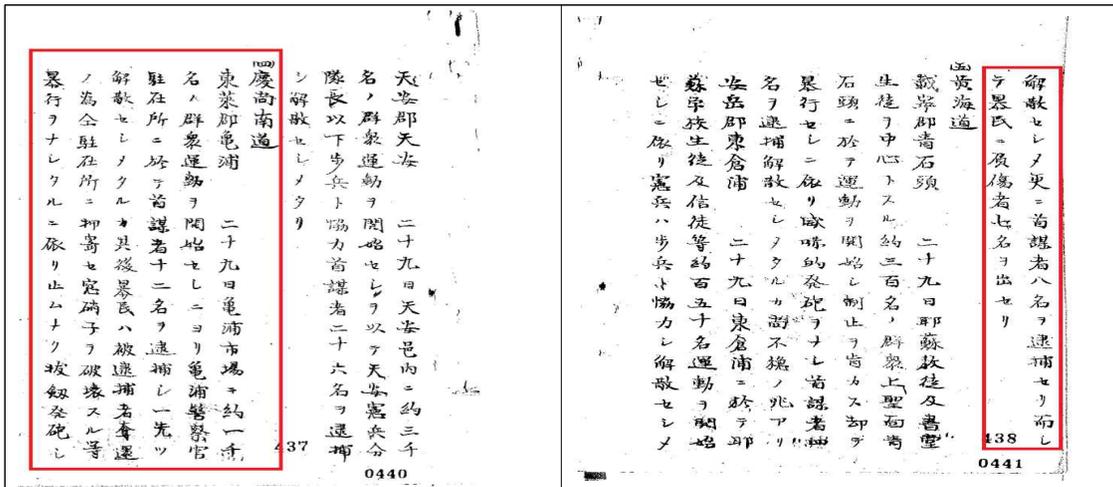
「동래소요재판」 『매일신보』, 1919.4.24.



「구포 부득이 발포」 『매일신보』, 1919.3.31.



「동래 발검 발포로 진압」 『매일신보』, 1919.4.2.



동래군 구포 시장 장날 시위 관련 「獨立運動に関する件(第31報)」, 1919.3.30.

제 100주년 3.1절 기념



국민의 자존 역사
국민의 마음 나라

인상 동래



행사 진행순서



다함께! 만세의 바다로!

동래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일시 2019년 3월 1일 (금)
09:00~14:00

장소 부산3.1독립운동 기념탑
동래고등학교
동래만세거리등



- 참 배 09:20~09:30
<부산3.1독립운동 기념탑>
- 기념식 10:00~10:20
<동래고등학교 운동장>
동래문화원 풍물단(식전공연)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100인의 합창단과 함께하는 삼일절 노래 제창
- 박차정 의사 만세 퍼포먼스 10:20~10:35
<동래고등학교 운동장>
박차정 의사 만세 퍼포먼스 '독립의 출구가 된 박차정'
- 동래출신 박차정 의사 생가 경유 10:35~10:40
<박차정 의사 생가 앞>
박차정 의사 일대기 사진전시 및 독립군가 방송
- 독립만세운동 재현(거리행진) 10:40~12:00
<동래시장 앞 특설무대>
풍물연주 및 개막(큰북치기), 햇불점화
백년다짐, 단막극 '백년의 울림' (독립선언서 공약3장 낭독)
- 독립만세운동 재현(체험) 10:00~14:00
<동래구청 광장>
 - '독립만세의 길' 이야기 담당
 - 부산항일학생운동 사진 전시
 - 크로마키 배경 촬영, 판화 등 체험프로그램
 - 낡은 태극기 무료 교환
 - '박차정 박문회를 찾아라' 모바일 미션 체험
 - '독립의 길 따라 걷기, 모바일 스템프 투어'

주최(주관) 동래구, 동래문화원 후원 | 부산지명보존회,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제99주년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포스터(2018)
©동래문화원



제99주년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2018)
©동래문화원



제100주년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2019)
©북구청 공식 블로그

▶ 현장기록자료



동래시장



동래시장 만세운동이 시작된 망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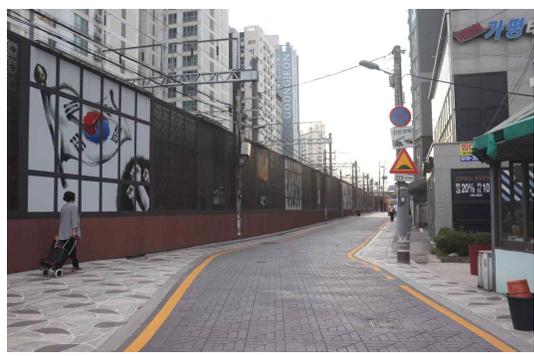
3.1운동 재현행사가 열리는 동래고등학교 정문



구포시장 입구



구포성당



구포 만세거리 전경



구포 만세거리 지하철도 내 벽화



구포 만세거리 벽화

민주공원



■ 주요개요

대상	민주공원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19
		홈페이지	http://www.demopark.or.kr/
선정연도	2021년	형태	공원
건립시기	1997.10.16.~1999.10.16.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8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설립총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탑·기념관·기념공원 조성을 장기사업으로 입안 - 1995년 8월 사업회 이사회에서 기념탑·기념관을 포함한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결의 - 1995년 9~12월 부산시장 면담을 통해 공원 부지로 사유지 할애 요청 - 1996년 7월 부산민주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1996년 12월 부산민주공원 조성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 1997년 4월 부산민주공원 설계 공모, 설계사 선정 - 1997년 10월 16일 부산민주공원 기공식 - 1998년 6월 25일 부산민주공원 개관 준비를 위한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3월 3일 부산민주공원 운영 관련 공청회(사업회 회원 대상) - 1999년 3월 29일 부산민주공원 운영 관련 공청회(시민사회단체 대상) - 1999년 10월 16일 부산민주공원 개관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사건이 아닌 지역의 민주화운동 전반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민주공원' 건립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임 - 한국의 민주주의 진전에 크게 기여한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임 -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 과거사만이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적 사고와 감수성도 배울 수 있음 - 미래에 민주·인권도시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미래유산으로 보존할 필요

■ 설명문

【개요】

199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개관한 민주공원은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민관의 일치협력으로, 특정 사건이 아닌 지역의 민주화운동 전반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민주공원'을 건립한 사례는 현재까지 부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한국의 민주주의 진전에 크게 기여한 부산은 '민주항쟁'의 도시라 칭하여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들 4대 민주화운동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용케 관련 현장을 찾는다 해도, 도심의 일상적 공간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한눈에 살펴보며 체험할 수 있는 민주공원은 최적의 장소이다. 특히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최근의 촛불시위와 남북정상회담, 일상에서의 민주적 사고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다.

민주공원은 부산사람들의 주체적인 민주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지역민의 열정과 희생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최근, 부산은 민주와 인권도시라는 미래를 위해 소중한 미래유산인 민주공원을 퇴행적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1. '민주공원', 전국에서 유일하고 해외에서도 드물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의 중앙공원 내 20,337㎡의 부지에 자리한 부산 민주공원은 올해로 개관 23주년을 맞았다.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이곳은 당초의 목적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휴식처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구도심의 명소이다. 산정의 고지대에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매년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¹⁾ 2019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뒤 찾는 발길이 더욱 늘어 하루 평균 800여 명에 이른다 한다.²⁾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심건물인 민주항쟁기념관뿐 아니라 들꽃이 아름답게 피는 야외공간이 있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문화공연 등이 어우러져 일상의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질곡의 역사’라 평할 만큼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이지만, 그럼에도 부산에서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희망을 만들어 갔다. 개항 후 일본의 대륙침략 전초기지가 된 치욕에도 박재혁

의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등 항일의 흐름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제 말 해외 강제동원의 거점이었기에 1940년 부산항일학생의거의 함성은 더욱 뜨거웠다. 해방 후 밀려든 귀환 동포와 한국전쟁 피란민들을 수용하여 피란수도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낸 곳도 이곳 부산이며, 토착 해양 문화와 이들 외부 이주민들의 강한 생활력이 어우러져 60년대 이후 산업화 시기 이 땅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거도 부산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산의 지역성은 산업화 시기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었던 민주화운동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전기가 된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민주항쟁에 있어 부산의 역할은 탁월하였고, 그 결과 이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3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다. 특히 부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불의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며 도시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9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개관한 민주공원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그 건립을 주도하였지만, 정치권의 협조와 함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성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민관의 일치협력으로, 특정 사건이 아닌 지역의 민주화운동 전반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민주공원’을 건립한 사례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³⁾ 실제 부산 민주공원과 함께 추진되었지만, 광주 5.18 기념공원은 한 사건에 한정된 것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것은 아니다.⁴⁾ 제주 4.3 평화공원의 경우도,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4.3 특별법 공포를 계기로 보상의 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4.3 사건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결국 정치권과의 협의와 예산지원 등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민주공원의 존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부산 시민들의 높은 자부심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아닐 수 없다.

2. 부산,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부산이라는 지역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 4대 민주화운동 중 선두에 있는 4.19혁명은 부산이 아닌 인근의 대구와 마산에서 시작되었지만, 부산에서의 시위는 어느 지역보다 열성적이었고, 총 19명의 사망자를 낳을 만큼 희생도 컸다. 3월 12일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의 가두시위로 시작된 학생 시위는 3월 24일 시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연합시위 형태로 발전하였다. 4월 들어 학생들의 시위에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점차 시민항쟁의 모습을 띠었다. 특히, ‘피의 화요일’로 불리는 4월 19일에는 범일동 자성대파출소와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으로 항쟁은 마무리되었지만, 민주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자주적 통일운동을 제창하여 이후 민주화운동의 방향을 부산에서부터 제시한 점도 한 특색이다.

4.19혁명의 열기를 짓밟고 등장한 박정희의 18년 철권 통치를 종식시킨 것은 10.26 사건이었고, 그 주역 김재규가 부마민주항쟁의 현장을 직관한 후 행동에 나섰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70년대의 박정희 유신체제는 그 반헌법적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기 불황에 따른 폐업 속출, 지역 출신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탄압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반감을 샀다.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시위로 시작된 저항의 불씨는 시내로 나가 시민들과 결합하자 거대한 항쟁의 불길로

타올랐고, 계엄령까지 발동하고서야 3일 만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진화였을 뿐, 이웃한 마산에서 더욱 과격한 시위로 이어져, 결국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고하였다. 부마민주항쟁은 ‘저항의 무풍지대’로 불리던 부산에서 향후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무대가 되었으며, 진압의 주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이때 얻은 ‘초전박살’의 교훈이 이듬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대로 실행되었다.

현대 사회의 성격을 흔히 ‘87년 체제’로 규정하듯 1987년 6.10민주항쟁의 영향은 넓고 깊다. 그 지속성이나 강도, 참여 인원 면에서도 가히 다른 사례를 압도한다. 특히 부산은 일주일 간의 가톨릭센터 농성을 통해 꺼져가는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승리를 쟁취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중요한 지역이었다. 항쟁 이후에도 부산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져 민주화와 노동, 인권, 통일, 교육, 환경, 성·소수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를 각성케 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산은 가히 민주주의를 수호한 ‘민주항쟁’의 도시로 칭하여도 부족함이 없지만, 부산에서 이들 4대 민주화운동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⁵⁾ 최근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민주화운동 워크북’을 제작하기도 했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에서 관련 장소에 표석을 설치하는 등 대중을 상대로 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질적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특히 비교적 최근의 일인 6.10민주항쟁은 동아대의 ‘6월항쟁도’와 같이 관련 유적의 보존 필요성조차 아직 합의하지 못하여 무책임하게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⁶⁾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쟁 관련 장소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 못지않게 우선 지속적 교육이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한 부산의 민주화운동이 생소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중들에게 각인될만한 압도적 서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산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재고되지 않는다면 워크북을 통해 현장을 찾는다 해도 도심의 일상적 공간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민주공원이다.

3. 민관 협력으로 민주공원을 조성하기까지

1989년 8월 창립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그 창립총회에서 이미 민주공원에 관한 구상이 있었다. 애초 구상은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기리는 기념공원과 기념관, 기념탑 조성이었는데, 6년만인 1995년 8월 사업회 이사회에서 기념탑과 기념관을 포함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그 실행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사업회는 문정수 당시 부산시장 등 부산시와 협의하여 ‘민주공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중앙공원 내 중구 영주동 산 10-4번지 일원을 그 부지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관련 예산은 국비 100억, 시비 70억, 시민 모금 30억으로 약 200억 원을 책정하였다. 이후 사업회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는데, 법에 저촉되는 까닭에 시민을 상대로 한 모금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국비 80억, 시비 80억으로 예산계획이 변경되었다.

1996년 7월 19일 ‘부산민주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민주공원 조성사업은 본격적 궤도에 올랐다. 추진위원회는 각계 인사 및 항쟁 관련자 등 4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안에

35명의 집행위원회를 두어 사업구상과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추진위원장은 문정수 부산시장, 집행위원장은 송기인 사업회 이사장이 맡았다. 이날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민주공원 조성 사업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즉, 항일항쟁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며, 부산을 넘어 ‘오늘의 사회’를 연구·교육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영원히 표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자 운영 방안이라는 것이다.

1996년 12월 민주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여 50여 개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다. 이듬해인 1997년 4월 설계 공모와 설계사 선정을 완료하고, 9월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18주년 기념식을 겸하여 민주공원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어서 1998~99년 사업회 회원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총 3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착공 2년만인 1999년 10월 16일 역사적 개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날 개관 행사에는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여 이른바 ‘동서화합’의 퍼포먼스를 두고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79년 당시 야당 총재로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과감하게 투쟁하여 부산과 마산, 그리고 전 국민의 쉼기에 크게 기여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높이 찬양하고자” 한다며 화합의 메시지를 보냈다.⁷⁾ 또, 해외 민주화운동가 중 노동자 선교사업으로 유신 정부로부터 강제추방당한 조지 오글(George E. Ogle) 목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상의 설립과정과 개관 당시의 메시지를 보면, 사업회와 시민 대표가 주도하고 부산시가 실무 집행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으로 탄생한 민주공원은 항일항쟁과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의 문제를 연구·교육하여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공간임을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어 개관하자마자 평일 4,000여 명, 주말과 휴일에 22,000여 명이 쇄도하여 공원 입구에서부터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단번에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⁸⁾

4. 민주화운동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문화공간을 추구하는 민주공원에는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400여 종의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있는 정원과 아름드리 숲 등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 많다. 아래에서는 지면 관계로 특히 민주공원의 가치에 부합하는 몇 가지 특징적·상징적 장소들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민주공원 입구 4.19광장에 자리한 ‘4.19민주혁명희생자위령탑’이다. 4.19혁명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탑으로, 1961년 용두산공원 내에 세웠던 것을 2007년 민주공원에 4.19광장을 조성하면서 옮겼다. 당시 국제신문 주관하에 부산 시민의 성금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희생자 1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는 당시의 희생자와 함께 이후 돌아가신 21명 등 총 40명의 영정사진이 봉안되어 있는 희생자 영령봉안소가 있다.

살짝 위로 이동하면,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열사들을 기리며 그 뜻을 새기는 추모의 공간 ‘넋기림마당’이 나온다. 이곳에는 부산 출신 6.10민주항쟁 열사인 이태춘, 박종철, 황보영국 세 분의 얼굴과 글을 만나볼 수 있는 ‘추모의 벽 늘빛드레’도 있다.

한 단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곳이 민주공원의 중심 건물 ‘민주항쟁기념관’이다. 건물 중앙에 우

뚝 솟아 있는 ‘뜻기림햇불’은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인내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민주화운동의 드높은 기상을 표현한 것이다. 밤에는 조명을 밝혀 멀리서도 햇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대를 밝히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염원처럼 늘 반짝이는 민주공원의 상징이다.

중극장과 소극장이 자리한 ‘민주항쟁기념관’ 1층 입구 벽면에서는 이철호 작가의 ‘민주항쟁도’를 볼 수 있다. 항일투쟁에서부터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의 민주화운동 흐름을 부산을 중심으로 기록한 대형 작품이다. 2층의 ‘늘 펼쳐보임방’은 말 그대로 상설전시관으로, 부산의 민주화운동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협동서점의 모형을 통해 당대 금서를 열람해 보거나 독방의 고통을 느껴 보는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다. 과거의 기록만이 아닌 최근 촛불시위와 남북정상회담, 일상에서의 민주적 사고와 감수성을 배워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 ‘오늘의 사회’를 연구·교육하고자 한 민주공원의 건립 목표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3층 ‘잡은 펼쳐보임방’은 기획전시실로, 민주공원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전시와 퍼포먼스가 4대 항쟁 기념일에 맞추어 펼쳐진다. 각 층을 연결하는 주동로는 ‘달팽이길’이라는 독특한 원형램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만든 것으로, 모두 시민 참여의 공모를 거쳐 채택된 것이다. 순우리말 명칭들과 함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도 민주공원의 정신이 배어 있다.

장승터와 야외극장이 자리한 외부공간은 줄땀기구나 탈춤, 풍물놀이 등 민속연회를 행하거나 역동적 행사·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게다가 형형색색의 봄꽃과 짙은 녹음, 알록달록 단풍으로 유명한 민주공원의 4계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의 시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휴식처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최고의 겹벚꽃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4월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라 한다.⁹⁾ 과거에는 동네 주민들이 주 방문객이었지만, 최근에는 피크닉 사진을 찍으려는 20, 30대 방문객이 크게 늘어, 일상 속 민주주의 학습에도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복기념관과 함께 6.10민주항쟁을 불러일으킨 박종철 열사의 모교인 해광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 연계 관람에도 유리한 민주공원은 개관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부산의 대표 시민공원이며,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유력 정치인들은 반드시 먼저 민주공원을 찾아 민주 영령들에 참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¹⁰⁾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의 흔적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곳 민주공원이야말로 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인증받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5. 미래의 민주·인권 도시를 위해 민주 유산을 소중히 가꿔야

개관 후 순탄한 길만 걸어온 듯한 민주공원의 지난 시간들에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가시밭길이었다. 개관을 앞두고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 공사나 공단에 위탁케 한다는 부산시·부산시의회의 입장과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¹¹⁾ 이에 대해 사업회는 “부산민주공원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온 부산지역 민

주인사들의 숙원사업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부산 시민의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를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해 설립된 만큼, 관리·운영의 주체 또한 민주적 상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¹²⁾ 원만한 개관식을 위해 잠시 휴전하였던 이 문제는 연말에 재발하여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사업회가 부산시로부터의 민주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절차는 유지하면서 실질적 운영권을 보장받는 타협점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라는 단어를 붙은시하는 편향적 색깔론은 종종 돌출했다. 진보와 보수정권이 교대한 초기인 2009년, 2개(38번, 43번) 노선의 시내버스 안내표지판과 버스정류소 등에 명시된 ‘민주공원’이란 이름이 일제히 사라지고 ‘중앙공원(관리사무소)’으로 교체된 일이 있었다. 이는 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 등 12개 보수단체의 요구를 부산시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들의 민원 이유는 원래 명칭이 중앙공원이며, 민주공원으로 바뀐 후 이전부터 있던 호국영령을 모신 충혼탑에 대한 예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버스노선 표지판 등에 사용되었던 민주공원 명칭을 다시 복원하라고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공원을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시민들에게도 익숙해진 마당에 일부 단체의 민원 제기로 하루아침에 협의조차 없이 명칭을 변경했다며 부산시의 대처를 규탄하였다.

양측의 압박에 직면한 부산시는 결국 중앙공원과 민주공원을 병기하는 절충적 입장을 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다음과 같이 부산시를 비난했다. 즉, 민주공원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어왔던 부산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만한 곳이며, 부산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임에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지는 못할망정 명칭을 변경하고 지우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¹³⁾ 그러나 유사한 명칭 변경 시도는 2015년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돌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며, 시민들의 자긍심이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민주부산’이라는 브랜드가 언제든 훼손되고 철회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소명이 있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과 자유에 대한 과몰입, 기계적 공정성을 부르짖는 목소리들에 맞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남아 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공동체의 가치를 조율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재고하는 것 외에 다른 묘수는 생각할 수 없다. 민주와 인권도시라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퇴행적 공격으로부터 소중한 미래유산인 민주공원을 잘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1) 「부산시, 민주공원 명칭 변경 논란」, 『시민사회신문』, 2009.09.04.

2) 「기념관 방문객 반짝 늘었지만...기억에서 잊혀지는 '그날의 함성」, 『서울신문』, 2019.10.14.

3) 「부산시, 민주공원 명칭 변경 논란」, 『시민사회신문』, 2009.09.04.

4) 「부산 '민주공원' 건립 논란」, 『경향신문』, 1996.07.31(5)

5) 「민주항쟁 기억의 공간 가꾸자」, 『국제신문』, 2017.6.14.

- 6) 「6월, 숨은그림찾기」, 『뉴스타파』, 2017.6.22. ; 「아들이 30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 '숨은그림찾기' 그 후」, 『뉴스타파』, 2019.4.24.
- 7) 「김대중 대통령 치사 요지」, 『부산일보』, 1999.10.16(2)
- 8) 「방문객 골탕먹는 민주공원」, 『부산일보』, 1999.10.30(31)
- 9) 「벚꽃 시즌 놓쳤다면 ... SNS 타고 민주공원 겹벚꽃 나들이」, 『연합뉴스』, 2022.04.20.
- 10) 「부산 민주공원 참배하는 윤석열」, 『뉴시스』, 2021.07.27.
- 11)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공원 운영권 이전 청원」, 『부산일보』, 1999.09.28(30)
- 12) 「박제화 된 쉼터에 그칠 것인가 살아있는 교육장이 될 것인가」, 『부산일보』, 1999.11.13(30)
- 13) 「부산시, 민주공원 명칭 변경 논란」, 『시민사회신문』, 2009.09.04.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 김선미 외, 『민주공원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운동사』, 민주공원, 2003.
- 김선미,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 연구 - 1978년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39, 부경역사연구소, 2016.
- 김선미,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과 부마항쟁 - 부산대 시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6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 최은정 외, 『부산민주길을 걷다』, 부산광역시교육청·부마항쟁기념재단, 2020.
-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1-2,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2021

- 신문기사

- 「부산 '민주공원' 건립 논란」, 『경향신문』, 1996.07.31(5)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공원 운영권 이전 청원」, 『부산일보』, 1999.09.28(30)
- 「'민주부산'의 성지 '우뚝」, 『부산일보』, 1999.10.11(29)
- 「김대중 대통령 치사 요지」, 『부산일보』, 1999.10.16.(2)
- 「방문객 골탕먹는 민주공원」, 『부산일보』, 1999.10.30(31)
- 「박제화 된 쉼터에 그칠 것인가 살아있는 교육장이 될 것인가」, 『부산일보』, 1999.11.13(30)
- 「부산시, 민주공원 명칭 변경 논란」, 『시민사회신문』, 2009.09.04.
- 「민주항쟁 기억의 공간 가꾸자」, 『국제신문』, 2017.6.14.
- 「기념관 방문객 반짝 늘었지만...기억에서 잊혀지는 '그날의 함성」, 『서울신문』, 2019.10.14.
- 「부산 민주공원 참배하는 윤석열」, 『뉴시스』, 2021.07.27.
- 「벚꽃 시즌 놓쳤다면 ... SNS 타고 민주공원 겹벚꽃 나들이」, 『연합뉴스』, 2022.04.20.

인터넷 홈페이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https://www.kdemo.or.kr/>)
- 민주공원(<http://www.demopark.or.kr/main/>)

■ 기타 자료

- 6월, 숨은그림찾기(뉴스타파, 2017.6.22, <https://www.youtube.com/watch?v=B9o7InCnIYU>)
- 아들이 30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 ... '숨은그림찾기' 그 후
(뉴스타파, 2019.4.24, <https://www.youtube.com/watch?v=TR5BQ-EhjuU>)

■ 사진 자료

▶ 사진기록자료



민주공원 조감도
©민주공원



민주공원 원경
©민주공원



단체체험학습 중인 학생들
©서울신문



참배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2021.07.17)
©뉴스시스



민주항쟁도(2001)
©디지털부산역사문화대전



1 세상 속으로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다. 항쟁의 거리에서 벌어진 활동이, 항쟁의 충성의 몸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살아 꿈틀거리며 총탄의 울음을 타고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간다.



7 비침마당
세상을 돌고계 실려던 이들의 노젓소리는 멀리 멀리 울리 퍼진다. 민중기묘와 함께 하는 노래 마당은 우리의 아귀를 떠들리고 오늘의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내일을 맞이하는 노래의 성전이다.



6 희망의 너른 품
민중의 희망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민주주의의 숙제에 우리 몸을 던져준다. 사람이 사형집행 사는 세상, 못생김이 어울리는 세상, 누구도 구원 세상을 꿈꾸어 왔다면, 서로 손 마주잡고 녹슨 철조망을 건어낼 수 있는 힘을, 희망의 너른 품에서 높고 높다가 소강 한 마디는 필수!



6 집국을 넘어 승리로
어두운 굴 속에 들어선다. 만지 항쟁의 거리에서 불 매어지던 구조물이 우리를 맞이한다. 끝의 한 쪽 벽에는 갖가지 숫자와 문자들이 빙글 내어 돌리인다. 다른 쪽 벽에는 항쟁의 거리에서 싸우던 민주 시민들의 영상이 떠오르인다. 우리 근현 대사를 살아왔던 민중들의 만다라가 저 너머 검은 산 붉은 강 에 오롯이 살아있다.



1 앞마당
탈영자금을 따라 가다. 불평척보임방에 들어서면 '민중기묘 피사체(acade)'가 우리를 맞이한다. 근현에서 속에서 소스리고 다시 일어설 때 이곳이 살아있는 민중 살기 싸움과 더불어 오늘의 우리를 항쟁의 자리로 이끈다.



2 민주주의 길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부산민주항쟁 결승기를 따라 앞으로 들어선다.



3 민주항쟁의 현장
민중을 위해 살아왔던 항쟁의 손소리를 계속해서 만나본다. 해방 이후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학생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1세기 이후의 촛불시위까지 강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항쟁의 산맥을 만난다. 글이없이 민중의 몸짓은 항쟁에서 들들로 다시 꽃핀다. 활판 타이포그 있다.



4 억압과 통제의 검옥
우리 근현대의 다른 억압과 통제의 마당이 있다. 그 마당을 독재가 굽어보고 있었으며, 독재 황관은 권력이라는 불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씨앗들을 억누르고 기우겼다. 독립의 씨앗으로 우리 근현대의 아픈 기억을 용으로 노을 수 있다.

늘 펼쳐보임방 안내도
©민주공원

▶ 현장사진자료



4.19혁명 희생자 위령탑과 영령봉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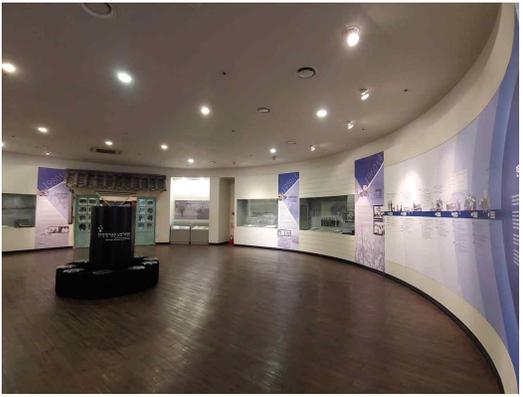
뉘기림마당(추념의 장)



민주항쟁기념관



뜻기림햇불(민주의 햇불)



늘펼쳐보임방 전경



협동서점 모형



억압과 통제의 감옥(독방 체험)



세상 속으로(2016년 촛불시위)



희망의 너른 품(2018년 남북정상회담)



민주항쟁기념관 방문객들의 기록

부산의 봉수대(황령산 봉수대)



■ 주요 개요

대상	부산의 봉수대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 50-1
선정연도	2021년	형태	봉수대
건립시기	조선시대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 말 최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함 - 1452년 『경상도지리지』에 석성봉수대, 간비오산봉수대와 함께 언급 -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국의 봉수대 중 최초로 봉화를 올림 - 1976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시의 학술조사를 거쳐 복원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봉수대 중 가장 오래된 곳 중 한 곳이라는 역사성과 내지봉수와 연변봉수가 분기되는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적 가치도 높게 평가됨 -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 특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으로, 임진왜란 당시 전국의 봉수대 중 최초로 봉화를 올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음 - 내륙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입지적 가치와 시민의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부산지역의 봉수대 중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음 - 현재 황령산봉수대의 복원된 상부구조는 당시 발굴된 상태를 기본으로 문헌의 기록과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현재의 형상을 원형이라 보기 힘들며 차후 인근 봉수대의 발굴 성과를 참고로 정확한 고증, 복원 작업이 필요함 		

■ 설명문

[개요]

봉수대는 조선의 국경·해안 경계와 (긴급)연락을 위해 높은 산에 설치된 군사시설로, 밤에는 횃불(烽)로 낮에는 연기(燧)로 급한 소식을 전달했다. 부산지역은 왜구 침입이 빈번하여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봉수대가 해안선을 따라 다수 설치되었는데, 그 중 황령산봉수대가 그 역사나 역할에 있어 가장 대표적이다. 부산항을 감시구역으로 한 황령산봉수대는 연변봉수 체계 속에서는 석성봉수대와 간비오산봉수대를 연결하였고, 내지봉수 체계로는 응봉봉수대와 계명산봉수대를 연결하였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1425년)에 기록된 것을 미루어볼 때 그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남해안에 왜구의 노략질이 본격화된 고려 후기가 아닐까 추정한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시 최초로 봉수를 올린 역사성과 더불어 부산의 지정학적 특징과 결절점으로서 봉수대의 기능적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1895년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황령산봉수대도 방치되다가, 1976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현재 5개의 연굴과 4각형 굴뚝, 원형 화덕 5개가 설치된 부뚜막 형식으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철저한 고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기장 아이포봉수대 등 다른 봉수대의 발굴조사 성과를 참조하여 정확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부산아시아안게임 성공 개최, 올림픽 유치 기원 등의 목적으로 점화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했으며, 황령산봉수전망대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황령산봉수대가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야경 감상 등을 위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의 공간인 만큼 소중한 미래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미래 세대가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산지역 내 봉수대들의 체계와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개발 작업이 요구된다.

1. 옛날의 정보통신망, 봉수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 공중전화의 낭만이나 일명 ‘삐삐’라고 불렀던 무선호출기의 편리함도 잊혀진지 이미 오래이며 휴대전화 없는 삶을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보검색이나 여가 시간의 활용 외에 의사전달이라는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 보면, 전화와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통신’하였을까?

1885년 서울-인천 간 전신 개통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근대 통신이 본격화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해 봉수(烽燧), 우역(郵驛) 및 파발(擺撥) 등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그 중에서 봉수는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워 밤에는 횃불(烽)로 낮에는 연기(燧)로 급한 소식을 전달하던 통신방법으로, 변경의 급보를 중앙이나 해당 지역의 영진(營鎭)에 단시간에 전달하고자 고안된 군사통신이었다.

봉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면 유럽은 기원전 3세기 알렉산더 대왕이 봉화를 사용하였다 하고, 중국에서는 주나라에서 비롯되어 당나라에 이르러 그 방법과 조직이 크게 정비되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이미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과 백제 온조왕 때부터 이를 활용한 흔적이 보여 그 연원이 매우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 정비와 활용은 고려 의종 때부터라 할 수 있으며,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보편적 방식으로 정비되었다.

먼저, 봉수는 연대(煙臺)의 설치 지역에 따라 전국의 봉수가 모이는 중앙 봉수로서 목멱산(서울 남산)의 경봉수(京烽燧), 국경선이나 해륙 변경의 제일선에 설치된 연변봉수(沿邊烽燧), 경봉수와 연변봉수를 연결하는 내지봉수(內地烽燧) 등 세 종류가 있다. 또 정세에 따라 봉수의 횃수도 달리

했으니, 이를 거화법(擧火法)이라 하는데, 해상의 경우 평상시에는 1거, 적이 나타나면 2거, 전투가 시작될 때는 3거, 접전은 4거, 육지로 침입하면 5거를 올리도록 했다. 이러한 봉수대의 총수는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전국에 약 673개소에 이르는데, 이는 서울까지 최단거리를 잇는 직선 봉수인 직봉(直烽)과 중간 중간 거점을 이은 간봉(間烽)을 모두 합친 숫자다.

2. 가장 오래된 부산의 대표 봉수, 황령산봉수대

그렇다면, 부산의 봉수대는 언제 어느 곳에 설치되었을까? 부산의 주요 봉수대는 해안에 설치된 전형적인 연변봉수들로, 5개의 직봉 가운데 제2봉화노선인 동래-한성 간 봉수망의 직봉 및 간봉에 해당한다.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1425년(세종 7) 이미 부산지방에 동평현의 석성봉수대, 동래현의 황령산봉수대, 동래현의 간비오봉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황령산봉수대는 부산포를 방어하는 해안초소로서, 그리고 간비오봉수대는 해운대만호진을, 석성봉수대는 다대포만호진을 방수하는 초소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포함된 제2로는 부산지역의 석성봉수 → 황령산봉수 → 간비오봉수 → 기장 남산봉수 → 기장 임을랑포봉수로 연결되는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여 영해에서 안동으로 이어져 남산까지 19개 봉수대를 거쳤다. 이는 대체로 1459년(세조 5)에 정해진 것인데, 그 후로도 직봉의 변화가 많았고, 부산지역에서도 다수의 봉수대가 치폐되는 등 변화를 보인다. 아래는 이러한 변천 과정을 정리한 조선시대 부산지역 봉수대의 일람이다.

봉수명	소재지	시기
계명산봉수	금정구 청룡동 산2-1	1455년
황령산봉수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산	1461년 이전
간비오봉수	해운대구 우1동 간비오산	1461년 이전
남산봉수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산52	1461년 이전
임랑포봉수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장안을 임랑리)	1461년 이전
아이포봉수	기장군 장안을 효암리·길천리	1461년 이전
연대산봉수	강서구 천성동 산6-1(연대봉)	1461년 이전
성화예산봉수	강서구 생곡동 산61	1461년 이전
석성봉수	서구 암남동 천마산	1461년 이전
오해야항봉수	남구 용당동 추정	1481년 이전
응봉봉수	사하구 다대동 산31-2	1481~1530년
구봉봉수	동구 초량4동 산29	1725년

부산지역에 이렇게 많은 봉수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고려 말 이래 왜구의 침입이 그만큼 빈번하여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중 황령산봉수대는 고려말, 적어도 조선 초기부터 1895년 봉수제가 폐지될 때까지 존재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봉수대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연변봉수 체계 속에서는 서쪽의 석성, 혹은 구봉봉수대를 동쪽의 간비오봉수대와 연결하였고, 내지봉수 체계로는 남쪽의 응봉봉수대와 북쪽의 계명산봉수대를 연결한 부산 봉

수망의 중심 봉수대에 해당한다. 또한 황령산의 동북쪽에는 동래부사가 있는 동래성이 있고, 동쪽으로는 낙동강 동쪽에서 울산에 이르는 바다 전체를 관할하는 좌수영이 자리잡고 있다. 다른 봉수에 비해 국가의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부산 앞바다에 뜨는 배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1592년에 시작된 7년간의 임진왜란 역시 이곳 황령산봉수대의 봉화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니 그 역사성과 기능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황령산봉수대는 봉수제 폐지 후 방치되었던 것을 1976년 부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부산시의 학술조사를 거쳐 복원되었다. 점화식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거행되어 구한말까지 부산지역의 유일한 국방상 통신수단이었던 봉수대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전적지 발굴에 나선 부산시는 구한말까지 부산지방의 국방상 유일한 통신수단이던 5개의 봉수대 중 3개를 복원, 국군의 날인 1일 상오 10시 점화했다. 부산의 주봉수였던 황령산에서 거행된 점화식에는 박영수 부산시장 등 각 기관장과 부산시 문화재위원 등 많은 시민이 참석, 옛 조상들의 슬기가 지퍼지는 봉화불로 재현되는 것을 지켜봤다.

개화 물결에 따라 들어온 현대 통신수단에 의해 밀려난지 80여 년 만에 다시 지퍼진 봉화불은 옛날 전성기의 전달로 대로 해운대의 간비오산에서 오른 후 주봉화인 황령산봉수대를 거쳐 계명봉(범어사)으로 이어졌다.

해운대에서의 적 발견 신호가 봉화를 통해 단 5분 만에 양산지역까지 전해진 것이 이번 봉수대 복원으로 알려져 당시로써는 봉화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조 세종 때 부산에 설치됐던 이 봉수는 고종 35년(1895)에 폐지되었다.¹⁾

다만, 복원 과정에서는 시대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제대로 된 고증 절차를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조사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전언에 따르면 봉수대는 하부 구조만 잔존하는 상태로 일직선상의 구들이 횡으로 5줄 확인되었다고 한다.²⁾ 이를 바탕으로 일부 문헌기록과 수원성 봉수대를 참조하여 5개의 연굴(烟屈)과 4각형 굴뚝, 그 앞에 원형 화덕 5개가 설치된 부뚜막 형식의 봉수대가 복원되었다.³⁾

3. 황령산봉수대, 새 시대의 봉화를 올리기 위해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비록 군사적 기능은 잃었지만, 황령산봉수대에 봉화를 올리며 평화를 기원하던 마음이나 단결을 촉구하던 상징적 이미지들은 2000년 들어 점화 이벤트로 이어졌다.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개최일을 하루 앞둔 28일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봉화가 황령산을 비롯하여 구봉·웅봉·계명·간비오산·남산 등 6개 봉수대에서 차례대로 점화되었다.⁴⁾ 황령산봉수대에서는 이와 더불어 풍물패 연주와 선녀기원춤, 동래학춤 등 터벗음 행사도 곁들였다.

2007년에는 ‘2020 올림픽유치 부산 범시민지원협의회’ 주최로 시민의 날인 5일 오후 황령산봉수대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부산유치 기원 봉화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봉화식에서는 풍물패의 지신밟기와 대북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0명이 올림픽 유치 기원문을 봉헌하였다. 그 후 제32회(2020)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대북을 32번 울리고 봉수대 5개의 화구에 차례로 불을 지피며 봉화를 올림으로

써 부산이 올림픽 유치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5)

이러한 점화 이벤트뿐 아니라 황령산봉수대는 부산 시민들에게 특별한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다. 왜적의 침입을 알리는 남해안 최전방의 감시초소였던 만큼 사방이 트인 산정에 입지해 있어, 광안대교는 물론, 부산의 항만 부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져 빛어내는 부산의 야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지이다.

황령산봉수대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 만큼 근래에는 봉수전망대를 조성하여 도심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삼자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6) 2004년부터 수차례 추진되었다 무산된 이 사업은 표고 500m의 황령산봉수전망대 조성으로 유원지를 재생시키는 것은 물론 서부산과 동부산의 관광축을 이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는 황령산이 과거 동래와 부산포를 잇던 기능에서 착안하여 봉수대가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황령산의 원형이 훼손될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어 친환경 개발이 향후 관건이라 전망된다.

황령산봉수대의 이미지를 차용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역사성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나 미래유산으로서 황령산봉수대를 보존, 전승하고자 한다면 우선 과거 미흡했던 복원사업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봉수대 중 그 원형 파악이 가능한 기장 아이포봉수대, 남산봉수대 등의 발굴조사성과를 참조하여 정확한 고증과 복원이 필요하다. 또 미래 세대가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부산지역 봉수대들의 체계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작업도 요구된다. 경제 논리로 소중한 미래유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선조들의 기상, 장소가 지닌 의미를 다음 세대에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봉수대 점화식, 황령산서 선조의 호국 슬기 재현」, 『부산일보』, 1976.10.01.(3).

2)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3) 「부산지역 봉수대 고증절차 없이 복원 지표조사에만 의존 원형보존 실패」, 『부산일보』, 1995.12.29.

4) 「부산AG, AG 전야제 행사 부산 전역서 펼쳐」, 『부산일보』, 2002.09.27.(34).

5) 「2020 올림픽 부산유치 기원 봉화식」, 『중앙일보』, 2007.10.04.

6) 「'도심관광 새 축' 논의 17년 만에 본격화...친환경 개발 관건,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시동」, 『국제신문』, 2021.08.19.(3)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부경역사연구소, 『부산, 역사 향기를 찾아서』, 부산은행, 2001.

이근우·채영희·오창호·신명호, 「경상좌수영과 왜관을 활용한 부산의 해양문화 관광루트 개발방안」, 『해항도시 문화교섭학』, No.22, 2020.

이귀혜, 「부산지방의 봉수대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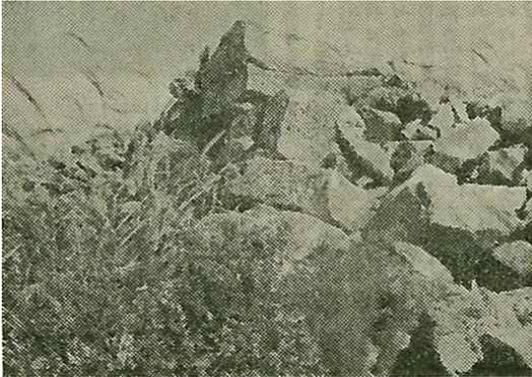
- 「임란때의 부산 수호역 5개의 봉화대 복원·점화, 선조들의 호국 녋 기려」, 『부산일보』, 1976.07.15.(5).
「봉수대 점화식, 황령산서 선조의 호국 슬기 재현」, 『부산일보』, 1976.10.01.(3).
「부산지역 봉수대 고증절차 없이 복원 지표조사에만 의존 원형보존 실패」, 『부산일보』, 1995.12.29.
「부산AG, AG 전야제 행사 부산 전역서 펼쳐」, 『부산일보』, 2002.09.27.(34).
「2020 올림픽 부산유치 기원 봉화식」, 『중앙일보』, 2007.10.04.
「'도심관광 새 축' 논의 17년 만에 본격화...친환경 개발 관건, 황령산 봉수전망대 사업 시동」, 『국제신문』,
2021.08.19.(3)

- 인터넷 홈페이지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 사진 자료

▶ 사진기록자료



흔적만 남은 황령산 봉수대
『부산일보』, 1976.7.15.(5)



봉수대 점화식
『부산일보』, 1976.10.01.(3)



2020 올림픽 부산유치 기원봉화식(2007)
©부산역사문화대전



황령산봉수대에서 본 부산불꽃축제
©부산광역시

▶ 현장사진자료



황령산봉수대



황령산봉수대



표석



연대와 연조



연대



화덕



연대와 화덕



황령산봉수대에서 본 부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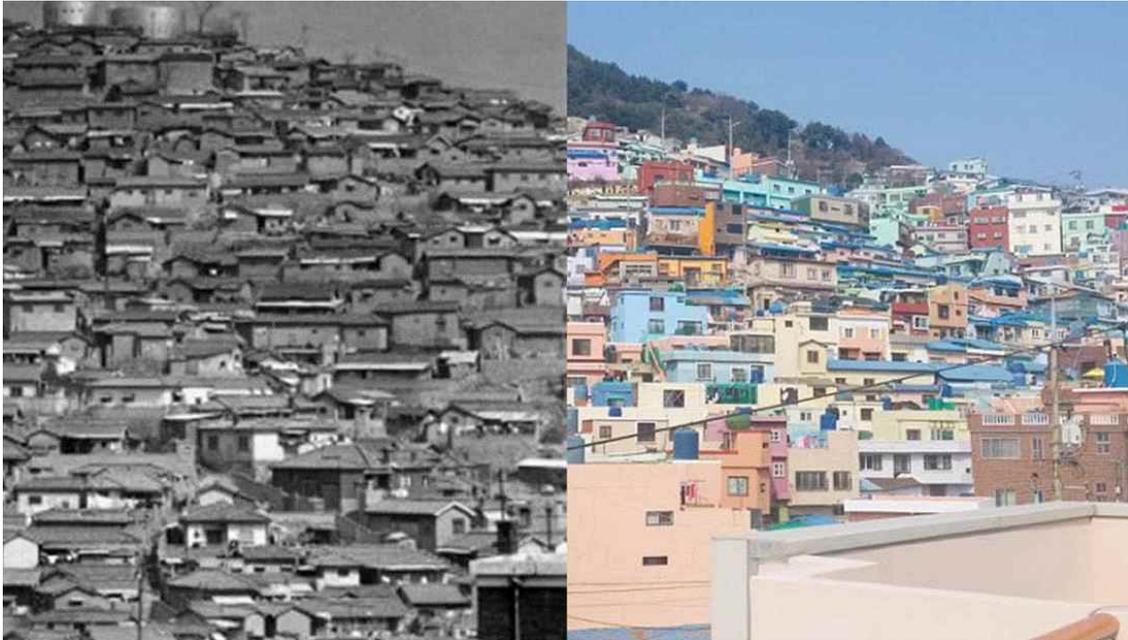


야경 촬영 스폿



황령산봉수대에서 본 야경

감천문화마을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웹진

■ 주요개요

대상	감천문화마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03
		홈페이지	https://www.gamcheon.or.kr/
선정연도	2021년	형태	도시재생
건립시기	1955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태극도 임시본부가 위치한 보수동을 중심으로 피란 신도의 거주지 형성 - 1955년 이후 태극도 신앙공동체가 감천동으로 집단 이주 - 1990년대 약 2만 5천 명의 인구 거주 추정(최대인구)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09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선정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 2010년 감천동 문화마을 운영협의회 결성 - 2011년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셋바람 신바람 프로젝트', '방가방가 프로젝트' 시행 - 2011~202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 2012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대상 수상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기쁨두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 - 2012년 전통 우리신 '화해' 교육 및 전수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년 보전관리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지정 -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 선정
<p style="text-align: center;">보존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피란민 마을이라는 상징성에 '태극도'라는 특정 종교 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 마을이라는 특수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의 다른 피란민 마을과도 다른 독특한 점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인근에 위치한 아미동 비석마을과 더불어 '피란수도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임 -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부산시 행정 당국과 지역 예술가, 지역 주민들 간 체계적 거버넌스를 통해 삶의 터전이자 역사적 현장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한 모범 사례임

■ 설명문

<p>【개요】</p> <p>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0.62km², 2, 3,316세대, 5,800명이 거주하고 있다. (22. 1. 7 기준)</p> <p>1955년 부산으로 피난 온 태극도 신도들이 현재 감천문화마을 위치에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이들은 함께 마을을 일구어 나갔고, 한때는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면서 '감포동'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번성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마을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 노후화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9년 '꿈을 꾸는 마추픽추'사업으로 예술가와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새로이 단장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사업을 거쳐 현재의 감천문화마을을 만들어냈다.</p> <p>감천문화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은 한국 근현대사의 절곡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생활했던 순간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와 마을 주민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완성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감천문화마을이 보여준 '함께'의 정신이 부산의 미래 정신 유산으로 발전된다면, 부산이 더욱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양성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p>
--

1. 원도심 쇠퇴의 상징에서 부산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산하면 떠오르는 남포동, 그리고 자갈치를 살짝 지나면 이름도 생소한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서 1-1번 마을버스로 환승하여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면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감천문화마을 입구를 마주할 수 있다. 주말의 감천문화마을은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하다. 추억의 과자를 한입씩 나눠 먹는 가족, 연인, 친구들로 북적북적한 동네. 거기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추픽추'같은 장관에 감탄을 연발하면서도 마을의 정겨운 모습과 조형물들을 즐겁게 바라본다.

감천문화마을의 출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감천문화마을의 출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피란민의 집성촌이었다. 전란을 거치면서 많은 피란민들이 산비탈을 따라 여러 마을을 일구었는데, 감천문화마을도 이때 만들어졌다. 마을은 한때 2만 5천명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번성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부산 원도심 쇠퇴의 상징이 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노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천문화마을의 획기적 전환을 알리는 2009년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 동안 마을 주민과 부산지역 예술가들은 함께 마을에 어울리는 예술작품을 설치하였다. 이때부터 피란민 마을, 또는 ‘태극도 마을’로만 알려져 왔던 감천2동은 역사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감천문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났다.

감천문화마을은 2019년 기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간 해운대, 광안리 바닷가만을 연상하던 부산의 관광 콘텐츠에 감천문화마을은 그야말로 신바람을 불러왔다. 감천문화마을의 인기 상승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급격한 발달이 한몫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을 언덕에 자리한 ‘어린왕자와 사막여우’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으려면 긴 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사진을 찍기 위해 저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포즈를 연습하고 있다. 과거 피란민들이 전란을 피해 내려와 자리잡았던 마을은 어떻게 부산 최고의,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되었을까?

2. 태극도 마을에서 ‘감포동’으로 발전하기까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는 많은 피란민들이 전란을 피해 부산으로 이주해왔다. 전쟁 직후 부산의 인구는 약 45만 명 정도 유입된 상태였고, 부산은 전란 3년 만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된 부산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소위 ‘산동네’로 불리는 산비탈에 피란민이 몰려들어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를 따라 피란을 온 신○○은 부산의 첫 풍경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캠캄했거든, 부산역에 지금 초량역 자리에 있었는데, 딱 내렸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불이 사방이 탁탁탁, 아따 높은 빌딩 인줄 알았어, 층 수가 많아서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 판잣집. 밤에 캄캄한데,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전기가 흔했지만,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거든. 부산역에 내리니까 불이 반짝 반짝하니까 와~따 저게 한 30층 이상되는 건물이구나 했는데.(웃음) 그때 그게 다 판잣집, 피란 내려와서 산비탈에 다 판잣집을 짓고.)

어린 신○○의 눈에 고층빌딩처럼 비친 건물이 실은 산비탈에 늘어진 피란민들의 판잣집이었던 것이다. 감천동도 그렇게 피란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동네 중 하나였다. 독특한 것은 이들 피란민들 중 일부가 태극도 교인이었다는 점이다. 즉 감천동은 피란민과 태극도 교인이라는 여러 정체성이 중첩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6년 교주 조철제(趙哲濟)가 세운 증산도 계통의 교단인 태극도 교단은 한국전쟁 당시 중구 보수동에 임시본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55년 발생한 보수동 화재로 태극도 신도들은 생활 터전을 잃게 되었다. 터전을 잃은 약 4천여 명의 신도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같은 해 7월부터 천마

산과 옥녀봉 사이 해발 200~300m에 위치한 감천동으로 집단 이주하였다. 이들은 판잣집 1천여 가구를 지어 거주하였는데, 사람들은 태극도인들이 모여 산다고 하여 ‘태극도 마을’이라는 별칭을 붙여 불렀다. 이것이 감천동의 시작이었다.

마을을 만드는 데 이들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 판잣집을 지을 동안에는 교단에서 내어준 천막에서 생활했고, 건축 자재는 보수동에서 뜯어 험준한 산비탈을 넘나들며 옮겨야 했다. 그렇게 하여 커박야 2~3평인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섰다.

그때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셋집이 같이 이사 왔거든. 여기 세집뿐이 없었어 여기는. 서로 그 어른들끼리 같이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돌려가며 하더라고 신용철씨라고, 나한테 형님뻘인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고, 우리 집 뒤에 그 이름 모르는 데 세분들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그렇지 보수동 판잣집을 뜯어서 그대로 갖다 그대로 지은거지. 그러니까 방 한 칸 해봤자 사람하나 들어갈 정도고 부엌 한 칸 그거 밖에 안대 평수가. 지금은 두 개 세계 넓었지만 처음 판잣집 옮길 때는 여섯 평에 여섯 평 아니고 여섯 자 한두 평 세 평, 두 평 세 평 밖에 안됐어. 제일 큰집이 세 평.²⁾

이렇게 만들어진 감천동은 교주 조철제에 의해 신앙촌으로 관리되었다. 조철제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흉내 내어 감천동을 감천구곡(甘川九曲)으로 만들고자 했다. 구곡(九曲)은 구감으로도 불렸는데 감은 일종의 행정구역을 의미했다. 각 구역은 계단식 주거배치로 지역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종교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각 감은 태극도 회의실을 두었는데 집이 좁은 당시로서는 이곳이 사랑방의 역할을 했다. 여기서 종교적 행사뿐만 아니라 관혼상제와 같은 우리네 일상의 예식들이 모두 여기서 진행되었으니 그야말로 각 감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주민들은 저마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며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갔다. 아래의 글은 당시 감천동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어울렸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때 당시는 각... 인자 지금은 통이지만 그때는 여기가 1감이고 1감에서 9감까지 있거든. 감천이 소위 1감 2감 3감 4감 5감이 태극도 거기서부터 중간이 5감이고 거서부터 천마산 밑에까지 7감 9감까지 있어서 각 감마다 회의실이 있었어. 그 회의실에 모여서 태극도 포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덕담도 하고 인자 각 하튼 뭐 저녁에 모여서 천막에서 남자들은 술이라도 한잔하고 국수라도 사다 먹고 그래 시간을 보냈지. 태극도에서 간부들이 나와서 태극도 소식 전하고 무슨 종교에 대한 선전하고 하면 모여서 하고.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거기서도 하고 나도 회실에서 결혼 했지. 다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지. 그렇지. 명절 때는 그때만 해도 농악치고 여기가 분위기가 참 시골 도시속의 시골이라고 서로 이웃 간에 정이 있고 그렇게 모두 참 뭐 명절 때도, 제사 때, 생일 때고 좀 별난 음식을 하면 이웃 사람들 불려서 먹고 별난 음식하면 나눠먹고 이 동네가 그런 게 있어요.³⁾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서로의 따듯한 정을 나누며 감천동은 점차 발전되어 나갔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에는 국제시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 직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한 셈이다. 한편 주민들은 남은 시간에 마을을 일구는 데에도 힘썼다.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주택건물이 일부 개량되기는 하였지만, 도로포장, 우물 정비 등 중요한 일들은 모두 마을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⁴⁾ 이웃 마을이었던 ‘아미동 비석마을’ 사람들은 감천동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억척스러움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감천동 사람들 역시 아미동 사람들에게 대해 “아미동 사람보다 우리 감천사람들이 더 성실했다.” 등의 기억을 하곤 한다.⁵⁾

1970대를 지나면서 마을은 산등선 경사를 따라 서북쪽, 동남쪽의 높은 지대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물결로 인한 인구 유입이 원인이었다. 당시에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거주민보다 생활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주가 쉬우면서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피란민 집성촌에 터전을 잡았다.⁶⁾ 1980년대에 이르면 감천동은 약 2만 5천명이 거주할 정도로 번성하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감천동은 일명 ‘감포동(감천의 남포동)’으로 불렸다. 태극도도 분파되기 시작하면서 9감의 구역은 서서히 해체되어 갔으며, 감천동은 ‘태극도 마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부산 시내와 근접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역동적인 마을로써 부산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소방도로가 정비되어 현재의 옥천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또한 마을 외곽 경계도로가 확장되고, 천마산 산복도로가 건설되었다. 도로의 형성과 함께 고지대에 주택가가 형성되는 한편 비교적 평평한 남쪽 저지대에는 주택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길과 필지를 통합하면서 공동주택 등으로 바뀌었다. 당시 주택의 신축과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외벽 페인트 도장이 시작되었고, 이는 현재 감천동의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산등선을 따라 형성된 주거 공간과 독특한 마을 경관을 자랑하던 감천동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도시화, 인구 감소, 주택 노후화 등의 이유로 생기를 잃게 된다. 이때 마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 것이 바로 2009년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마을의 중심축을 따라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들이 생겼고, 외곽의 도로를 접한 곳에는 카페, 상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형성되었다.⁷⁾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이 이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3. 함께 만드는 감천문화마을로 재탄생하다

감천문화마을의 변화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부산지역 예술가들 및 시설개선 전문가와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협력, 10여 년 간 수차례 부산광역시가 관련 사업에 적극 지원한 결과였다. 마을 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2009)”,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2010)”, “어르신들과 작가들의 손길로(2010)”, “BI(Brand Identity)개발과 마을지도 제작”,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2011~2020)”, “생활환경 개선사업(2011)”, “친환경 가로등 교체(2012)”, “커뮤니티 센터 및 마을기업 오픈(2012)”, “기쁨 두배 마을미술 프로젝트(2012)”, “전통 우리신「화해」 교육 및 전수관 조성(2012)” 등의 크고·작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중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공간재생, 생활재생, 문화재생, 경제재생 등의 종합재생을 원칙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⁸⁾ 위 사업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다.

사업명(실시연도)	내용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개 꿈으로 그려낸 우리 마을'이라는 작품 주제를 공유하는 공간에 예술작품 10점 조성 -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사람 그리고 새' 같은 작품 제작 - 이 작품들을 토대로 마을 경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함⁹⁾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가 있는 빈집' : 마을의 300여개 빈집 중 6개소(하늘마루, 평화의 집, 빛의 집, 어둠의 집, 사진 갤러리, 북카페)를 리모델링, 예술작품 3점을 설치 - '골목길 재생프로젝트' : 미로 같은 골목길 구석구석에 지역대학과 주민들이 직접 만든 예술 조형물 6점 설치 - 조형물의 위치를 표시한 마을 지도를 제작하여 관람객들이 보물찾기를 하듯 마을 구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골목길 투어코스를 개발
생활환경 개선사업(2011)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바람 신바람 프로젝트' : 골목길, 계단 개선, 개·보수가 필요한 가정의 지붕 교체, 도색 및 도배 등 주거 환경 개선 -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자활 능력 강화를 위해 마을 안에 공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마련 - 'Home my Home' 프로젝트 : 주택 리모델링 기간 중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주택을 조성, 저소득층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추진 - '방가방가(放家芳家)' 프로젝트 :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수평 골목길 및 수직 계단실 난간대 설치, 공동우물 보수, 쌈지공원 조성
기쁨두배 마을미술 프로젝트(2012) 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작품 10점(빈집 프로젝트 3점, 공간조형 4점, 벽면조형 2점, 평면회화 1점) 조성·설치. - 이 사업으로 설치된 나인주 작가의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는 감천문화마을의 대표적인 포토존(Photo Zone)이 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
'화혜장' 안해표 씨의 신발 전수관 개관(2013) 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안해표 씨가 직접 전통신 제작, 전수조교 등의 기술을 전수 -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감천문화마을의 의의를 더 하고 있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2011~2020) 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시비 8억 8천만 원이 지원되어 커뮤니티센터와 마을기업 마을 카페가 조성됨 - 2012년 이후 공영주차장 설치, 골목길 정비, 조명 시설 설치, 작은 박물관 조성, 작은 미술관 조성, 천덕수 우물복원 마을주민일터 조성, 맛집 조성, 포토존 조성, 담장가꾸기, 미로미로 꽃길 조성, 홈페이지 제작, 커뮤니티 광장 조성, 마을신문제작 등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및 공동이용시설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위 사업들은 단순히 감천문화마을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며, 마을의 인기는 반짝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마을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을 유지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였다. 콘텐츠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예술가들에게서 나왔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천문화마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2009)”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경관을 바꾸는 작품을 설치하는 데,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2010)”에서는 골목길의 조형물과 관광객들이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지도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화혜장’ 안해표 씨도 그 자신이

직접 지역주민, 관광객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어울리며 함께하는 감천문화마을의 의미를 더욱 빛내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마을주민들도 새로운 활기를 되찾은 것 같다. 마을주민 강○○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근래 마을이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사진작가나 대학생들이 찾아온다. 한때 ‘남포동’ 처럼 사람들이 봄베 ‘감포동’으로 불렸던 마을의 전성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¹⁴⁾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마을수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현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의 마을수익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인 감내맛집과 마을 생산품을 판매하는 감천문화마을 미니숍, 마을기업인 감내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마을수익사업은 주민 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기 마을수익사업은 시, 구청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점차 주민협의회의 참여와 역량이 강화되면서 주민협의회의 주도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최근 구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내어울터(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등도 주민협의회의 스스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정도로 주민협의회의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는 마을 주민들의 홍보 및 마을 교육의 중요성 인식, 주민·행정·마을전문가·중간지원조직의 상호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4. ‘함께 만든’ 감천문화마을, 부산의 미래 정신으로 삼아야

감천문화마을은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아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감천문화마을 형성과정에는 한국전쟁, 산업화, 도시화 등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나누었던 정(情)과 함께 마을을 일구었던 피와 땀의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다. 만약 감천문화마을을 기존의 방식으로 재개발했다면, 단순히 부산의 한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와 이를 일구었던 사람들의 노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장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유산도 사라진 셈이 된다.

다행히 감천문화마을은 여러 차례 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여기에는 단순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을 넘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녹아있다. 그 결과, 감천문화마을은 연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이후에도 부산의 살아있는 근현대 역사의 장이자, 옛 감천동 주민들이 보여주었던 “함께의 정신”을 이어가는 장소로서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감천문화마을이 이어온 이러한 정신적, 역사적 가치를 통해 부산은 성별, 세대,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포용성, 다양성을 가진 젊고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주민들의 바람이었던 ‘전성기의 감포동’이 다시 찾아오고, 이것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 정신이 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 1)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6.25 피란생활사 : 피란민의 삶과 기억』, 부산발전연구원, 2016, 84쪽.
- 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위의 책, 93~94쪽.
- 3)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위의 책, 96~97쪽.
- 4) 부산광역시, 『돌고돌아 태극이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감천문화마을 사람들 이야기』,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2021, 56~64쪽.
- 5) 부산광역시, 위의 책, 51~54쪽.
- 6) 부산광역시, 위의 책, 10~27쪽.
- 7) 손영림 외 1명, 「부산 피란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주민 인지성 연구 -감천문화마을, 우암 소막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2권 1호, 한국주거학회, 2021, 33~35쪽.
- 8) 이석환, 「감천문화마을 만들기」, 『건축』 59권 6호, 대한건축학회, 2015, 42~44쪽.
- 9) 「감천2동 산복도로, 여기 ... 공공미술 현장으로 변신한다」, 『부산일보』, 2009.05.26. ; 「수요광장, 부산의 마추피추, 골목길」, 『부산일보』, 2009.06.17.
- 10) 이석환, 위의 논문, 43쪽.
- 11) 「부산의 마추픽추 기대해 주세요」, 『부산일보』, 2011.05.27.
- 12) 「'화혜장' 안해표 씨 전통 신발 전수관 개관」, 『부산일보』, 2013.01.30.
- 13) 「정부도 반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국제신문』, 2013.11.14.
- 14) 「'감천고개 산동네' 꽃이 피고 잠자리 날아요」, 『부산일보』, 2009.9.16.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 권진휘, 「부산형 도시재생산업산복도로 르네상스 감천문화마을」, 『열린충남』 69호, 충남발전연구원, 2014.
- 김창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 대회자료집』, 2012.
- 박현희, 「낙후된 산동네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마을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국토』, 국토연구원, 201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6.25 피란생활사 : 피란민의 삶과 기억』, 부산발전연구원, 2016,
- 손영림 외 1명, 「부산 피란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주민 인지성 연구 -감천문화마을, 우암 소막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2권 1호, 한국주거학회, 2021.
- 이석환, 「감천문화마을 만들기」, 『건축』 59권 6호, 대한건축학회, 2015.
- 이연숙 외 1명,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자산 기반 재생과정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4권 3호,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4.
- 이영준 외 1명, 「도심 재생 사례 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콘텐츠학회 2014.

- 신문 기사

- 「감천2동 산복도로, 여기... 공공미술 현장으로 변신한다」, 『부산일보』, 2009.05.26.
- 「수요광장, 부산의 마추피추, 골목길」, 『부산일보』, 2009.06.17.
- 「'감천고개 산동네' 꽃이 피고 잠자리 날아요」, 『부산일보』, 2009.9.16.
- 「부산 산복도로 국내 최장 순환도로망 구축 추진」, 『부산일보』, 2010.03.25.
- 「부산의 마추픽추 기대해 주세요」, 『부산일보』, 2011.05.27.
- 「"도시 재생 사업 최고 모범 사례"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10만 시대」, 『부산일보』, 2013.01.09.
- 「부산 감천문화마을, 아프리카 도시재생모델로」, 『국제신문』, 2012.09.16.
- 「부산감천문화마을, 아시아 최고 경관 마을 선정」, 『부산일보』, 2012.11.29.

- 「'화해장' 안해표 씨 전통 신발 전수관 개관」, 『부산일보』, 2013.01.30.
- 「감천문화마을, 세계가 주목하다」, 『부산일보』, 2013.08.16.
- 「정부도 반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국제신문』, 2013.11.14.
- 「감천문화마을 민관협력 대상 대통령상」, 『부산일보』, 2013.12.12.
- 「감천문화마을,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선정」, 『부산일보』, 2014.04.13.
- 「"장삿속" vs "재치 있다"...감천마을 '어린왕자' 말풍선 논란」, 『부산일보』, 2020.05.11.
- 「해인사·감천문화마을 부울경 명소 15곳 '한국 관광 100선' 선정」, 『부산일보』, 2021.01.31.

■ 사진자료

▶ 사진기록자료



1950년대 감천마을항공사진
©부산시청홈페이지



1950년대 감천마을
©고양신문



1950년대 감천마을 주택의 모습
©경남일보



1960년대 태극도 마을 주민들
©국제신문



감천문화마을 전경
©시사뉴스

▶ 현장사진자료



현재 감천문화마을 옥천로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마을미술 프로젝트)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기쁨두배 마을미술 프로젝트)



향수(미로프로젝트)



사람 그리고 새(꿈을 꾸는 마추픽추)



우리동네 감천(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화해장 전수관



부산 태극도 감천 본부 도장과 전시관

온천천



©부산광역시

■ 주요 개요

대상	온천천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선정연도	2021년	건립용도	자연하천
건립시기	1998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초반까지 자연형 하천을 유지했으나, 시가지 개발과 오폐수 방류로 오염 - 1995년 온천천 SOS운동 등 시민단체의 온천천 복원 촉구 - 1998~1999년 환경친화적 시민공원 조성사업 이후 온천천 살리기 사업 지속 추진 - 2000년 8개 사회·환경단체가 연합하여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 2002년 17개 환경단체가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연대' 발족 - 2003년 민·관 협력체 '부산하천운동본부' 발족 - 2010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주민만족도 92.4% 달성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어사와 동래읍성을 연결하고, 하류 수영강 인근의 좌수영성과 연계되어 과거 군사 방어선 역할을 했던 역사·지정학적 가치가 풍부 - 부산의 유서 깊은 도심 자연형 하천으로 지역의 상징적인 자연경관임 - 민·관 협의체에 의한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례 - 지역민에게 다양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친수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설명문

[개요]

온천천은 금정산 고당봉과 계명봉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범어사 계곡을 지나 동래구와 연제구를 거쳐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이다. 옛 동래 지방의 중심 하천으로 '범어천', '서천', 또는 '동래천'이라 부르기도 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넓은 백사장과 송어가 뛰노는 자연형 하천의 경관을 유지했으나, 이후 산업화에 따른 시가지 개발과 오폐수 방류 등으로 오염되어 옛 모습을 잃은 '죽은 하천'으로 취급되었다.

온천천을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1995년 시민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8년 연제구가 착수한 온천천 복원사업은 이후 다른 지역구로도 확산되어 2,000년경부터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 양재천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례이며, 지역에서는 첫 번째 성과이다. 또한 복원된 하천의 양쪽 기슭은 각종 체육시설 등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다. 이러한 복원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어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성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모든 것에 명과 암이 있듯이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는 온천천 복원사업 역시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종 벌어지는 물고기의 집단 폐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온천천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애증을 조율하기 위한 통합 관리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겠다. 또 3개 구 공통으로 추진할 생태와 역사 기반의 축제 등 이벤트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미래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나친 인공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도심 하수구'가 '부산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넘쳐났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천 둔치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빼곡했다. 자전거를 타는 청년도 발견했고 농구하는 아이들도, 운동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유모차 끌고 나온 애엄마도 있었다. 이어폰을 꽂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도 보였고 그냥 앉아서 담소 나누는 사람도 보였다. 물은 흘렀고 사람들의 이야기꽃도 그렇게 피어났다. 아파트 숲으로 뻗뻗한 도심 한가운데 온천천은 그야말로 신기하고도 대견한 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95년 이전 냄새나고 더러웠던 그 온천천이 매일 3만 명의 인파가 찾고 90%가 넘는 주민 만족도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늘 커다란 호수(대청호)를 옆에 두고 시가지가 지나가는 하천(금구천)을 바로 곁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옥천 주민으로서는 그야말로 부러울 수 밖에...¹⁾

이 글은 2010년 '수물 30년, 옥천의 미래 대청호에서 찾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부산 온천천 취재기의 일부이다. 외부의 시선으로 조망한 온천천은 미래의 하천 복원사업에 모범이라 인식될 만큼 부러움의 대상이다. 어떻게 '도심 하수구' 취급을 받던 온천천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압도적 사랑을 받는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이 물음에 답변하는 일은 부산의 미래유산 온천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온천천의 옛 모습을 거슬러 가보자.

2. 동래의 젓줄, 온천천

온천천은 수영강의 제1지류로, 예로부터 동래지역의 젓줄 역할을 하던 중심 하천이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고당봉과 계명봉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범어사 계곡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며 동래읍성을 감싸돌고, 세병교 인근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 망미동 일대에서 수영강 본류와 합류한다. 금정구·동래구·연제구에 걸친 유역 면적 56.28km²에 유로 연장 14.13km, 폭은 30~90m이며, 상류에서부터 장전천·건너천·명륜천·미남천·사직천·거제천·안락천 등 14개 소하천을 거느린다.²⁾

과거에는 ‘범어천’, ‘서천’, ‘동래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를 옛 기록에서 찾아보면, 먼저 조선 시대 대표적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은 ‘범어천’을 언급하며 “현(縣)의 서쪽 2리에 있고, 그 수원(水原)은 금정산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또한, 『동래부읍지』(1759) 산천조에는 “범어천은 부(府) 서쪽 3리에 있는데,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해운포로 흘러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동래군지』(1937)에서는 “서천은 일명 범어천이라고도 하며, 금정산에서 발원하여 동래읍 동쪽으로 흐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 여러 기록으로 추론해 볼 때, 상류의 범어사 계곡지역을 범어천, 그 아래를 서천, 혹은 동래천이라 불렀으나, 일제강점기 온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온천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

생명의 근원은 물이요, 물이 이루어 강이 되고, 그곳에서 문명이 발원하였으니, 온천천 주위에도 문명의 흔적은 익히 발견된다. 동래부의 영화를 낳았던 하천 양쪽 기슭의 동래곡저평야는 논과 미나리밭으로 이용되었으나, 이제는 시가지로 변모하여 옛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물길이 동쪽으로 방향을 틀던 세병교 구간은 온통 모래사장이어서 ‘황새벌’로 불릴 만큼 황새가 많았고, 그 몸짓을 흉내 낸 동래학춤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등 전쟁을 끝내고 피 묻은 창칼을 씻었다는 동래읍성 남문 앞의 ‘세병교(洗兵橋)’, 이웃이 편하고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모금과 부역으로 완성한 ‘이섭교(利涉橋)’ 등 강물이 흘러온 시간만큼 인간의 사연도 켜켜이 쌓여 빼곡하다. 하류에서 만나는 수영강의 도도한 물길은 인근 좌수영성과 함께 동래성이 이 땅의 최일선임을 주지시켜 온천천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치를 새삼 각인케 한다.

3. 송어가 뛰놀던 맑은 천이 시궁창으로 변하다

동래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온천천의 옛 모습은 어떠했을까? 1938년부터 낙민동에서 살아왔다는 한 노인(1927년생 추정)은 범어사 계곡은 물론 여러 지천의 물이 합류하여 홍수에도 범람하지 않고 가뭄에도 심하게 마르는 일이 없었던 온천천의 풍부한 수량을 이렇게 회고한다.

내 기억으로는 물이 넘친 적은 없다. 60년 사라호 태풍 때 제방이 찢랑찰랑해서 주민들이 제방에 모래주머니를 쌓았다. 온천천 물은 금정산 계곡(주로 범어사 계곡) 물과 일제강점기에 만든 회동수원지 물의 큰 줄기가 온천천으로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범어사 계곡물과 회동수원지 물이 하나도 온천천으로 안 들어온다. 홍수가 나면 물길로 하천 바닥이 조금씩 달려져 깊이가 차이 났지만 허벅지에서 목 깊이까지 물이 항상 많았다. 겨울에도 물이 많았고, 봄 여름 가뭄이 두 달 이상 계속되면 물이 조금 마르곤 했었다.⁴⁾

그 시절 온천천은 그대로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어른들이 빨래를 하고 몸을 씻던 사교의 장이었다. 송어와 재첩이 많았고, 하천 백사장에서는 손으로 뱀장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흔했다. 바닷고기인 황어가 세병교 인근까지 거슬러 올라왔고, 원동교의 송어회는 소문난 별미였다. 지금은 모

두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지만, 드문드문 집이 몇 채 있을 뿐 대부분 논밭이었던 한가한 온천천 주변 풍경이 그려진다.

아이들은 소를 몰고 와서 독에 매어놓아 풀을 먹이고 소싸움도 시켰다. 낮에 더울 땀 물장구 치고, 모래싸움 하고 재첩과 고기도 잡았었다. 저녁에는 세병교 쪽에서는 남자들이 목욕을 했었고, 더 아래 하류 쪽에서 아줌마와 처녀들이 목욕을 했다. 정과정 쪽에는 물이 휘돌아치고 깊어서 애들이 빠져죽거나 떠내려가면 수영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곤 했었다. (중략) 주변엔 온통 논과 습지, 연꽃이 많았다. 아낙들은 빨래도 하고 물도 떠가곤 했다. 수영비행장 어촌 주민들이 물고기 대야를 머리에 이고 와 동래시장 어물전에 팔거나 다른 물건과 물물교환을 했다.

송어와 재첩이 많았다. 정과정 쪽에는 재첩이 엄지손가락보다 컸는데 소쿠리로 끌면 한 시간도 안 되어서 큰 가마니로 가득했다. 송어도 하천만 아니라 주변 논바닥에도 많았다. 이것 말고도 피라미, 논고동, 미꾸라지, 자라도 많았다. 하천 모래섬에 뱀장어도 많아서 손을 집어넣어 잡곤 했다. 수영비행장 쪽에는 큰 송어가 팔딱팔딱 뛰었고, 온천천으로 올라오곤 했다.⁵⁾

이렇듯 생활의 일부였던 온천천에 아이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1970년대 초반 수질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온천천 양쪽 기슭의 동래 곡저평야가 시가지화되고, 제방축조, 제방도로 건설 등으로 주변 저습지의 저류 기능이 상실되었다. 또한 온천천 발원지인 금정산 주변에서 무허가 상수도를 사용함에 따라 계곡의 건천화가 발생해 유량이 급감하고, 각종 쓰레기와 하수의 유입으로 하천 전체가 거대한 하수관으로 변하였다. 1977년 당시 신문에는 온천천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고기가 뛰어놀아 개구쟁이들의 낙원이었던 온천천이 지금은 오물을 쥐어짜 놓은 물처럼 빛깔이 시커멓게 죽었고 심한 악취가 코를 찌러 하천 독에서의 산책조차 어렵게 되어 버렸다. 특히 오염된 온천천 물이 수영강으로 흘러들어가 수영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이곳 공해업소 중에서도 무허가 야교공장의 공해가 가장 심하다. 주택가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2개의 야교 공장에서는 야교를 만들고 난 뒤 밀가루 반죽 같은 찌꺼기를 하천에 그대로 쏟아버리고 있다.⁶⁾

위 기사는 최대 공해업소로 지목한 야교공장 외에도 비닐재생공장, 차량정비공장, 수지공장, 모직공장 등이 많은 양의 폐수를 하천으로 마구 쏟아내고 있음을 고발하였다. 이 무렵 “먹물처럼 흐르는” 온천천에 “깍도요새 40~50마리가 날아와 ... 썩은 물속에 부리를 박고 미꾸라지 등 먹이를 찾기도 하고 떼지어 강을 따라 날아다니기도”하는 안타까운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⁷⁾

이렇게 온천천의 수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1994년에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78.7ppm으로 사실상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은 하천으로 판정받게 되었다.⁸⁾

4. 시민 참여로 되살아난 생명의 강

시궁창 냄새만 날리던 ‘죽음의 강’ 온천천이 ‘생명의 강’으로 부활하게 된 것은 1995년 민선 단체장 시대가 열리면서부터였다. 온천천은 부산지역 하천 중 환경개선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곳으로, 이는 같은 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온천천 SOS운동’ 등 민간부문에서의 온천천 살리기 운동에 힘입은 바 컸다. 온천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때마침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

제책의 일환으로 1998년 11월 연제구가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하면서 온천천 복원사업은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먼저 오페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오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2005년에는 온천천 수량 유지와 수질 개선을 위해 하루 3~5만 톤의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이는 통수로로 개통하였다. 그리고 하천 양쪽 기슭에는 자전거 길, 산책로, 인공폭포, 수영장 등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시행으로 온천천은 2000년 무렵부터 수영장을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와 오리·갈매기·백로 등의 조류, 해바라기·쭈부쟁이·억새 등의 식생이 풍부한 생태하천이자 도심하천으로 점차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는 서울의 양재천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보전·복원된 것으로, 지방 도시로서는 최초이다. 비슷한 시기 서울 청계천이 인공 하천으로 복원된 것을 염두에 두면, 온천천의 성과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친수공간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2010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주민만족도 92.4%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⁹⁾ 또한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형성된 동래지역의 온천천 주변은 다양한 청년문화가 실험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상의 온천천 복원사업은 먼저 시민사회가 그 관심을 촉구하였고, 이에 화답한 연제구가 첫발을 내딛어 성과를 내자, 이웃한 금정구와 동래구가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성과를 낸 모범적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4월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해 왔던 사회·환경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이후 부산의 하천 전반을 대상으로 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2002.2)와 민·관협력기구 ‘부산하천운동본부’(2003.5)의 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5. 화려함 이면의 그림자, 미래유산 온천천을 보존하려면

그러나 온천천의 성과를 화려한 외관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온천천은 이미 부산의 다른 하천들, 나아가 전국 하천 복원사업의 모범적 선례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상류의 복개를 걷어내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자연형 하천의 복원을 비롯해,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 문제, 무분별한 체육시설의 설치 등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 외에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천천은 금정·동래·연제 3개구가 공유하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을 연계한 연합 도시생태 축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정산에서 수영강까지 이어지는 생태 트레킹 육성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금정산과 범어사, 동래읍성과 좌수영성을 연결하는 역사적 공간인 만큼 역사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동래읍성과 좌수영성은 조선시대 국경 방어의 최일선이었고,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의 처절함은 ‘세병교’라는 지명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류에 위치한 범어사의 의병 활동과 3.1운동의 역사도 그 맥락이 연결된다. 이상과 같은 온천천의 역사성을 보존하려면 하천 양쪽 기슭의 고층 공동주택 등 경관을 차단하고 인공화 현상을 부추기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향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어떤 일이든 명암이 없을 수 없다. 애초부터 생태하천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¹⁰⁾ 그 동안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답과 대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 세대에 온전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 1) 「도심 하수구 '부산의 자랑'으로 거듭나다」, 『옥천신문』, 2010.11.26.
- 2)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3) 안선규, 「온천천을 따라 걷다」, 『하천과 문화』 2-2, 한국하천협회, 2006. ; 구영기, 「온천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과 문화』 2-2, 한국하천협회, 2006.
- 4) 구영기, 앞의 글. 2202년 6월 당시 75세인 서영화 옹의 회고를 소개하였는데, 1927년생으로 추정된다. 이하 온천천에 대한 회고는 모두 이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 5) 안선규, 앞의 글.
- 6) 「온천천이 썩고 있다, 10여 공장서 폐수 흘러보내 오물 쌓여 악취 등천」, 『부산일보』, 1977.12.12.(6).
- 7) 「공장 폐수 흐르는 하천에 철새 장관」, 『부산일보』, 1977.11.10.(6)
- 8) 「온천천, 이제 자연이 흐른다」, 『부산일보』, 2008.03.14.(2).
- 9)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난 온천천」, 『국제신문』, 2010.08.19.(18).
- 10) 「생태하천 20년, 방향 잃은 물길(1-6) 생태 없는 생태복원」, 『부산일보』, 2015.06.21.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 김창수, 「관료와 시민사회 협력의 성공조건 : 부산광역시 온천천 복원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1,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 구영기, 「온천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과 문화』 2-2, 한국하천협회, 2006.
- 안선규, 「온천천을 따라 걷다」, 『하천과 문화』 2-2, 한국하천협회, 2006.
- 김기혁, 『부산고지도』, 부산광역시, 2008.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6, 부산광역시, 2011.

-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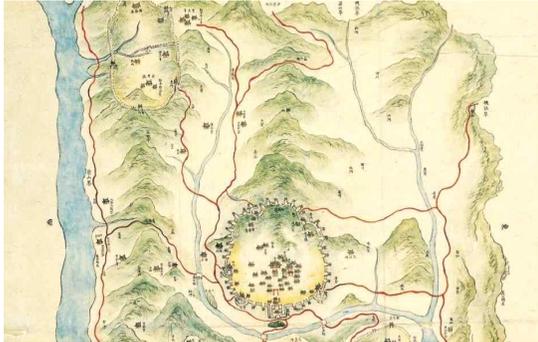
- 「공장 폐수 흐르는 하천에 철새 장관」, 『부산일보』, 1977.11.10.(6)
- 「온천천이 썩고 있다, 10여 공장서 폐수 흘러보내 오물 쌓여 악취 등천」, 『부산일보』, 1977.12.12.(6).
- 「온천천, 이제 자연이 흐른다」, 『부산일보』, 2008.03.14.(2).
-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아난 온천천」, 『국제신문』, 2010.08.19.(18).
- 「도심 하수구 '부산의 자랑'으로 거듭나다」, 『옥천신문』, 2010.11.26.
- 「생태하천 20년, 방향 잃은 물길(1-6) 생태 없는 생태복원」, 『부산일보』, 2015.06.21.
- 「대책 발표 1년도 안 됐는데 온천천 물고기 500여 마리 떼죽음」, 『부산일보』, 2020.05.06.
- 「온천천 또 물고기 떼죽음... '경보 시스템' 먹통」, 『부산일보』, 2021.07.15.

- 인터넷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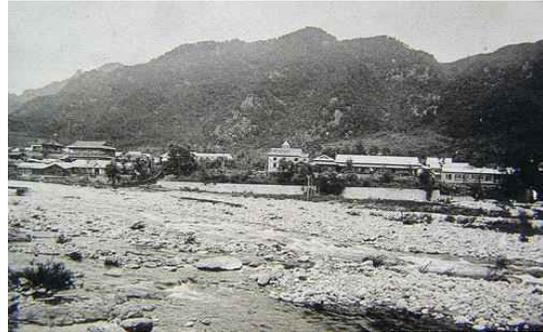
-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부산광역시청(<https://www.busan.go.kr/>)

■ 사진자료

▶ 사진기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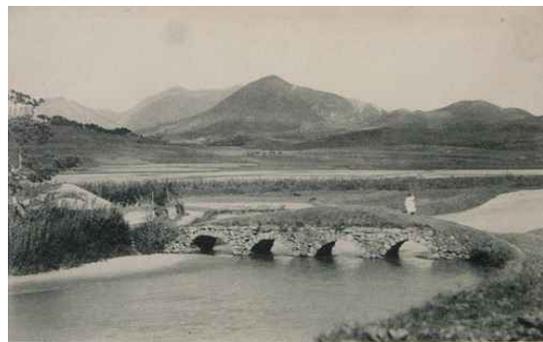
동래부지도(1872)의 온천천 부분
©부산고지도



온천장 앞을 흐르는 온천천(1920년대)
©동래구



세병교(1910년대)
©동래구



이집교(1910년대)
©동래구



온천천 상류 제방설치 등 정비(취로사업)
©동래구



비닐재생공장 원료 넘마가 어지러이 널린 온천천
© 『부산일보』, 1977.12.12.(6)



온천천 열린 음악회(2022)
©국제신문



온천천 시민공원 물놀이장
©시빅뉴스

▶ 현장기록자료



수영강 합류 지점



체육시설



징검다리



역새플



조선통신사 행렬도



거리 벽화(부산대역 앞)

충혼탑



©VISIT BUSAN

■ 주요개요

대상	충혼탑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63-6
선정연도	2021년	형태	탑
건립시기	1983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6월 용두산공원에 충혼탑 건립 - 1983년 8월 15일 부산시가 발인하고 충혼탑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앙공원에 충혼탑 준공 - 1983년 9월 7일 경남 출신 영령들은 창원으로, 부산 출신 영령들은 중앙공원으로 이전 - 1984년 6월 6일 충혼탑 정면부에 군상 조각 추가 - 2004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수탁 관리 시작 - 2007년 2월 15일 4.19 위령탑 이설, 위패 봉안소 건립 등 시설 확충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인 김종업의 부산 소재 작품들(4점 현존) 중 한 곳으로, 수직으로 솟은 형태는 맞은편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의 수평적 조형미와 대조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전몰 용사, 즉 부산 출신의 육·해·공군 및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성격을 가진 유일한 조형물 - 단순히 부산지역의 호국 관련 조형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짐 - 맞은편 자리한 민주공원과 함께 향후 평화·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 부산의 정신적 유산으로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음 		

■ 설명문

【개요】

충혼탑은 전쟁에 전사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조형물로, 대체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보다는 관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부산에서 충혼탑 건립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으로, 현재 이 시기 만들어진 충혼탑의 위치와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최초로 확인되는 부산지역 충혼탑은 1957년 용두산공원에 건립된 것이다.

이후 약 25년간 지역사회에서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호국의 가치를 전해 온 충혼탑은 1983년 현 중앙공원에 새롭게 준공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완공된 탑은 중앙공원 정상 161m에 높이 70m(돌탑부, 39m, 철탑부 31m) 규모로, 8개의 연못 형태 좌대와 9개의 기둥 아래 9,338명의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반원형의 영현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충혼탑은 오랫동안 부산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시설물이자 ‘호국’, ‘애국’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인식되어 왔다. 충혼탑이 지향하는 가치와 외관이 다소 권위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인근 민주공원과 더불어 지역민들이 목숨을 다해 수호하고자 했던 ‘자유, 민주, 평화’의 주요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이자 정신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호국과 민주의 공간에 자리한 부산의 상징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산63-6에 위치한 중앙공원에 가면 우뚝 솟은 충혼탑을 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산 아래 부산 시내의 어지간한 공간들에서 충혼탑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충혼탑을 보려면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봐야 한다. 마치 호국 영령께 경외심을 표해야 할 것만 같다. 중앙공원에 도착하면 다시 한 번 정문에서 충혼탑을 올려다보게 된다. 그 시선의 끝에 위치한 충혼탑은 하늘과 맞닿아 있다. 호국영령들이 하늘과 충혼탑 사이에서 우리를, 부산을 굽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충혼탑 아래 중앙공원은 중구·동구·서구·부산진구를 잇는 도심공원으로 원래는 대청공원과 대신공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6·25전쟁 때 판자촌을 이루고 있던 대청산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1) 중앙공원에 조성된 광장 주변을 따라 한 바퀴 걸으면 중구·동구·서구·부산진구·남구·영도구까지 부산시내를 고루 내려다 볼 수 있다. 과거 피란민들이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왔을 때 처음 맞았던 지역,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먹고 사는 생활터전이었던 지역,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역과 부산항을 통해 부산으로 드나드는 지역,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이곳을 충혼탑은 굽이 내려다보며 지켜 온 것이다. 건축가 김중업이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항도의 상징이며 항시 험준했던 남쪽 바다를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던 말은 충혼탑이 부산지역 사람들의 삶 한 가운데에 자리 잡아 이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충혼탑은 부산지역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6월이 되면 호국영령의 달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충혼탑을 방문하여 호국영령을 참배한다. 이외에도 신년참배, 국군의 날 참배, 경찰의 날 참배, 정기 참배 등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는 중요 기념일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시민들의 참배도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시간을 나누어 받고 있다. 이렇듯 충혼탑은 ‘호국’과 ‘애국’이라는 가치에 충실하게 부산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교육하는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충혼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공

원이 1999년 개관하였으니 이미 20여년 이상 두 공간이 함께 해온 것이다. 호국의 공간으로써 충혼탑이 조금 더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왔으니 어떻게 보면 충혼탑이 민주공원보다는 연장자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충혼탑은 민주공원보다는 더 일찍부터 부산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이 고장을 지켜온 상징적인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충혼탑 건립의 의미는 조성 배경을 통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전쟁과 충혼탑

부산지역 최초의 충혼탑은 1957년 6월 용두산공원에 건립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공원의 충혼탑보다 더 이전에 그 원형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 전국적인 충혼탑 건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최초의 충혼탑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부산은 전쟁 당시 피란수도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니 전투 상황을 직접 겪지 않은 부산시민들과 피란민들에게 충혼탑 건립은 전몰 용사의 넋을 추모하고 전쟁을 상징적으로나마 느끼게 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1952년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충혼탑 건립안 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건」이라는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충혼탑 건립을 위한 도안 공모가 시행되었다.²⁾ 1952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충혼탑 도안 수상자에 교통부 건축과원 이화노가 당선되었으며,³⁾ 당선자들에 대한 수상 및 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에서는 충혼탑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과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들이 거행되었으며, 충혼탑건립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모금운동이 이루어졌다. 부산 각 지역에서 시민들로부터 모은 할당액은 1억여 원으로 상당한 금액에 달했으며,⁴⁾ 군(軍)에서도 충혼탑 건립 기금을 모금하는 등⁵⁾ 지자체 주도 아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건립이 추진되었다.

당시 충혼탑 건립을 독려하는 신문기사에 따르면 충혼탑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중공 오랑캐를 무찌르다가 가신님 모시’고, ‘삼천만의 마음도 합쳐 서로서로 만나는 공간’이자 ‘가신님도 즐겨 머물고, 유가족도 발걸음을 멈추는 공간’이었다.⁶⁾ 즉 최초로 건립된 충혼탑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림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삼천만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다만, 이 시기 건립되었다는 충혼탑의 형태, 위치 등은 현재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실물로 확인되는 충혼탑은 1957년 용두산공원에 세워진 것으로,⁷⁾ 당시 충혼탑과 충혼비 두 개의 조형물이 건립되었다. 이는 군인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간 마찰 때문으로, 충혼탑 건립 과정에서 호국영령의 범위를 두고 유가족 간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충혼탑은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각종 호국 행사의 추도식 장소로 활용되었으나, 여전히 마찰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⁸⁾

추도식 등을 둘러싼 갈등은 군사정권 이후 차츰 사라지게 되고, 1969년에 이르면 충혼탑과 함께 제막된 호국영령위패봉안소에 부산시 출신 2,805주, 경상남도 출신 19,952주, 도합 22,757주가 안치되었다.⁹⁾ 이로서 충혼탑은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호국영령 추도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3. 충혼탑, 새롭게 조성되다

1980년대 들어 용두산공원 충혼탑의 규모가 작고,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이 추진되어, 1983년 8월 15일 부산시가 발인하고 충혼탑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앙공원에 새로운 충혼탑이 준공되었다. 같은 해 9월 7일에는 부산, 경남 출신 영령들을 각각 중앙공원과 창원으로 이전하였다.

충혼탑 설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중업이 맡았다. 그는 중앙공원 정상 161m 고지에 높이 70m의 충혼탑을 세우고, 탑 앞에는 직경 50m 연못을 만들어 탑 모양이 수면에 투영될 때 140m로 보이도록 구상했다.¹⁰⁾ 중앙공원에서 바라만 보아도 경사로까지 합하면 높이가 200m는 족히 넘는 큰 조형물로서, 1980년대 부산 시내에 현재와 같이 큰 건물이 많지 않았음을 상상해 보면 당시 충혼탑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크게 느껴졌을지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김중업이 설계를 맡은 것은 부산과의 각별한 인연 때문이었다. 부산대학교 구 본관, 유엔묘지 정문, 채플 등을 설계하며 부산을 자주 오갔던 그가 정치적 이념 문제로 1970년대 강제 출국 당했다 돌아온 직후 맡은 작업이었다. 김중업은 충혼탑 제작의 의미를 「월간 건축문화」(1983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몸 바쳐 나라와 겨레를 위한 단심을 길이 후손에게 새긴다는 작업은 두 손 모아 정성껏 하늘에 바치는 기도하는 자세에서만 비롯될 수 있을 것이다. 아릿한 혼백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뜨거운 뜻을 형상화 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향도 부산의 대청공원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짜릿한 감동으로 서 장한 이들의 귀히 흘린 핏줄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함은 건축가로서 그지없이 보람 있고 감격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아홉 개의 원륜들을 아홉 개의 벽체들이 높이 받쳐 올린다는 영감은 이 일을 위임 받은 순간 떠올랐다. 원륜이란 혼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곳. 아홉 개의 벽체들은 황룡사 9층탑을 세웠을 당시의 천지 우주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전 우주를 돌고도 남기에 나라와 겨레를 위한 혼백들이 온갖 방향에서 굳건히 지켜주고 있다는 상징인 것이다. 186m고지 위에 9엽의 못에 140m 길이로 투영된 70m 높이의 탑은 향도의 상징이며 항시 험준했던 남쪽 바다를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색 빛이 황홀히 빛날 이 탑이 충혼들의 뜨거운 진혼가를 읊어 빛을 더 해주리라 믿고 둥근 석굴 속에 깊이 잠드소서.¹¹⁾

즉 그는 ‘혼백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는 뜨거운 뜻’을 충혼탑에 담고자 했다. 혼들이 쉬어가는 공간인 9개의 원륜을 9개의 벽체가 받치는 형상은 탑(상륜부와 탑신부)과 유사하며, 이는 황룡사 9층 목탑의 천지 우주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9개의 벽체는 동양에서 사후 세계인 九天을 의미하며, 상륜부를 통해 하나로 모여 하늘을 향해 상승한다. 고대 신라인들이 거대한 9층의 목탑을 세우며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처럼 호국 원령의 안식과 수호의 의미를 충혼탑에 담은 것이다.

1984년 6월 6일에는 충혼탑 정면부에 전몰 용사들의 보은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 조각가 최기원이 제작한 군상 조각이 설치되었다. 군상은 각각 육·해·공군, 경찰관 및 전몰 용사를 대표하며, 포탄과 총을 들고 전진의 자세를 취하는 군인의 모습은 하늘을 향해 솟아 오른 충혼탑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을 지키려 했던 선열들의 용기와 결기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우측에 설치된 충혼탑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졌다.

파수병처럼 멀리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 탑신을 쳐다보면서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불의

와 무도를 꾸짖듯 우람히 산턱을 딛고 서 있는 이 거인상 밑에서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한 번인들 오늘 햇빛같이 밝은 자유 속에서 배개를 돌우고 잘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눈부신 국제무대에서 선진 조국의 위용을 빛내고 있는 실력이 어디서 왔던 것임을 돌이켜 본 적이 있었던가. 아! 아! 회상만 하여도 몸서리 쳐지는 저 1950년의 6.25 동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공산도배들이 남한 땅을 한입에 다 삼킬 뻔 했던 일보 직전에서 만일에 우리의 충용한 장병들이 낙동강을 막아 반격으로써 승리를 거두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안정 속에서 삶을 누려 갈 수가 있었겠는가. (충혼탑 비문 중)

현재 충혼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순직한 부산 출신의 전몰용사(육·해·공군 및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유일한 조형물이자 상징 공간으로서, 총 9,380위(육군 7,566위, 해군 368위, 공군 64위, 경찰 581위, 재일학도의용군 135위, 근로자동원, 애국단체 등 기타 666위)의 영령의 위패가 모여져 있다. 이들 위패를 품은 충혼탑은 오늘도 중앙공원 높은 언덕 위에서 파수병처럼 멀리 바다를 보며 서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햇빛같이 밝은 자유 속에서 배개를 돌우고 잘 수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4. 호국을 넘어서 민주와 평화의 상징으로

1952년 충혼탑 건립 추진에서 출발하여 1957년 용두산공원 충혼탑 건립, 1983년 중앙공원으로의 충혼탑 이전, 그리고 현재까지, 충혼탑은 비록 그 배치공간과 형태는 일정 부분 상이하더라도 오랜 시간 부산 시민들의 곁을 지켜 왔다. 전쟁 당시 정부는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함과 동시에 ‘삼천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쟁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후인 1957년 용두산공원의 충혼탑 건립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참전군인 유가족과 순직경찰 유가족 간의 갈등은 반드시 충혼탑 건립이 의도한 것처럼 ‘삼천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1983년 건립된 충혼탑은 건축가 김중업이 언급하였듯이 “몸 바쳐 나라와 겨레를 위한 단심을 길이 후손에게 새긴다는 작업은 두 손 모아 정성껏 하늘에 바치는 기도하는 자세에서만 빛어”지는 조형물이었다. 이는 1952년 ‘삼천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던 그 건립 목적과 맞닿아 있다. 9개의 벽체가 하나의 원륜으로 모여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은 그러한 염원의 상징이 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재 부산 충혼탑의 모습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주요 격전지에 조성되었던 충혼탑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오벨리스크 형태는 일제가 전쟁 위령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위령비를 연상시키며, 한편으로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를 쇠신하듯 건너편 민주공원에는 수평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민주항쟁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충혼탑의 수직과 대조를 이루며, 두 건조물은 부산의 새로운 경관과 의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성된 이후 25년간 부산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를 표상하는 두 공간이 함께 연계한 흔적은 찾기 힘들다. 충혼탑과 민주공원이 함께 ‘평화와 자유, 민주’를 중심으로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알려 나간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부산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민주공원과 중앙공원 사이에는 광복기념관이 있다. 이들 기관들이 협력하여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부산지역의 독립운동부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을 한 장소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 구축될 수 있다. 부산의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최원준, 「불의에 저항한 부산정신...부산시민 숭고한 민주정신 상징공원」, 『다이내믹부산 제부산이야기』 112권, 2016.2.
- 2) 단기 4285년 1월 27일, 「충혼탑 건립안 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건」. 수제건. 6.25사변 이래 조국의 위기와 동포의 비애를 구하기 위하여 전선에서 산화한 수많은 대한청년의 공훈을 XX하며, 그 거룩한 정신을 후세에 유전하기 위하여 전국 각 요지에 충혼탑을 건립함과 동시에, 인류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만리 이역에 산화한 UN전사의 무공을 XX하며, 민주우방 제국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수도 서울에 UN전우탑을 건립하기 위하여 단기 1951년 12월 27일 국무회의실에서 이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어 충혼탑건립중앙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수차에 의한 회합을 거듭하여 단기 4285년 1월 26일 중앙위원전체회의에서 충혼탑건립에 관한 기본방침과 건립위원회조직요강이 별지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심을 양청하나이다.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국무회의의장 귀하
- 3) 「충혼탑 도안 당선 교통부의 건축과원」, 『조선일보』, 1952.04.19. 충혼탑건립위원회에서는 그간 충혼탑 및 유엔전우탑의 시공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도안을 현상 모집 중이든 바 80여건 응모자 중 다음과 같이 당선되었다 한다. 충혼탑. 유엔전우탑 상금 삼천만원.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 이화노. 공대졸 25세.
- 4) 「충혼탑 건립에 부산시민할당액」, 『경향신문』, 1952.05.22. “금반 동안에 조국수호의 초석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고귀한 정신을 후세에 기리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 각도에 충혼탑 1기씩을 건립코자 충혼탑건립중앙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었거니와 부산시위원회에서 각 출장소 관내에 할당한 건립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부 15,070,000원, 서부 25,988,000원, 초량 19,414,000원, 영도 15,002,000원, 부산진 21,963,000원, 동래 9,324,000원, 계 107,161,000원. 한편 매 세대 기금모집은 5백원 식이며 부족액은 특수대상자에 대하여 모집키로 되었다고 한다.”
- 5) 「탑건립기금 전군에서 각출」, 『조선일보』, 1952.11.01. 국방부 산하 각 군의 전 장병 및 문관은 1개월 봉급에서 5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혼탑건립기금으로 거출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10월분 봉급 중에서 동 기금을 거출하여 일반국민에게 솔선수범하였다고 한다.
- 6) 「겨레여! 피의 상징 충혼탑을 세우자!」, 『경향신문』 1952.11.17. 나라와 겨레 위하여 중공 오랑캐를 무찌르다가 가신님 모시고자 각 도마다 충혼탑을 세우려는 소리소리 드높아간다. 초겨울 부산겨레에 나붙은 프랑카드에 오고가는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 겨레여! 눈비보라 치는 전선을 생각커던 한푼이라도 더 모아 이 탑 이룩하자. 그 속에 못 영령 모시고 삼천만의 마음도 합쳐 서로서로 만나리니. 가신님도 즐겨 머물고 찾아갈 유가족도 발걸음을 멈출진대 어서 세우자 충혼탑을.
- 7) 「충혼탑-비 따로 건립 반년만에 除幕式」, 『동아일보』 1957.11.19. [부산] 당지 우남공원 일우에 건립된 현충장병들의 영령을 봉안하기로 마련된 충혼탑의 제막은 준공된지 근 반년이 가까워서야 겨우 식을 올리게 이르렀다. 도 당국에서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당일 제막식을 병행할 식순까지 짜놓았으나 순직 경찰관의 영령도 충혼탑에 봉안해 달라는 경찰유족대표들의 주장에 부딪쳐 제막식은 무기연기되었던 것이며, 군인 유족측은 현직 경찰관들의 성금으로 도청 경내에 건립된 충혼비를 들어 전몰군인과의 합사를 반대한 상반되는 주장으로 충혼탑은 주위의 철조망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건립당국인 도와 병사구사령부의 알선으로 요즘에 와서 군, 경 유가족 대표들의 합의로 제막식 경비 1만원이 방금 심의중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아마도 금년 말경에는 제막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 8) 「그죽음 받들어 겨레는 서오리다」, 『조선일보』, 1960.6.6. (상략) 부산 6일 상오 10시 부산 용두산 충무공 동상 앞 광장에서 거행된 영남출신 제5회 현충일 기념식은 이날 주최자 측이 제단에 마련한 제물은 사과한 조각도 없다는 유족측의 불만이 폭발하여 제단에 준비된 꽃다발과 제단이 뒤집혀지는 등 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 식전에 참석한 소복단장의 1천여 명의 군경유가족들은 제단위에 있던 유족회장 정수노파의 옷을 찢어 내복만으로 된 정노파를 끌고 중앙 동편으로 중앙 동편으로 데모를 시작하였다. 정 노파는 중앙동에 있는 유족회 사무실로 뛰어들어 피했고 나머지 약 400여명의 부녀자 만의 유족들은 '6.25에 흘린 대한의 생명이다, 나라위해 바친 유족 나라에서 보호하라, 유가족을 면시하는 군경원호회 관계자 전원을 파면하라, 제반 원호금을 전폐하고 유족원호법을 만들라 등의 결의문과 구호를 외치며 낮 12시 반 현재 경남 도청 앞에 집

결하고 있다. 당시 계엄군당국에서는 약 1백여명의 헌병을 동원시켜 유족 데모를 해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 9) 「충훈탑 앞서 추념식 위패 봉안소 제막도」, 『매일경제』 1969.6.6. 부산시는 16일 제14회 현충일을 맞아 상오 10시부터 용두산공원 충훈탑 앞에서 김시장을 비롯한 군경유족 및 일반시민 약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과 호국영령 위패봉안소 제막식을 가졌다. 김시장은 조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산화한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영령의 고마움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겨두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제막된 호국영령위패봉안소에는 부산시 출신 2천8백5주와 경상남도 출신 영현 1만 9천 9백 52주 등 도합 2만 2천 7백 57주가 안치되었다.
- 10) 「忠魂塔 설계에 몰두」, 『조선일보』, 1981.12.19.
- 11) 「월간 건축문화」 1983년 12월 31호, 101쪽.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월간 건축문화」, 1983.12.31.

최원준, 「불의에 저항한 부산정신...부산시민 숭고한 민주정신 상징공원」, 『다이내믹부산 제부산이야기』 112권, 2016.2.

-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 국가기록원 자료

『충훈탑건립안국무회의상정에관한건(제11회)』, 1952.2.8.

『충훈탑설계서시상식참석관계자』, 1952.7.25.

『충훈탑설계서시상식참석관계자기념촬영』, 1952.7.25.

『충훈탑설계서시상식참석관계자표창장수여1』, 1952.7.25.

『전두환대통령부산충훈탑에헌화전송사진』, 1983.9.9.

■ 사진자료

▶ 사진기록자료



충훈탑 건립안 국무회의 상정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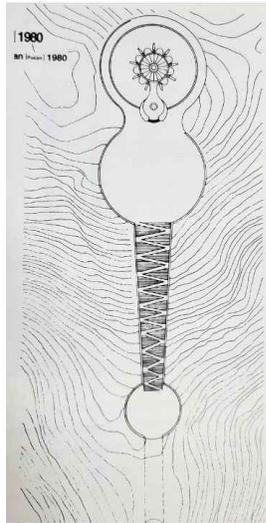
충훈탑 설계서 시상식 참석 관계자 기념 촬영
©국가기록원



「겨레여! 피의 象徴 忠魂塔을 세우자!」
『경향신문』, 1952.11.17.



「忠魂塔·碑 따로 建立 半年만에 除幕式」
『동아일보』, 1957.11.19.



부산충혼탑 배치도
(김중업 건축론, 시적 올림의 세계, 2003)



조성 당시 모습
©건축공간 연구원(auric)

▶ 현장기록자료



민주공원 앞에서 바라본 충혼탑



충혼탑 정문에서 바라본 전경



군상



충혼탑 비문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롯데디자인즈 공식 홈페이지

■ 주요개요

대상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
선정연도	2021년	형태	야구장(생활문화)
건립시기	1985년 10월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10월 구덕운동장의 노후화로 국제 규모의 현대식 야구장 건립 - 1986년 사직야구장 최초 홈경기 개막전 실시 - 1992년 한국시리즈 우승, 1995·1999년 한국시리즈 준우승 등 과정에서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 탄생 - 2005년 쓰레기 문제로 배포된 비닐 봉투를 활용한 '봉다리' 응원문화 형성 - 2017년 부산의 상징 동백꽃과 연고기업을 위해 진주홍색 '봉다리' 응원 공식화 		
보존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연고팀 롯데디자인즈의 장기적인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단순한 응원문화를 넘어 부산과 부산사람들의 이미지로 확장 -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사직구장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품은 부산사람이라는 시민적 공감대의 근원이자 기질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의를 가짐 - 사직야구장 응원문화의 창의적인 형식과 내용에 내재된 문화적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 		

■ 설명문

【개요】

사직야구장은 1985년 10월 완공되어 1986년부터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직야구장의 응원문화는 1990년대 롯데가 우승, 준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좋은 성적을 보일 때 완전하게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를 낳은 부산 시민들의 야구 사랑은 오랜 연원이 있다. 먼저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라이벌 매치로 대변되는 고교야구에 대한 깊은 관심이 1982년 프로야구 창단과 롯데 자이언츠의 부산 연고지 확정과 함께 야구 열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부산 출신의 걸출한 스타 故 최동원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야구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제리 로이스터 전 감독의 'No Fear'(두려워 하지 마라) 정신도 '롯데 야구'라는 정체성 형성에 한몫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야구에 대한 애정과 정신을 바탕으로 꽃피운 것이 바로 사직야구장 응원문화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를 관중들이 모두 어깨동무하고 열창하거나 '봉다리'(봉지)를 뒤집어쓰고 응원하는 모습은 사직야구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마!', '아 주라' 등 사투리 응원에 배어있는 정서적 유대감도 큰 힘을 발휘한다.

이상과 같이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직야구장이 건립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야구는 부산 사람들과 함께 했었고, 故 최동원과 제리 로이스터의 정신, 그리고 부산사람들 특유의 야구 사랑과 기질이 어우러져 탄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단순히 응원이라는 행위를 넘어 부산의 기질과 정체성을 대변하며,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 에너지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이라 할 수 있다.

1. 야구만큼은 우리가 최고, '구도부산(球道釜山)'

부산과 야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구도부산(球道釜山)'이다. 야구에 있어서만큼은 '수도'로 상징되는 도시가 바로 부산인 것이다. 부산을 '야구의 수도'로 만들어 준 것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부산야구 팬들이다. 부산야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야구의 수도, 즉 '구도(球道)'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다. 부산사람들이 보여주는 화끈한 응원은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이들까지도 속이 뽕 뚫리게 한다. 그래서 그들의 응원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한 번 쬐은 야구장에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한번 가게 되면 그 매력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직야구장 응원문화이다. 아래 기사는 사직야구장 응원문화의 매력을 잘 보여준다.

혹시 야구팬이세요? 아님, 부산 시민이세요? 야구팬이 아니라도, 부산 시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저와 함께 사직 야구장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사직 구장을 다녀와 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감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3~4시간 동안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질 겁니다. 거긴요, 단순히 야구장이 아니라, 흥에 젖은 사람이 있고, 정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음식이 있고, 춤사위가 있는 한판 축제의 마당이에요.¹⁾

위 기사를 보면 부산야구 팬들에게 사직야구장에서의 응원은 그냥 응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제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직야구장에서 벌어지는 3시간짜리 러닝 타임(Running Time)의 응원전은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 축제인 것이다.

다만, 부산야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때때로 선수와 구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양날의 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지더라도 끈질기고 화끈하게 뭔가를 보여주면 팬들은

박수 세례를 보낸다. 그러나 만약 맥없이 지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질타가 곧바로 시작된다. 팬들은 선수들에게 서슴없이 ‘느그가 프로가’(너희가 프로선수 맞냐?)라고 외친다. 이러한 언행이 과도해지면 2018년 3월 31일 이대호 선수를 향해 일어났던 치킨 투척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산야구 팬들은 매년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야구만 잘해도 사랑받으니까 야구 열심히 하라’고. 다른 건 제쳐두고 야구만 잘하면 사랑받는다니. 이 얼마나 프로야구선수의 본위에 충실한 말인가. 아마도 부산야구 팬들은 ‘우리가 응원 하나는 전국 1등이니까 야구만 잘하면 누구든지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속뜻을 에둘러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산야구 팬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등장한 것일까. 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부산의 미래유산으로써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2. 부산야구의 자존심, 고교야구

프로야구가 있기 전에는 아마추어 야구가 한국 야구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부산지역은 고교야구 팀이 많았고, 경쟁도 치열했다. 과거의 신문기사를 보면, 경남고등학교, 경남상업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등 야구 명문 고교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학교는 지역 내의 리그전을 벌이기도 했고, 전국단위의 대회인 봉황대기,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에 나가서 승부를 겨루었다.

특히 부산지역 내에서는 경남고와 부산고 간 라이벌 관계가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이들 학교의 자존심 대결은 롯데자이언츠 선수인 이대호가 과거 TV에 출연하여 했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다른 팀에게 지면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부산고에 지면 컨디션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잘못입니다.)

졌다하면 핑계고 뭐고 필요 없는 그냥 잘못된 것이 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라이벌 매치인 것이다. 이들 학교는 라이벌답게 전국대회에서 경남고 18회(청룡기 9회, 황금사자기 7회, 봉황대기 2회), 부산고 13회(대통령배 6회, 청룡기 3회, 봉황대기 4회)씩 우승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부산야구의 자존심인 이유는 다수의 걸출한 야구선수 배출에도 그 이유가 있다. 부산지역의 아마추어 선수들은 고교 졸업 후 지역 연고 프로팀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은 프로야구계에 진출하여 걸출한 족적을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활약은 부산야구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거리였다. 현재 잘 알려진 인물만 해도 허구연, 김용희, 최동원, 송승준, 이대호(이상 경남고), 양상문, 염종석, 손민한, 정근우, 추신수, 손아섭(이상 부산고)이 있을 만큼 두 학교의 실력과 자존심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들의 실력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부산 지역의 연고팀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본격 발휘되었다. 사직야구장은 그보다 4년 후인 1986년부터 홈구장으로 사용되었기에, 지금의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이때부터 비로소 그 시작을 알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0여년 가까이 부산야구의 중심, 사직1번가로 불리며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렇듯 전통 있는 고교야구팀들의 활약, 그리고 1982년 프로야구 출범, 1986년 사직야구장 개장

은 부산야구 팬들이 더욱 야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직야구장 응원문화의 정신을 만든 인물이 있으니, 바로 故 최동원이다. 부산야구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로 모으는 정신을 만든 사람. 그는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기도 하다.

3. ‘구도부산’의 혼(魂), 故 최동원

부산야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故 최동원(1958~2011)이다. 그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남고 2학년 시절 전국 우수 고교 초청 대회에서 경북고와 선린상고를 상대로 각각 9이닝, 8이닝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⁵⁾을 거둔 일화나 그가 한국 최초로 어깨에 보협을 든 선수라는 일화⁶⁾는 너무도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테 안경을 끼고 무심한 듯 공을 던졌다. 체구는 작았지만 글러브 뒤에서 뿔어져 나오는 빠른공과 폭포수 같은 커브볼은 야구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미 그는 고교시절부터 전국구 스타였다.

그는 경남고 졸업 후 연세대에서 활약했으며, 1981년 실업 야구 롯데에 입단하였다. 이때 메이저리거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입단 제의와 계약까지 있었지만, 병역 문제 등의 갈등으로 진출이 무산되고 결국 1983년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였다. 입단 2년차인 1984년, 전설적인 해를 보냈다. 그가 거둔 성적은 27승 223탈삼진.⁷⁾ 특히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거둔 4승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7차전 말미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감독의 제의에 했다던 ‘네, 알았심더. 한번 해보입시더.’라는 말은 직접 들었던 후대에 전해 들었던 부산야구 팬들을 사로잡는 말로 남아 있다.

전설이던 그는 2011년 9월 14일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17년, 5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마디 ‘마 함 해보입시더!’를 캐치 프레이스로 삼았다.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으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났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故 최동원의 야구 정신은 부산야구의 ‘혼(魂)’으로 찬란하게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그의 삶과 부산야구 팬들에 대한 짝막한 글이 있다.

번호만 바라보는데도 그냥 마음 한구석이 저릴 때가 있다. 고인이 된 최동원 선수의 번호 11번.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서는 영구결번이다. 번호만 영구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다. 최동원이 쌓아 올린 그때 롯데자이언츠의 명성도 아직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번호가 더 부산 사람들에게는 아린다. 부산이 부산다웠던, 부산 사나이의 거칠고 거만하기까지 했던, 그 당당한 모습을 언제나 한번 다시 보려나 하는 마음에 오늘도 사직야구장을 찾는 부산 갈매기들.⁸⁾

롯데 자이언츠는 1992년 이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故 최동원이 남긴 정신은 남아있지만, 그리고 부산야구 팬들의 끊임없이 응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명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직야구장 중앙 전광판 아래 있는 영구결번 ‘11’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⁹⁾ 부산야구 팬들은 언젠가 그의 투혼이 되살아나 다시 사직야구장에 찾아 오기를, 그리고 그 정신과 혼연일체가 되어 응원하고,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4. 제리 로이스터와 ‘No Fear’(두려워 하지 마라)

故 최동원의 뜨거웠던 야구 정신은 2008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부활하였다. 그 이전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성적이 만년 하위권이어서 ‘비밀번호 8888577’(롯데 자이언츠의 2001~2007년 성적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였기에 故 최동원의 야구 정신도 팬들의 뜨거운 함성도 나타날 수가 없었다. 아래 글은 당시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8888577’ 무슨 저주처럼 롯데 성적이 7년 동안 ‘지구의 맨틀도 뚫을 기세’로 바닥을 치던 그 어느 해였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울에서 내려온 한 기자가 들뜬 마음에 “왜 야구장에 오느냐?”는 질문을 하자, 한 야구팬이 그랬단다. “마 언젠가는 안 이기겠는교.” 이 무심한 듯 냉랭한 대답은 얼마 뒤 행동으로 이어졌다. 2002년 10월 16일 사직에서 벌어진 롯데와 현대 유니콘스와의 홈경기를 찾은 관중은 겨우 96명이었고 이어진 19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는 달랑 69명이 입장했다. 썰렁하다 못해 적막한 경기장 분위기에 경기는 뒷전이고 선수들 보라는 듯이 야구장 안을 자전거로 빙빙 도는 팬들까지 등장했다. 롯데가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자 1루 쪽 응원석에 나부낀 “우리가 야구하게 너거가 응원해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서 최근 ‘무관중 운동’까지 부산 팬들은 선수들이 대충하는 꼴을 보지 못한다.¹⁰⁾

살얼음판 같던 부산야구의 침체는 2008년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부임과 함께 180도 반전되었다. 이 시기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획득으로 인해 야구 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산야구 팬들에게는 김주찬, 조성환, 이대호, 가르시아, 강민호 등으로 이어지는 스타 플레이어의 대거 등장, 제리 로이스터 감독을 필두로 한 롯데 자이언츠의 호성적이 야구에 대한 엄청난 관심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적극적인 야구를 할 것이라고 호언했고, 이는 곧 2008년 정규시즌 3위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부산야구 팬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더라도 화끈하게 지는 로이스터식 야구였을 것이다. 그의 야구철학이 집약된 한 마디 “No Fear(두려워하지 마라).”는 부산야구 팬들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로써 부산야구는 다시금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롯데가 살아야 한국 프로야구가 산다.’라는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부산 시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롯데 자이언츠의 좋은 성적과 비례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2008년 당시 제리 로이스터 감독은 “롯데의 응원문화는 미국에서 가장 극성스런 보스턴 레드삭스의 응원보다도 한 단계 위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응원 열기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인 KBS ‘1박 2일’과 KBS 다큐멘터리 ‘3일’, KBS 스페셜 ‘2008 야구이야기 부산갈매기 날다’ 등을 통해 방영될 정도였으니, 당시 사직야구장의 응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직야구장 응원문화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¹¹⁾

아래 표는 2008~2019년까지 롯데자이언츠의 응원 관중 관련 통계표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시기의 야구 열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또 한 번 짐작할 수 있다.

<표 1> 2008~2019년 롯데자이언츠 응원 관중 관련 통계표¹²⁾

연도	경기수	총관중수	평균관중수	관중 동원 순위(A)	시즌 최종 순위(B)
2008	126	1,379,735	21,900	1	3
2009	133	1,380,018	20,597	1	4
2010	133	1,175,665	17,813	1	4
2011	133	1,358,322	20,273	1	3
2012	133	1,368,995	20,742	1	4
2013	128	770,731	12,042	4	5
2014	128	830,686	12,979	3	7
2015	144	800,962	11,124	4	8
2016	144	852,639	11,842	4	8
2017	144	1,038,492	14,423	3	3
2018	144	901,634	12,522	4	7
2019	144	679,208	9,433	7	10

롯데자이언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다. 이 기간 관중 동원 순위(A)는 1위였다. 2013년 이후 성적이 하락하면서 관중도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관중 동원 순위(A)는 늘 4위권 내에 들었다. 2017년, 롯데 자이언츠는 플레이오프에 오랜만에 진출하였다. 이해 관중동원 순위는 3위였지만, 다시금 100만 명 이상의 관중이 응원을 할 만큼 뜨거웠던 시즌을 보냈다. 즉, 롯데가 잘하든 못하든 부산 시민들은 끊임없이 성원해 주고, 잘하면 더 폭발적으로 성원해주는 것이다. ‘롯데가 살아나야 한국 프로야구가 산다’는 말은 과언이 아닌 것이다.

‘최동원의 혼(魂)’, ‘제리 로이스터의 No Fear’ 두 개의 정신은 사직야구장 응원문화의 큰 뿌리가 되어 ‘구도부산’을 지켜주고 있으며, 부산 시민들이 사직야구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이런 가운데 부산 특유의 응원문화가 꽃핀 것이다.

5. ‘봉다리’ 뒤집어 쓰고 외치는 ‘마!’, 그리고 ‘아 주라’

‘지상 최대의 노래방, 사직노래방.’ 사직야구장의 또 다른 별칭이다. 그라운드를 둘러싼 원형의 응원석에서 약 3만 명의 관중이 내지르는 응원과 노래는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무서운’ 사직노래방은 리더가 있다. 바로 조지훈 응원단장이다. 그는 서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통을 비롯한 사설 응원단장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정착에 많은 힘을 쏟은 사람이 조지훈 응원단장이라는 사실은 부산야구 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지훈 응원단장의 진두지휘 아래 부산야구 팬들은 열렬한 함성을 내지른다. 그룹 U-Kiss의 노래 <만만하니>에 맞춰 내지르는 ‘마!’는 상대 투수가 견제를 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압도적인 음량을 자랑한다. 각 선수에 맞춰서 제작된 응원가와 경기 후반부에 나오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 갈매기>는 몸에 전율이 돌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응원과 노래들에는 부산 사투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이 응원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곧바로 알아듣기 힘들다. 그래서 이 말

들을 바로 알아듣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에게는 무한한 응원으로 들리며, 팬들에게는 부산 정취를 한껏 느끼고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반면 상대팀 선수와 팬들에게는 지독한 고문과 공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다른 구단에서 뛰다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하는 투수들은 “마!”라는 응원에 대해 공통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상대편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기 마련인데 이제 이 응원이 내 편이라 다행이라고. 사직야구장 마운드에 서는 상대편 투수들에게 “마!”는 그야말로 공식적인 공갈이자 협박이고 공포 그 자체다.¹³⁾

이러한 응원 그리고 노래와 함께 사직노래방을 수놓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황색 ‘봉다리’(봉지의 부산 사투리)이다. 봉다리 응원은 2005년 시작되었다. 봉다리 응원은 본래 사직야구장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중들에게 주황색 봉다리를 나눠주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관중들의 독특한 응원문화로 이어진 것이다. 관중들은 봉다리를 풍선처럼 부풀려 쓰기도 하고, 종이접기를 하듯 접어서 머리띠나 리본처럼 착용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풍선처럼 부풀렸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2017년, 봉다리는 부산의 상징인 동백꽃에 맞추어 진주홍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및 배출의 급증으로 전국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감에 따라 봉다리 응원이 사라지게 되었다.¹⁴⁾ 봉다리 응원은 약 15년 정도의 역사만을 남긴 채 사라졌지만, 사직야구장의 응원 문화를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만들고 부산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직야구장에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프로야구 출범 선전 표어에 걸맞는 문화가 있다. 바로 ‘아 주라’ 문화이다. 그라운드에서 빗맞은 타구가 응원석으로 향하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공을 향해 뛰어 간다. ‘파울 타구에 주의 하십시오.’, ‘파울 타구를 손으로 잡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은 온 데 간 데 없다. 이 파울 타구를 아이가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른이 잡았다 하면 곧바로 사직야구장이 ‘아 주라! 아 주라!’ 하는 소리로 가득 찬다. 아이에게 공을 주자니 아깝고, 안 주려니 속 좁은 어른으로 비난받게 된다. 흔쾌히 공을 주든, 마지막해 공을 주든 공을 아이가 받는 순간 장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찬다. 아이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프로야구 출범 선전 표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부산이라는 공동체를 느끼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이자 경험이라 할 수 있다.

6. Dynamic Busan(다이내믹 부산)을 향해 ‘마 함 해보입시다!’

지금까지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를 형성한 정신들, 그리고 그 바탕에서 피어오른 응원문화를 확인해 보았다. 사직야구장을 감싸고 있는 ‘투혼’, ‘No Fear’는 거인군단의 정신이다. 특히 故 최동원의 정신은 현재에도 이어져 구단의 응원 표어가 되었고, 일각에서는 부산의 정신으로 평가받을 만큼 인정받고 있다.¹⁵⁾ 그런 점에서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행위를 넘어 부산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신적 가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팀의 장기적인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직구장의 응원문화는 찬란하다. 이

기기보다는 지기를 잘하는 팀이지만 야구 응원의 열기는 이어져 오고 있다. 롯데자이언츠의 최대 재산은 부산 관중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팀의 어떤 선수를 트레이드 하더라도 부산의 관객들은 트레이드할 수 없다.¹⁶⁾

위의 글처럼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트레이드 불가한’ 부산야구 팬들에 의해서 구현된다. 즉 부산의 야구는 부산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직야구장이 존재하는 한 응원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롯데자이언츠는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팀명과 연고지를 바꾸지 않은 팀이기에 지금의 응원문화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부산야구 팬들은 롯데자이언츠가 오랫동안 부진하더라도 엄청난 응원을 보낸다. 이는 단순한 야구단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자체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부산야구 팬들의 공간으로 그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사직야구장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응원 문화는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쪼잔한 야구는 과감하게 거부하겠다는, 부산 앞바다처럼 거칠고 짠 내 가득한 응원이다. 사직야구장은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용광로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야구로 치면 바로 돌직구, 쉽게 돌아가는 법이 없는 사람들, 부산 사람들에게 사직야구장은 자신들의 면모를 강하게 동질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해방구다.¹⁷⁾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용광로’이자 ‘동질감을 느끼는 해방구’인 사직야구장 응원문화. ‘마 함 해보입시더’로 대변되는 돌직구 같은 마음과 거칠 것 없는 ‘No Fear’를 기반으로 피어난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부산시민들의 정체성을 인식케 함과 동시에 부산의 다이내믹함을 표현하는 힘이다. 뿐만 아니라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타 지역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써 지역의 역동성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시 환경 정책으로 현재 봉다리 응원문화는 폐지되었지만,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계승할 수 있는 정신적 유산으로써 사직야구장 응원문화는 그 자체를 브랜딩하거나, 시민 생활스포츠의 산실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 1) 「아무튼, 사직 구장에 가보셨나요」, 『한겨레 21』, 2008.5.
 - 2) 『국제신문』, 이대호에게 날아든 치킨...롯데 7연패에 분노한 팬 '추정', 2018.3.31.
 - 3) 『부산일보』, '스포-스', 1956.5.11; 『부산일보』, '高校野球 리-그戰', 1957.5.12.
 - 4)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215회 이대호 편」, 2011.1.19. 방영에서 참조.
 - 5) 상대팀에게 안타&홈런을 내주지 않고, 실점 없이 승리를 거두는 것
 - 6) 『경향신문』, '경남고 최동원 군 한국 최초로 어깨 보험든 고교 투수', 1975.9.23.
 - 7) 특히 223탈삼진은 2021년 두산 베어스의 아리엘 미란다가 225탈삼진으로 기록을 경신할 때까지 무려 40여년 가까이 깨지지 않았다. KBO 역대기록실 참조.
(<https://www.koreabaseball.com/Record/History/Player/Pitcher.aspx>)
 - 8)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부산학교양총서: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곳의 기억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95쪽.
 - 9) 은퇴한 유명선수의 등번호를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관습.
 - 10) 향토문화전자대전, 「야구팬들은 사직구장에서 무엇을 즐기나」(2022.9.1. 검색)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 11) 이승준, 「부산 갈매기의 비상: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2010.2, 1~2쪽.
- 12)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관중동원 순위(<https://www.giantsclub.com/html/index.asp?pcode=297>) 참조
- 13)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부산학교양총서: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곳의 기억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96쪽.
- 14) KBS News, '사직구장 명물 '봉다리' 응원 사라진다', 2021.3.29.
- 15) 국제신문, 「마, 함 해보입시다! '우리 함께'의 힘으로」, 2021.12.30.
- 16)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부산학교양총서: 부산을 알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239쪽.
- 17)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부산학교양총서: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곳의 기억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96~97쪽.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 이승준, 「부산 갈매기의 비상: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분석」,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2010.2.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부산학교양총서: 부산을 알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5.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부산학교양총서: 부산인의 장소습관 그곳의 기억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18.

- 신문

『국제신문』, 『경향신문』, 『부산일보』, 『KBS News』

- 웹사이트

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https://www.giantsclub.com/html/>)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ko>)

■ 사진자료

▶ 사진기록자료



롯데디자인트윈 홈경기 개막 사진(구덕운동장, 1982)
©롯데디자인트윈



故 최동원 추모 행사(2020.9.11.)
©롯데디자인트윈



2017년 플레이오프 당시 캐치 프레이즈 '마, 함 해보입시다!'
©롯데디자인트윈



사직의 명물 봉다리 응원
©롯데디자인트윈

▶ 현장사진자료



사직야구장 전경



사직야구장 앞 '마!' 조형물



사직야구장 앞 '무쇠팔 최동원' 동상

기장미역



©부산광역시

■ 주요개요

대상	기장 미역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외 157필지
선정연도	2021년	건립용도	산업
건립시기	15세기 이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세종대(15세기) 이전부터 기장미역 진상 기록 현존 - 1960년대 자연산 미역 감소 - 1965년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 주도로 미역 양식 성공(학리 244번지) - 1967년 11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미역종자를 분양받아 산업화 성공(이동리, 학리) - 1972년 4월 국내 최초 일본 수출 - 1986년 농어촌 특산물 중 미역을 슈퍼마켓 전용 상품으로 개발 판매 - 2007년 4월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로 지정(대번리 74-7 외 157 필지, 16만 87755㎡) - 2009년 3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청에 '기장미역' 상표 등록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기 이전부터 진상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인정받은 역사성이 있음 - 전국 최초로 미역양식과 산업화에 성공함 - 현재 양식 미역을 통해 전국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미역으로 인정받고 있음 - 현재 돌미역은 해녀들의 나잠어업에 의해 자연 채취되고 있음 		

■ 설명문

【개요】

15세기 이전부터 진상품이었던 기장미역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부산의 특산물이다. 그 품질의 비결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 남부의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이며, 양식 전환 이후에도 자연산 돌미역의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기장미역에 관한 기록은 사서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특히 명종의 세자였던 용동궁의 수조지였다는 언급에서 오랜 역사성이 엿보인다. 또 1909년 제작된 기장군 일광읍 학리 인근의 미역바위 지도인 「곽암도」는 한말 곽암(미역 바위)에 대한 개인소유가 완전해진 시대상을 보여준다.

기장미역은 1960년대 이후 자연산 돌미역이 감소하면서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1965년 양식에 성공하면서 전국 최고의 미역 산지라는 옛 명성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특허청에 '기장미역'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2007년 미역·다시마 특구를 지정했고, 2010년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개최하는 등 고도의 상품화 전략을 통해 브랜드화에 성공함으로써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 되었다. 이처럼 기장미역은 500년을 이어온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서 현재도 향유되고 있으며,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성과 수산업 발전의 과정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장미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최근의 해양 오염으로부터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해줄 스토리텔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 전국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기장미역

미역국에 흰쌀밥을 말아서 숟가락 가득 퍼 올린다. 초록색 미역과 흰밥, 뽀얀 국물, 미역국 한 그릇은 생명을 탄생시킨 어머니를 돕는 음식이다. 콧등에 땀이 맺히도록 개운하게 비운 미역국 한 그릇은 세상으로 나갈 힘을 만들어 준다.

아이를 낳고 먹는 첫 국밥은 좋은 미역을 쓴다. 오랫동안 푸욱 고깃 끓여야 하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한 자연산 돌미역이 알맞다. 산모용 미역은 허리를 꺾지 않았다.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이므로, 조심스럽게 길게 말린 미역 한 축을 누린 종이에 말아서 사 왔다. 좋은 미역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서 산달에 맞춰 주문해 두어야 했다.¹⁾

미역은 생일날 먹는다. 자신의 생일에 미역을 먹는다. 무슨 의미일까. 산모가 아이를 낳고 먹는 첫 음식이 미역국이다. 아이를 낳느라 지친 몸과 늘어난 관절과 근육들은 음식을 씹거나 소화하기 어렵게 한다. 이때 미역국을 먹으면서 몸을 회복한다. 미역에 있는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피 생성과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 또한 자궁 수축을 돕고, 젖이 잘 나오도록 한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통해 태어난 이후 첫 음식으로 미역을 먹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기억으로 생일이면 미역국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닐까. 미역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인 미역국이 어머니를 떠올리고, 탄생의 축복을 떠올린다.²⁾

이처럼 한국인에게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탄생과 축복의 의미를 품고 있다. 산모는 몸의 회복을 위해 먹고, 생일을 맞은 이는 엄마의 젖을 통해 먹었던 첫 음식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역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익숙하며 상징적인 음식이다.

해조류를 대중적 식재료로 인식하지 않는 서양과 달리 동양에서는 채소로 인식해 일찍부터 미역을 식용해 왔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소비량이 많다. 역사적 연원도 깊은데, 8세기 당나라에서 발간된 『초학기(初學記)』에 고려 사람은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을 먹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³⁾ 이미 오래전부터 미역의 효능을 인식하고 산후음식으로 애용해 온 것이다. 조선조에서도 왕손을 출산한 왕후에게 보양식으로 미역국

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다수 전해온다.⁴⁾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왕실의 수라상에 진상하였던 미역 산지는 강원도와 함경도, 전라도(제주도) 등 여러 곳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경상도 지역이 많았다.⁵⁾ 그중에서도 울진, 고포, 통영, 울산 강동과 함께 부산 기장이 유명했다. 흔히 ‘울산미역’으로 통칭되었던 기장·동래·울산·경주 등 동해의 자연산 돌미역에 대해 정약용(丁若鏞)은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 “맛이 매우 좋아 값이 현저히 다르므로 1동 값을 돈 10냥으로 계산한다”고 기록하였다.⁶⁾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랑받아왔던 기장미역은 1960년대 이후 자연산 돌미역이 감소하면서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1965년 양식에 성공하면서 전국 최고의 미역 산지라는 옛 명성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식 전환 이후에도 자연산 돌미역의 쫄깃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장 미역만의 장점이다. 먼저 최근 브랜드화 성공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 된 기장미역, 그 시작의 여정을 기록을 통해 따라가 보자.

2. 역사 기록 속의 기장미역

기장미역의 품질의 비결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동해 남부의 청정해역에 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칠어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우기마다 질 좋은 황토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⁷⁾ 그 때문에 다른 지방의 미역보다 잎이 좁고 길며 부드럽고 겹겹 광택이 난다 한다.⁸⁾

미역이 붙어 자라는 바위를 곽암(藨巖), 또는 곽전(藨田)이라 부르는데,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앞쪽 담치바위, 개목, 솔끝으로 이어지는 곳이 미역바위로 유명했다. 이외에도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앞바다의 갯바위는 모두 돌미역 생산지였다.⁹⁾ 조선시대에는 곽암·곽전을 어민들이 공유하고, 미역을 생산해 세금인 곽세(藨稅)를 납부했다. 왕실이나 권문세가가 점유한 곽전은 관리자를 두고 어민들이 생산하도록 했다. 일례로, 『비변사등록』의 1708년 12월 30일 기록에 세자전인 용동궁(龍洞宮)이 오랫동안 조(租)[현물로 바치는 세금]를 거두어 왔다고 한 ‘화사읍포리(火士乙浦里)’의 채곽전(採藨田)은 현재 장안읍 고리마을에 해당한다.¹⁰⁾ 용동궁은 명종의 큰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 이부(李暉)의 거처이니, 곧 이곳에서 생산된 미역이 왕실에 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역을 따는 채곽(採藨)은 힘든 일이었다. 당시의 관행대로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맨몸으로 돌미역을 채취하는 나잠어업(裸潛漁業)의 모습을 『순조실록』에서 묘사한 대목이 있는데,¹¹⁾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장의 어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한추위에 남자와 부녀자가 발가벗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떨면서 채곽하는데, 바다에서 나오면 피부가 터지고 주름져서 귀신처럼 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딴 미역값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한다.

미역은 조선의 대표적인 토산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청나라 황제에게 헌납하는 물목에 포함되곤 했다. 특히 개항 이후 부산의 미역은 주요 수출 품목이 되어 일본의 실과 차, 영국과 미국의 보리, 프랑스의 비단, 러시아의 소가죽, 독일의 자기 등과도 견줄만한 상품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말에 이르러서는 곽암에 대한 개인 소유가 인정되는 등 소유 형태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 1909년 일종의 미역 바위 분포지도로 제작된 일광읍 학리의 「곽암도(藨巖圖)」이다. 이 지도는 곽암의 명칭과 수량, 위치, 거리, 구역, 제1종 어업면허

(미역 채취) 신청자 등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¹²⁾

3. 양식 성공 후 부산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되기까지

일제강점기는 어업령 공포와 어업조합의 설립 등 일제 측 수산단체의 어업권 행사로 어장 또한 국가체제에 의해 관리되는 암흑의 시간이었다. 해방 후 현재와 같은 마을 단위의 어촌계가 신설되고, 미역채취구역도 재분배되면서 마을별 채취 조직이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자 미역 고사를 지내고 별신굿을 하는 등 구성원들의 협화를 유도하였고, 나름의 문화적 전통을 일구어 갔다. 미역돌(괘암)에 미역 포자들이 많이 부착되도록 바위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미역돌 씻기’도 그 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후 양식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체 문화는 하나 둘 사라져 갔고 아래의 ‘미역돌 씻기 노래’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어이야 어이샤 / 호마리 찍고 호마리 찍고 / 이 돌을 실글려고 찬물에 들어서서 / 바다의 용왕님네
굽이굽이 살피소서 / 나쁜 물은 썰물 따라 물러가고 / 미역물은 밀물 따라 들어오소 / 백색같이 닦은 돌
에 많이 많이 달아 주소 / 어이샤 어이샤 호마리 찍고 찍어 / 내년 봄에 미역 따서 / 풍년 되어 잘 살아
보세¹³⁾

기장미역은 1960년대 이후 자연산이 점점 줄어들고 양식 미역이 증가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양식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양식화 과정을 요약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다. 즉, 1962년 국립 수산진흥원에서 미역양식 기술을 도입했고, 1964년에는 자체 생산한 미역 종묘로 통영과 영도 앞 바다 2곳에 가이식하였다. 그 결과, 통영은 실패하고 영도만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는데, 1965년 이를 기장군 일광읍 학리에 입식하여 국내 최초로 양식에 성공하게 된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어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양식화에 나서, 1967년에는 이동리와 학리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1972년에는 국내 최초로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같은 기장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경주 감포, 포항 구룡포, 울산 정자, 가덕도, 제주 추자도, 완도, 진도 등 미역양식사업 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식미역 성공이 대량생산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졌던 반면, 생산량이 불확실하고 수익성이 감소한 자연산 돌미역은 기장에 점차 그 비중이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양식은 주로 남성이 자연산은 여성 어민들을 중심으로 현재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¹⁴⁾

한편, 양식 초기에는 미역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았다. 아래 구술처럼 새벽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져갔으나 헐값에 넘기기도 하고, 부산의 충무동 새벽시장이나 서울의 상회에 위탁 판매를 하기도 했다.

길이가 5m 되는 목포 어선에 미역을 채취하여 신고 돌아오면 미역을 사기 위해 여자들이 다라이를 들고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는 곳까지 들어와 서로 싸우기도 하였다. 당시 미역이 귀할 때라 서울에 가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 이○○과 같이 생미역 약 100kg을 가지고 부산역에서 야간열차에 올랐다. 객석 온도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강장에서 두 사람이 떨고 있다가 대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좌석이 없어 선 채로 서울까지 밤을 꼬박 새웠다. 새벽에 도착하니 날씨가 워낙 추워 시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경매에 헐값에 팔고 보니 두 사람 왕복 차비를 생각하다 점심도 굶고 부산행 열차 시간까지 극장에 들어가 잠을 잠깐 자고 부산으로 돌아온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¹⁵⁾

이 외에도 조미료 회사에 미역발 썬 넘기거나 가공업자에게 넘기기도 하고, 마른미역으로만 생산해서 소규모 소매상으로 넘기는 영세업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된 것은 역시 일본 수출이었다. 일본인들은 기장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돌미역의 우월한 상품성을 믿고 양식미역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판로 확장을 통해 1970년대 미역수출 호황으로 이어졌다. 1977년 일본에서 한국 미역 수입 쿼터제가 도입되는 반발도 있었지만, 기장에서는 염장미역을 수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열었다.

기장미역의 유명세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확보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8년 기장농협에서는 일광 앞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궁중기장미역’이라고 이름 짓고,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명품 미역으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미역 명품화 전략과 지자체의 기장미역 상표 등록(2009),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2007), 기장 미역·다시마축제(2010) 등을 통해 기장미역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자연산 돌미역에서 인공 양식미역으로 생산기술의 변동을 거듭했지만, 유통망의 확보와 홍보 및 판매방식을 통한 문화상품화 전략화로 기장미역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차별화된 부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기장미역은 500년을 이어온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서 현재도 향유되고 있으며,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성과 수산업 발전의 과정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 오염과 자연산 돌미역 채취의 어려움, 해수 온도의 변화, 일본 원전 해양수 방류 등 다수의 변수가 가로놓여 있다. 다양한 정책과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품질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나잠어업 등 단절 위기에 놓인 역사·민속·문화 콘텐츠의 계승, 콘텐츠의 확보 등 활용 방안에 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수백년 간 이어온 기장미역의 명성은 세대를 더하며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
- 1) 허영란 엮음, 『동해포구사3』, 경상북도, 2021, 112쪽.
 - 2) 허영란 엮음, 앞의 책, 114쪽.
 - 3) 허영란 엮음, 앞의 책, 118쪽.
 - 4) 명성왕후도 먹은 왕실 ‘산후 보양식’ .. 미역국에 이것 넣었다, 『중앙일보』, 2020.08.17.
 - 5) 박혜영,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 전략」, 『실천민속학연구』28, 2016, 54쪽.
 - 6) 박혜영, 앞의 글, 54쪽.
 - 7) 김차웅, 「기장미역의 원류를 찾아서」, 『어항』 78,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24~25쪽.
 - 8) 「新郷土記(53) 工業化 물결...농어촌이 桑田碧海로」, 『부산일보』, 1988.08.30.(12).
 - 9) 김효경, 「조선시대부터 토산물로 유명한 기장군의 미역」, 『지역N문화』(<https://www.nculture.org/>)
 - 10) 김차웅, 앞의 글, 25쪽.
 - 11) 박혜영, 앞의 글, 53쪽.
 - 12) 김차웅, 앞의 글, 26쪽.
 - 13) 부산문화역사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14) 부산문화역사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 15) 방○○(남, 82세)의 구술(2016.05.29.)[박혜영, 앞의 글, 75쪽 재인용]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김차웅, 「기장미역의 원류를 찾아서」, 『어항어장』재78권,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박혜영,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 전략」, 『실천민속학연구』28, 2016.

최원준, 「음식 속 부산 ② 기장미역, 허끝으로 만나는 겨울 바다의 맛」, 『다이내믹부산』202103, 2021.02

허영란 엮음, 『동해포구사3』, 경상북도, 2021.

- 신문기사

「新郷土記(53) 工業化 물결...농어촌이 桑田碧海로」, 『부산일보』, 1988.08.30.(12)

「명성왕후도 먹은 왕실 '산후 보양식' .. 미역국에 이것 넣었다」, 『중앙일보』, 2020.08.17.

- 인터넷 홈페이지

부산문화역사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지역N문화(<https://www.nculture.org/>)

▶ 현장사진자료



기장미역 건조 장소(죽성리 180-2)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앞 미역돌



드라마 드림 오픈세트장(해녀·갈매기·미역돌의 조화)



이천해녀복지회관(일광읍 이천리)



이천수산물직매장(일광읍 이천리)



기장물산(부산광역시 미역·다시마명품지정업체)

안용복 관련 유적



■ 주요개요

대상	안용복 관련 유적	소재지	-수영사적공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부산광역시 동구 증산로 100 -생가터: 부산광역시 동구 성남이로 57번길 10
선정연도	2021년	건립용도	사당 및 동상 기념시설(문화관) 생가터
건립시기	수영사적공원: 1967년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2014년 생가터: 2015년		
이력사항	- 1957년 부산의 문화계 인사들이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 조직 - 1967년 수영사적공원에 안용복 장군 충혼탑과 동상 건립 - 2001년 안용복을 기리는 사당인 수강사 준공, 충혼탑을 사당 경내로 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부산광역시 동구에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개관 - 2015년 안용복 생가터 확인, 독도의 날을 맞아 서경덕 교수에 의해 '안용복 생가터' 안내판 제작·부착 <p><안용복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8년 동래부 부산 좌천 1리(지금의 동구 좌천동) 출생 - 1693년 3월 울릉도 출발, 1차 도일(渡日)과 승환 - 1696년 2차 도일과 유배형
<p style="text-align: center;">보존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에 찾아가 안용복의 기개를 기억할 수 있음 - 안용복의 도일은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며, 「세종실록지리지」와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년)에 기술되어 현재까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가지는 근거를 마련해 줌 -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안용복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로서 중요도가 적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심과 보존이 필요함 - 안용복의 영토 수호 의지와 공익을 앞세운 용기있는 행동은 부산시민에게 지역의 민족정신을 상기시키는 상징체로서 그의 정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설명문

<p>【개요】</p> <p>안용복은 1658년 조선 숙종 때 동래에서 관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 생계를 위해 해산물을 채취하러 울릉도에 간 것이 그의 첫 도일이었다. 안용복의 1차 도일은 일본인이 울릉도를 무인도라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독점적인 어업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증거로서 안용복 일행을 인질로 잡아간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인 울릉도 쟁계(爭界)가 촉발되었다.</p> <p>동래왜관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이후 1696년 소송을 목적으로 순천 흥국사의 승려 뇌헌 등 11명과 함께 제2차 도일하여, 울릉도에서 만난 왜인들을 꾸짖어 쫓아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돛토리(鳥取)번으로부터 추방당해 양양으로 귀국한 안용복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죄로 유배형을 받게 된다. 이후, 그에 대한 행적은 더 이상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p> <p>현재 안용복의 생가터는 동구의 매축지 마을로 알려진 곳이 유력하며, 인근 지역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에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독도수호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장소인 수강사와 동상은 조선시대 부산 방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상좌수영이 위치했던 수영사적공원에 설치되어 있다.</p> <p>안용복의 유적을 미래유산으로 활용하고 그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수강사와 생가터,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축하고, 박재혁 의사 생가터와 정공단, 일신여학교 등 문화관 인근의 문화유산과 연계하는 등의 정책과 활동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p>

1. 왜 안용복은 일본으로 향하였나?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1658년에 출생했지만 미천한 모친의 신분에서 어린 시절을 노비로 보냈고, 현재 부산시 수영구에 있었던 경상좌수영에 관노로 예속되었다. 그곳에서 노꾼(노 젓는 사람)으로 청년기를 보내다가, 33세가 되던 1690년 서울 상인 오충추의 부산 상점으로 자리를 옮기고 호패를 만들었다. 호패에는 '동래부 부산 좌천 1리 14통 3호'(지금의 동구 좌천동)라고 적혀

있었으며, 이후 동래와 부산, 울산 등을 전전하며 활동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기근·전염병과 자연재해로 토지에서 이탈한 농민들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조세와 군역 부담을 피해 국경지대나 섬으로 도망 온 사람들은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복이나 미역 등이 많은 울릉도에 가서 어업을 하기도 했다. 안용복과 같은 부산의 어부들 역시 생존을 위해 울릉도행을 감행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도에 일본인이 들어와 어업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용복과 그 일행은 일본에 대항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게 된다.

현재 안용복과 관련된 부산의 유적으로는 안용복의 독도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수영사적공원 내에 건립된 ‘수장사’와 ‘안용복 동상’이 있으며, 최근에 알려진 ‘안용복 생가터’와 2014년 건립된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에는 당시 그의 행적과 사용했던 배가 재현되어 있다.

2. 바다를 건너간 안용복과 울릉도 쟁계(爭界)

안용복은 1693년 3월 11일 울산을 출발하여 27일 오후 6시 경에 울릉도에 도착했다. 안용복 일행의 배를 포함해 총 세 척의 선단은 섬에 머물면서 전복이나 미역을 채취하였는데, 4월 18일 갑자기 일본 오키(隱岐)의 어부들이 울릉도에 나타나 옷가지 등을 넣어 둔 보따리를 압수하고 칼과 조총으로 위협하며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납치했다. 그들은 그날 정오경 울릉도를 출발하여 5월 초하루 오후 2시경에 일본 돗토리(鳥取)번에 도착하였다.

오키섬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령으로,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 가문이 울릉도로 건너 오려고 할 때 바람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던 섬이었다.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어부들은 한 해 전인 1692년 조선인과 만나 자신들의 배타적 이권을 주장하며 조선인의 조업을 금하도록 한 바 있었다. 그들은 조선인의 울릉도 출현으로 자신들의 어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울릉도에서 조업 중이던 두 사람을 납치하여 증거로 삼아 돗토리번을 통해 막부에 제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돗토리번이 요구한 것은 앞으로 울릉도에 조선인이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의 출어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돗토리번령 요나고(米子) 주민이 울릉도산 전복을 배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전처럼 돗토리번에서 막부에 전복을 계속 진상하고 싶다는 탄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돗토리번을 비롯한 일본 내에서는 조선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된다. 막부는 그동안 범죄인으로 억류되던 안용복과 박어둔을 송환할 것과 울릉도에 조선인의 도해를 금하는 내용의 대조선교섭을 지시하였다. 이것이 울릉도 쟁계라 부르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시작이었다.

막부는 쓰시마(對馬)번에 앞으로 조선인이 울릉도에 오지 못하도록 조선 측에 명확히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쓰시마번은 울릉도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방기했으므로 일본이 취득한 영토라는 입장을 정했다. 그리고 쓰시마번에서 선임한 다치바나 마사시게(橘眞重)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데리고 11월 2일 왜관에 도착했다. 그는 예조참판 및 예조참의,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에게 보내는 세 개의 외교문서를 지참하고 있었는데, 서계에는

납치 경위와 울릉도에 조선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리고 12월 10일 접위관 홍중하를 만나 두 사람의 신병을 조선에 넘겼다.

조선은 일본 측에서 말하는 ‘竹島’가 곧 조선의 울릉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 일본 어민이 국경을 몰래 넘는 행위를 묵인하자는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회답서계를 받은 다치바나는 서계 속의 鬱陵(울릉)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선은 일본이 울릉도를 영토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구를 거부했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죄인인 안용복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¹⁾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정은 갑술환국(1694년)을 겪으며 정국 운영의 주체가 남인에서 소론으로 바뀌게 되고, 외교 기조 또한 달라졌다. 당시 일본에 전달된 새로운 서계에는 ‘竹島’는 본래 조선령이며, 일본인이 침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조선인을 구속하고 연행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막부는 1697년 2월 동래 부사 이세재 앞으로 서계를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 금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울릉도 쟁계는 일본인의 도해 금지로 마무리되었으며,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²⁾

한편, 안용복이 독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위해 다시 일본은 건너간 것은 이러한 막부의 죽도 도해 금지령이 조선에 전달되기 전이었다. 당시 동래에 살고 있던 안용복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울산에 갔다가 승려 뇌헌 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조선인 10여 명과 함께 선단을 꾸려 다시 울릉도로 떠났다. 울릉도에는 왜선들이 다수 정박해 있었는데,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왜인들에게 “울릉도는 본디 우리 땅인데 왜 침범했는가?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자신들은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답하자, 안용복은 송도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안용복은 울릉도와 자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조선판도지도를 꺼내 보이면서 일본에서 竹島, 松島로 불리는 섬들은 모두 조선의 영토라고 했다. 안용복 일행이 일본에 건너왔다는 소식을 접한 막부는 조선인의 항의에 답하지 말고 바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안용복 일행은 표류민 송환길이 아니라 돛토리번의 추방령에 의해 강원도 양양현으로 보내졌고 귀국 직후 체포되었다.

이후 안용복은 참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으나 당시 조정의 고위 대신이었던 남구만과 윤지완의 구명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윤지완은 교섭 당사자였던 안용복이 참형에 처해진다면 쓰시마 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는 꼴이 되므로, 안용복을 참형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남구만 역시 조선인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이 농간을 부렸다는 사실이 안용복에 의해 드러났으니 기쁜 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남구만과 윤지완의 구명활동으로 안용복은 참형 대신 귀양으로 마무리되나, 이후 안용복의 행적은 알려진 것이 없다.³⁾

3. 안용복이 자극한 조선의 영토 수호 의지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의 이러한 행적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조선의 영토인식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1차 일본 항해로 촉발된 울릉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조선 정부의 적극적

인 교섭을 통해 막부의 일본인에 대한 ‘죽도도해금지령’을 이끌어냈다. 이후 조선정부는 울릉도 쟁계 교섭 과정 중이던 1694년 9월 장한상을 삼척첨사로 임명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되었던 울릉도 수토(搜討)⁴⁾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699년부터는 정기적인 수토를 제도화하여 2~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는 지방관을 파견하게 된다.

안정복이 1693년(숙종19)에 “안용복이 없었더라면 울릉도가 필시 왜인에게 점거당했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안용복의 활약은 조선정부의 영토인식을 크게 자극하였고, 기존의 대일 교섭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속이라는 일본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은 조선 정부와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1693년 1차 도일은 지방 권력의 허가나 묵인 하에 독도에 들어온 일본인과 맞섰다고 하지만, 1696년 2차 도일을 통해 쓰시마의 비리를 소송하는 일은 지방 권력의 권한을 벗어나 중앙권력의 허가나 지시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1차 도일 후 송환된 안용복은 2년 형을 받게 된다. 이후 1696년 3월 15일에 울산을 떠나 6월에 돛토리번을 방문한 것을 보면 1695년 말이나 1696년 1월에 형기를 마치고 2개월여 만에 출선한 것이 된다. 그런데 11인의 일행을 구성하고 출선하는데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형을 마치고 나오지 얼마되지 않은 안용복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일행의 구성도 단순하지 않다. 부산 출신은 안용복 혼자이고 나머지 10인은 이인성 과 뇌헌 등의 남해 출신 인원과 유일부, 유봉석 등 동해 출신 인원이었다. 따라서 2차 도일은 안용복 단독 진행이라기보다는 관의 협력 속에서 출선했을 가능성이 크다.⁵⁾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일은 조선의 영토수호의지를 자극했고, 이 때문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생계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바로잡았던 안용복의 행동은 부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나아가 민족사에 있어서도 해양영토를 수호한 귀중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안용복의 영토수호정신을 부산의 미래 가치로 브랜딩하자

현재 안용복과 관련된 부산의 대표적인 기념시설은 부산 ‘수영사적공원’ 내 ‘수강사(守疆祠: 강토를 지켜낸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지어진 안용복 장군⁶⁾의 사당)’와 ‘안용복 장군 충혼탑’ 및 ‘안용복 장군상’ 정도다. 우선 ‘수영사적공원’은 조선시대 동남해안을 관할했던 수군군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자리로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수영 공원’으로 개장하였다. 이후 1995년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수영공원을 역사교육장과 시민 휴식처, 그리고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새롭게 단장하여 현재 ‘수영사적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영사적공원’은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경상좌수영성지’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경상좌수영성 남문’,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25의용단’이 있다. 안용복이 본격적으로 대일활동을 벌이기 이전 부산에 거주할 당시 경상좌수영의 노꾼이었던 점, 그리고 부산 해양 방어의 핵심 시설이 ‘경상좌수영’이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 안용복을 기념하는 장소로 ‘수영사적공원’은 적절하다 하겠다.⁷⁾

현재 ‘수영사적공원’내 안용복 관련 기념시설은 해방 이후 이승만의 해양주권 선언인 ‘평화선

선언'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1957년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가 조직되며 본격화된다. 기념회는 1967년 '수영사적공원'내 '안용복 충혼탑'을 건립하고, 2000년 3월 10일 '수강사'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같은 해 7월 31일 사당 1동[26.4m²(8평)], 동상 1기, 기존 충혼탑 이전 등 총 경역 1,320m²(400평) 규모로 착공하여, 2001년 3월 26일 수강사를 준공함으로써 안용복의 기념시설을 완성하였다. 또한 현재 '수강사'는 수영구청이 관리하며 매년 4월 18일 12시⁸⁾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주관'으로 연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평소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⁹⁾

안용복의 생가터는 2008년 『신동아』 7월호에서 「독도사나이 안용복 탐구」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위치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2015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에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부산광역시 동구 성남이로 57번길 10에 사비로 안내판 설치 및 외벽 공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매축지 마을'로 알려진 곳에 위치한 안용복의 생가터에 대한 고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동래부 소속 군선의 노를 젓던 수군·천민이던 안용복의 신상과 거주지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위치는 1828년 호카지마 마사요시(岡島正義)가 쓴 『죽도고(竹島考)』에 안용복이 차고 있던 신분증인 요패(腰佩)에 필사된 '1960년 부산 좌자천 1리 제14통 3호'라는 기록에 의한 것이나, 이 기록만으로 현재 안내판이 위치한 매축지마을을 안용복의 생가터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용복의 생가터를 수정동 인근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⁰⁾

이 외에 2014년 개관한 '안용복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은 부산 동구 좌천동 제일아파트 옆 증산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관은 독도에 대한 각종 전시물과, 안용복 장군의 1·2차 도일 자료를 비롯해 부산포 개항,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출정식(두모포), 부산과 일본의 교류의 중심지였던 왜관, 영가대, 부산진성, 정공단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문화관은 부산항 500년 역사의 근원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용복뿐만 아니라 부산의 역사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¹¹⁾

현재 안용복과 관련해서는 이상과 같은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에 관련된 기록과 활동상이 집대성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현재 단편적으로 산재하는 기록들을 집대성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사와 생가터,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 등의 사적들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를 브랜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안용복과 부산지역 민족운동가들의 스토리 연대 역시 필요하다. 박재혁 의사 생가터와 정공단, 일신여학교 등 문화관 인근의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부산시민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정신을 알리고, 지역의 민족정신을 전달하는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1) 장순순,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이사부와 동해』 5, 한국이사부학회, 2013, 164~178쪽

2) 권오엽, 「南九萬의 密使 安龍福」, 『일본어문학』 vol.1, no.65, 한국일본어학회, 442~443쪽.

3) 장순순, 위의 논문, 178~182쪽.

4)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봄.

5) 권정,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 -」, 『일본어문학』no.55, 2011, 510~523쪽

6) 안용복은 출신 신분 상 생애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으나, 1954년 부산의 애국단체인 대동문교회에서 '독전왕 안용복 장군'으로 추존식을 거행한 것을 계기로 현재 장군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 7) 부산향토문화백과, 「수강사」, 「안용복 충혼탑」,
- 8) 이 날은 안용복이 유배를 당한 날로 알려져 있음
- 9)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홈페이지
- 10) 「주민들도 몰랐던 '독도 지킴이' 안용복 생가터」, 『국제신문』, 2015. 10. 26, 「조선 수군 안용복이 매축지 마을에 살았다고?」, 『부산일보』, 2015. 11. 06.
- 11) 「'안용복 장군 기념관' 고향 부산서 3월 문연다」, 『부산일보』, 2014. 01. 27.

■ 조사목록

- 원자료

『숙종실록』

- 논문 및 저서

- 권 정, 「안용복에 관한 한·일(韓·日)의 인식」, 『일본문화연구』 34,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 권 정, 「안용복의 울릉도 도해의 배후 -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 -」, 『일본어문학』 55, 2011.
- 권오엽, 「南九萬의 密使 安龍福」, 『일본어문학』 vol.1, no.65, 한국일본어문학회, 2015.
- 김기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울릉도·독도 개척과 전라도인의 활동」, 『대구사학』 109, 대구사학회, 2012.
- 김호동, 「이케우치의 '일본 에도시대 다케시마·마츠시마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독도연구』 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09.
- 김호동, 「竹嶋紀事 분석 -안용복·박어둔 진술서 분석 및 '于山島' 기록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2, 대구사학회, 2016.
- 박지영, 「1696년, 안용복 도일문제에 관한 고찰」, 『일본학』 4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9.
- 송휘영, 「안용복의 도일 활동과 그 의미」, 『이사부와 동해』 16, 한국이사부학회, 2020.
- 원연희, 「안용복의 제 1차 도일에 관한 연구(오키국(隱岐國), 돗토리번(鳥取藩)을 중심으로)」, 『강원사학』 25, 강원사학회, 2011.
- 장순순,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과 의미」, 『이사부와 동해』 5, 한국이사부학회, 2013.

- 신문기사 및 사진

- 「400년 전 '독도 지킴이' 안용복장군 사당준공」, 『동아일보』, 2001. 03. 26.
- 「안용복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 11일 개관」, 『이뉴스투데이』, 2014. 03. 07.
- 「'안용복 장군 기념관' 고향 부산서 3월 문연다」, 『부산일보』, 2014. 01. 27.
- 「주민들도 몰랐던 '독도 지킴이' 안용복 생가터」, 『국제신문』, 2015. 10. 26.
- 「조선 수군 안용복이 매축지 마을에 살았다고?」, 『부산일보』, 2015. 1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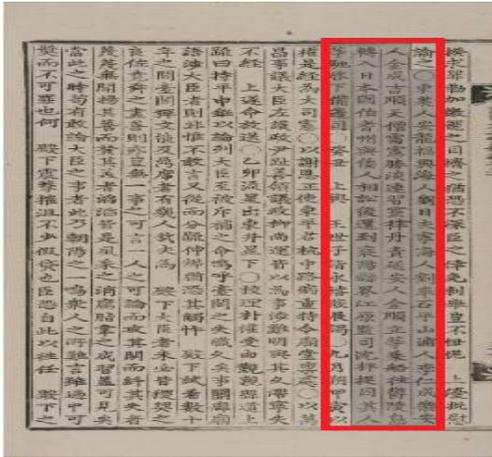
- 인터넷 홈페이지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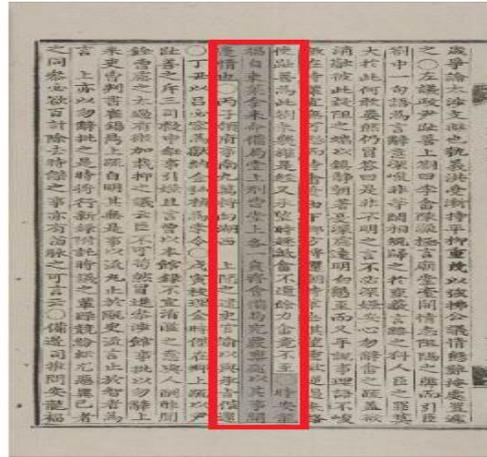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홈페이지(http://www.suyeongminsok.or.kr/menu01/menu01_04_04.php)

■ 사진 자료

▶ 사진기록자료



◎ 안용복이 울릉도에 다녀온 후의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안용복이 체포된 이후 처벌받는 과정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독도를 지킨 부산의 인물 “안용복” 리플렛 1
 ◎부산광역시 교육청

독도를 지킨 부산의 인물 “안용복” 리플렛 2
 ◎부산광역시 교육청

▶ 현장사진자료



수강사(수영사적공원)



안용복 장군상(수영사적공원)



안용복 장군 충혼탑(수영사적공원)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동구 좌천동)



안용복의 도일 목선 모형(부산포개항문화관)



복원한 안용복의 호패(부산포개항문화관)



안용복 생가터 알림판(동구 성남일로 57번길 10)



생가 인근 자성로 지하도 벽면

박재혁 의사 유적



©독립기념관

■ 주요개요

대상	박재혁 의사 유적	소재지	-의사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로 30(부산진초등학교) -의사상: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어린이대공원 수변공원 내) -박재혁 거리: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생가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71-10
선정연도	2021년	건립용도	추모비, 동상, 거리, 생가터
건립시기	의사비: 1948년(1981. 이건) 박재혁 의사상: 1998년 박재혁 거리: 2012년 생가터 알림판:2020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정공단 내에 박재혁 의사비 건립(1981. 부산진초등학교로 이전) - 1966년 의사 묘역 국립현충원 이전 안장 - 1998년 박재혁 의사 동상 건립(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 2003년 박재혁 의사 동상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40-1-17로 지정 - 2012년 독립운동가 박재혁 거리 지정(동구 조방로 630m 구간) - 2019년 개성고등학교에 흉상 건립 - 2019년 옛 부산경찰서 터에 의거를 기리는 표지판 설치 - 2020년 생가터에 알림판 설치(동구 중앙대로 471-10) 		

	<p><박재혁 의사 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5년 부산 범일동 183번지 출생 - 1911년 부산진보통학교 졸업, 부산공립상업학교 입학 - 1914년 구세단 조직 - 1915년 부산공립상업학교 4회 졸업 - 1920년 4월 상하이에서 의열단 가입 - 1920년 8월 김원봉의 투탄 지시 수락 - 1920년 9월 부산에 도착, 14일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짐 - 1921년 3월 31일 사형선고 - 1921년 5월 11일 단식으로 사형 집행 전 대구형무소에서 순국 -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p>보존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겨터는 현재 민간인 소유로, 그동안 복원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계속 난항을 겪으며 방치되고 있음 - 현재 관련 유적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대표유적이라 할 수 있는 초음동의 동상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주목도 면에 있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장소를 연계할 수 있는 거점 유적과 스토리텔링이 필요 - 박재혁 의사의 생가는 의열단 최초의 성공적 의거를 성취해낸 그의 항일의식을 기억하는 장소로서 의미가 있음 - 박재혁이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동지들이 영향을 미쳤고 의거에도 함께 했던 만큼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함께 기억할 수 있음.

■ 설명문

【개요】

박재혁은 범일동에서 태어난 부산의 독립운동가로, 부산진보통학교와 부산공립상업학교에 재학하던 이른 시기부터 친구 최천택, 박흥규, 김병태 등과 구세단을 조직하며 민족의식을 다졌다. 이후 상하이에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하였고, 부산경찰서장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귀국했다. 1920년 9월 14일 중국 고서(古書) 상인으로 위장한 박재혁은 하시모토 경찰서장 앞에서 의열단임을 밝히고 폭탄을 투하하여 거사에 성공했다.

최천택, 오재영 등 그의 의거를 돕거나 미리 알고 있는 동지들이 있었지만, 박재혁은 취조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검사의 공소로 경성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단식으로 맞서다가 1921년 5월 11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박재혁은 일본 자본에 의해 성장한 식민지 도시 부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고, 의열단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의 의거에는 어린 시절부터 뜻을 함께 해왔던 친구이자 동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으며, 박재혁이 태어나고 자란 생겨터를 비롯해 그를 기념하는 유적들은 항일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일임과 동시에 그의 동지였던 부산진 청년들의 항일과 독립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일이기도 하다.

1. “선혈이 낭자하여 ... 매우 처참했던” 그날의 현장

폭탄 파열의 현장은 하시모토(橋本) 서장의 책상과 수부 계원석의 중간 지점이다. 폭발한 파편은 서장이 앉아 있는 중형 반상 안락의자의 오른쪽 앞 다리를 분쇄했고, 의자의 하단을 관통하여 서장 옆의 중요 서류 상자의 덮개를 분쇄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천정을 뚫고 2층 사법실의 마룻바닥을 관통하였는데, 그때 마침 집무 중이던 와다(和田) 사법주임의 의자 뒤쪽을 조금 뚫고 지나갔다. 기타 몇 개의 파

편이 사무실 사방으로 퍼져 유리창, 의자, 책상 등을 파괴했다. 현장은 범인의 부상 때문에 선혈이 낭자하여 마룻바닥을 붉게 물들여 매우 처참했다.)¹⁾

1920년 9월 14일 부산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신문 『부산일보(釜山日報)』는 호위를 통해 당일 발생한 ‘부산경찰서 폭탄 소동’의 진상을 위와 같이 전했다. 피해를 축소하고 ‘범인’의 부상을 강조하려는 듯한 논조가 강하지만, “선혈이 낭자하여 마룻바닥을 붉게 물들여 매우 처참했다”는 현장의 스케치와 함께 ‘호위’라는 호들갑으로 주 구독자였던 부산의 일본인들에게 상세히 전달되었을 듯하다. 호위가 전한 이 ‘소동’이란 바로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 슈헤이(橋本秀平)에게 폭탄을 던져 치명적 부상을 입히고 결국 절명케 한 박재혁의 투탄 의거이다.

부산에서 출생했거나 주로 활동하여 ‘부산 출신’이라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여럿 있다. 물론 ‘누가 더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열을 매기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것이지만, 흔히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안희제, 박차정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3등급에 해당하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유공자들로, 기념관이 설립되었거나 생가가 복원되어 누구나 방문하여 의거를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표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을 무대로 한 항일투쟁 역시 치열했다. 그러나 일본인이 가장 안전하다 믿었을 자신들의 안방, ‘식민 도시’ 부산에서, 그것도 치안의 심장인 경찰서에 혈혈단신으로 뛰어들어 감행한 박재혁의 거사만큼 일제에 충격을 준 사건을 빼놓고 부산의 항일투쟁을 말할 수 있을까? 1962년 박재혁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지만, 앞서 언급한 유공자들에 비해 생가 보존이나 기념관 설립 등 기념사업에 있어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박재혁과 친구들, 식민지 현실에 눈 뜨다

박재혁은 1895년 부산 범일동 183번지에서 박희선과 이치수 사이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고향 범일동은 현재 행정 구역으로는 부산 동구이지만, 이웃한 좌천동과 함께 흔히 ‘부산진’의 범위에 넣어 통칭하였다. 부산진은 임진왜란의 첫 번째 전투지이자 조선 후기 초량왜관 감시의 최일선이었다. 순절한 부산진 첨사 정발(鄭撥)을 추모하기 위한 정공단(鄭公壇)이 바로 박재혁의 생가 인근에 있다. 또 정공단 근처에는 서양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부산진교회가 있고, 근대적 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와 한문 서당 육영재가 있어 근대성과 민족주의에 쉽게 노출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처럼 항일정신과 근대성이 충돌하는 공간인 부산진의 지역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도시 ‘부산’과 인접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문화적 혼재성이 더욱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이곳 부산진은 박재혁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건과 연관된다. 첫째 부산진보통학교와 부산공립상업학교 동창생들과의 만남이며, 둘째 「동국역사」 배포와 구세단 사건, 그리고 마지막은 부산경찰서 폭탄 투하 의거이다. 이들 사건에 박재혁과 관련된 이들은 죽마고우 오재영(오택), 최천택, 김영주, 왕치덕, 백용수 등이었고, 모든 인연의 중심에는 범일동·좌천동의 정공단 거리가 있었다.²⁾

한말 조선은 근대화 물결과 외세의 국권 침탈로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개항장인 부산은 변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어서 새로 들어선 철도역과 외국인 거류지의 서양식 건물 등 근대

시설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고, 일본인 거류지의 확대에 따라 크고 작은 충돌 사건들이 빈번했다. 그런 가운데 1907년 부산진사립육영학교가 설립되자, 13살이 된 박재혁도 입학하여 근대 교육을 받게 된다. 이즈음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고, 이 학교 교장 김상하도 모금에 참여했는데, 이때 동참한 박재혁과 최천택, 김영주, 백용수는 모두 부산경찰서 투탄 의거에 깊이 관계한 인물들이다.

1911년 부산진사립보통학교(구 육영학교, 같은 해 공립 전환)를 졸업한 박재혁은 이듬해 1912년 부산공립상업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부산상업학교는 가난한 집 자체가 점원 취직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공립학교였기에 학비 부담이 적었고, 주로 중류 이하 계층 학생들이 다녀서 ‘빈민학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부산상업학교는 1909년 부친 박희선이 사망으로 가세가 기울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

비록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였지만 부산상업학교 교사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따라서 교육 내용 역시 일본 친화적이었다. 특히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반감이 컸던 박재혁은 최천택, 김병태, 박흥규 등과 모의하여 한말 한국사 교과서인 「동국역사(東國歷史)」를 비밀리에 학우들에게 나눠주다 발각되기도 했다. 이를 주도한 최천택은 체포되어 10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박재혁과 친구들도 이후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혀 감시를 받게 되었다.⁴⁾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그들의 항일정신은 더욱 깊어져, 1914년에는 박재혁과 최천택, 박흥규, 김병태 등 16명이 모여 비밀결사 구세단(救世團)을 조직하게 되었다. 구세단은 경남 각지의 유능한 청년들을 모아 독립운동에 앞장서려던 것으로, 주기적으로 수양회, 연수회를 갖는 등 부산을 넘어 이웃 지역까지 활동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결성 반년여 만에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재혁 외 3명은 검거되어 1주일 동안 심한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부모들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에 힘입어 구세단을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⁵⁾

3. 의열단의 이름으로 일제의 심장에 폭탄을 던지다

박재혁은 1915년 부산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 만에 부산의 조선와사전기회사 전차 차장으로 취직했으나 곧 해고됐다. 이후 친척인 박국선이 경영하는 경북 왜관역 앞의 곡물무역상에서 일하였지만, 그마저도 곧 그만두었다. 박재혁은 1917년 6월 곡물상을 하면서 벌어들인 자금 700원을 가지고 상하이로 넘어가 싱가포르 등지를 왕래하면서 인삼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편, 동지들과 교류를 지속하며 독립운동에 기여할 방법을 찾았다. 학창시절의 항일운동 전력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박재혁은 김원봉으로부터 상하이로 와서 독립운동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1920년 4월경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8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장을 죽여 독립운동의 기세를 높이라”는 명령을 받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먼저 밝힌 후 거사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대상이 부산경찰서장으로 선정된 것은 박재혁이 부산 출신이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재혁은 폭탄 1개와 돈 300원을 받아 9월 6일 아침 쓰시마(對馬)에서 부산행 연락선으로 귀국했다. 본래 나가사키(長崎)에서 철도로 시모노세키(下関)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관부연락선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쓰시마를 거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배가 감시가 덜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해의 동지들에게 상황을 엿서로 알리고 경로를 변경했다. 엿서에는 상업 현황, 장삿길, 수익과 같은 내용을 담아 상업 활동을 보고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무사히 부산으로 돌아온 박재혁은 오재영의 집을 방문해 귀국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총독부를 폭파하기 위해 폭탄을 가지고 상경할 것이라 밝히며 구체적인 공격대상과 세부적인 김원봉의 지시는 숨겼다. 그리고 9월 13일까지 최천택, 김영주와 함께 동래온천, 해운대, 범어사 원효암 등지에서 쉬면서 폭탄 투척을 모의했다.

9월 14일 박재혁은 오재영의 집을 다시 방문해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것임을 밝혔다. 오재영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친지에게 피해가 없도록 단독책임 을 지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공단으로 가서 참배했고, 오재영과 헤어진 후 박재혁은 최천택을 만났다. 둘은 함께 전차로 이동해서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부산경찰서 주변을 정찰한 다음, 기념촬영을 했다. 그리고 거사는 박재혁이 부산경찰서로 들어가고 최천택이 부근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정했다.⁶⁾ 그리고 박재혁은 거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가 고서적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무역업을 하던 경험을 살려 중국 고서 상인으로 위장했다. 직경 2촌(1촌은 약 3cm), 높이 4촌의 원통형 주철로 된 폭탄을 손수건으로 싸서 고서 사이에 숨겼다.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경 금평정(琴平町, 현 동광동)의 부산경찰서를 찾은 박재혁은 공무를 가장하고 서장실에 들어섰다. 갑작스런 방문에 서장이 집무를 멈추고 몸을 돌려 맞이하려던 순간, 박재혁은 자신이 의열단임을 밝히고 준비해 온 폭탄을 투척했다. 이로 인해 하시모토는 발과 오른쪽 무릎을 부상당했고, 박재혁도 우측 관절 부위가 크게 손상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진주에 있던 경남 경찰부에서는 경남 전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형사들을 부산에 특파했다.⁷⁾

한편, 폭발 직후 상황을 지켜보던 최천택은 경찰서 밖으로 박재혁이 나오지 않자 좌천동으로 이동하여 대책을 궁리하던 중 약 40분 뒤 체포됐다. 오재영은 박재혁과 헤어진 후 부산진예배당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동자 봉쇄반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끝날 때 째 형사들이 들이닥쳐 4, 5명의 일행과 함께 체포됐다. 이날 박재혁의 모친과 누이도 체포되어 신문문을 받았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은 경찰의 엄격한 보도 통제에도 일본 내까지 알려졌다. 『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이나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은 “이번 부산 사건은 천만 의외의 것이며 동경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동일시 할 수밖에 없다 … 일선동화는 단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라며 대서특필하였다.

경찰은 투탄 관련자로 최천택, 김영주, 오재영, 백용수 등을 체포하여 고문, 취조했다. 이들은 경찰 심문에서 친구인 것은 맞지만, 범행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재혁도 온갖 고문을 당했지만, 친구들과 약속한 대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그 결과 사건연루자로 지목된 이들 모두 기소 유예 처분으로 석방됐다.

박재혁은 ‘폭발물취체벌칙 위반’과 ‘살인미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판에 부쳐졌다. 1심에서 노다(野田) 검사는 박재혁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장이 비교적 피해가 근소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의 공소로 대구복심법원에서 2심이 열렸고, 그 결과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취소되고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박재혁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1921년 3월 31일 경성고등법원으로부터 사형이 확정됐다.

박재혁은 투탄 당시 입은 상처와 고문에 폐병까지 더해져 쇠약해졌으나, 그 기개는 또렷했다. 면회 온 최천택에게 “왜놈 손에 사형당하기 싫어 단식 중”이라며 12일간 단식을 이어가던 그는 1921년 5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결국 대구 감옥에서 사망했다. 시신은 최천택이 그의 노모와 함께 대구형무소로 가서 인수해 왔는데, 부산 고관정거장에 도착하자 친지와 친구들은 물론, 부산경찰서의 경관들도 다수 출장하여 경계하였다. 경찰은 부산진 좌천동 공동묘지에서 치러진 장례도 엄격히 통제하여 5명의 가족 외 다른 친지나 일반인의 장례식 참석은 일절 금지하였다.

시간이 흘러, 해방을 맞이한 이듬해인 1946년 2월 28일 중국에서 귀국한 김원봉은 박재혁의 묘를 찾아와 제를 올렸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4. 박재혁 의사의 의거를 기억하며

3.1운동 이후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은 강력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김원봉 등이 중심이 되어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의열단은 1920년대 의열 투쟁을 대표하는 단체로, 관공서 등 주요 기관 파괴와 일본 요인 암살을 실행하여 민중의 직접 혁명을 유발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열 활동의 첫 시작이 바로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하 거사였다.

박재혁의 의거 성공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의열 활동을 통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이후 의열단은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파,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파, 나석주의 조선식산은행 투탄 등을 맹렬히 전개했다. 따라서 박재혁의 활동은 의열단이 최초로 성공을 거둔 초기 활동이자 본격적인 의열 투쟁에 불을 당긴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박재혁의 고향 부산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그의 의거를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1946년 10월 정공단 내에 박재혁 의사비 건립(1981년 부산진초등학교 교정으로 이전)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동상을 건립했다. 2012년에는 동구청이 의사의 생가(범일동 550번지) 인근인 조방로(범일교차로 ~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630m 구간)를 ‘박재혁 거리’로 명명하였다. 2019년에는 모교인 개성고등학교(부산상업학교 후신)에 흉상이 설치됨과 함께 폭탄 투척 의거 장소인 옛 부산경찰서 터에 표지판이 설치되었다.

다만, 오랜 숙원인 생가 복원은 소유자와의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신 2020년 박재혁 의사 투탄 100주년을 맞이하여 알림판이 세워졌다. 장소는 기존에 알려진 범일동 550번지가 아닌 범일동 가구거리 공용주차장(동구 범일동 183번지, 도로명 주소는 중앙대로 471-10)이다. 박재혁은 부산에서 세 곳에 거주했다. 태어난 1895년 5월부터 1919년 6월까지 범일동 183번지에, 중국에 있는 동안인 1919년 6월부터 1920년까지는 그 가족들이 범일동 550번지에, 그리고 부산경찰서 투탄을 전후하여 1920년부터 1923년까지 범일동 354번지에 살았다. 박재혁은 1917년 이후 중국 상해,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며 부산을 오가다 1921년 5월 11일 순국하였기 때문에 현재 인근에 박재혁 거리를 조성한 범일동 550번지보다 실제 태어난 범일동 183번지에 생가터 알림판을 조성해 달라는 유족의 요구에 따라 현 위치에 세우게 된 것이다. 높이 1.8m의 알림판은 큼직한 글자로 국제보상운동, 동국역사 등사 배부 운동, 비밀결사 구세단 운동, 그리고 부산경찰서

투탄과 옥중 순국 등 의사의 생애를 기록하였다.⁸⁾

이상 살펴보았듯 현재 박재혁 의사를 기억할 만한 장소는 부산 내에 여럿 된다. 다만, 출신 학교마다 건립되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대표유적인 초읍동의 동상은 높이 6.5m에 태극기를 움켜쥔 당당한 모습이지만, 어린이대공원 내에서도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관련 유적들은 저마다 의미있는 장소들에 위치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이들 모두를 한 장소에 모을 수는 없으므로, 생가가 있는 범일동 인근을 부각시켜 생가 및 거주지(이상 동구)와 출신 학교(진구), 의거 장소(중구)를 잇는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생가터와 거주지 인근의 박재혁 거리 일대가 현재 안내판만 있을 뿐 의사의 정신을 기리고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에는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사와 그 동지들·친구들이 나고 자란 곳이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정공단, 항일의 또 다른 중심지 일신여학교와 부산진교회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곳을 의사 관련 유적의 거점으로 삼기를 제안한다.

박재혁은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며, 그의 의거는 최천택을 비롯한 부산지역의 여러 독립운동가 동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의 의식 저변에는 임진왜란의 부산진성 전투를 추모하는 정공단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도시와 인접한 곳에 살면서 식민지가 된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이를 시정하고자 했다. 즉, 박재혁과 동지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의식은 역사성과 지역성에 바탕한 것으로,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시민들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정신이 깃든 박재혁 의사 관련 일련의 유적들을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보존하고 가꾸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1) 「釜山署の爆彈騒ぎ」, 『釜山日報號外』, 1920.09.14.

2)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④-1」, 『오마이뉴스』, 2020.10.16.

3) 「부산경찰서 투탄 순국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⑨」, 『오마이뉴스』, 2021.02.02.

4) 「1913년 최천택, '동국역사'를 배포하다」, 『오마이뉴스』, 2021.02.08. ; 김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2~4쪽.

5) 김승, 위의 논문, 4~6쪽.

6) 김승, 위의 논문, 6~11쪽 ; 김혜진, 「부산 출신 의열단원 연구」, 『항도부산』 37, 2019, 406~423쪽.

7) 김승, 위의 논문, 12쪽 ; 김혜진, 위의 논문, 406쪽.

8) 「의열단원 박재혁 의사 생가터에 알림판 세워졌다, 박재혁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마이뉴스』, 2020.01.21.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김 승,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문화전통논집』 14, 2007.

김혜진, 「부산 출신 의열단원 연구」, 『항도부산』 37, 2019.

박철규, 「의열단원 박재혁(朴載赫)의 생애와 부산경찰서 투탄(投彈)」, 『항도부산』 37, 2019.

이동연,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진입 투탄의거의 성과와 의의」, 『유관순 연구』 26, 2021.

- 신문기사

「釜山署の爆彈騒ぎ」, 『釜山日報號外』, 1920.09.14.

「대구에 수감 중인 박재혁은 병사」, 『동아일보』, 1921.05.17.

「부산 동구 '박재혁 의사 거리' 조성」, 『부산일보』, 2012.08.13.

「독립운동가 생가 표지석도 없이 방치...철거 위기도」, 『국제신문』, 2017.08.17.

「박재혁 의사 폭탄투척 옛 부산경찰서 자리에 표지판 섰다」, 『국제신문』, 2019.12.30.

「의열단원 박재혁 의사 생가터에 알림판 세워졌다, 박재혁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마이뉴스』, 2020.01.21.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의 친구들 ②」, 『오마이뉴스』, 2020.09.21.

「부산경찰서 투탄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④-1」, 『오마이뉴스』, 2020.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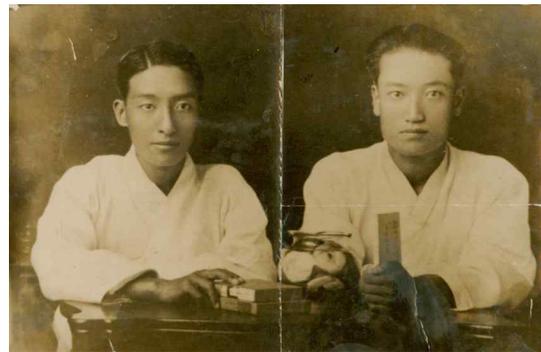
「부산경찰서 투탄 순국 100주년, 의열단원 박재혁과 그 친구들 ⑩」, 『오마이뉴스』, 2021.02.02.

「1913년 최천택, '동국역사'를 배포하다」, 『오마이뉴스』, 2021.02.08.

▶ 사진기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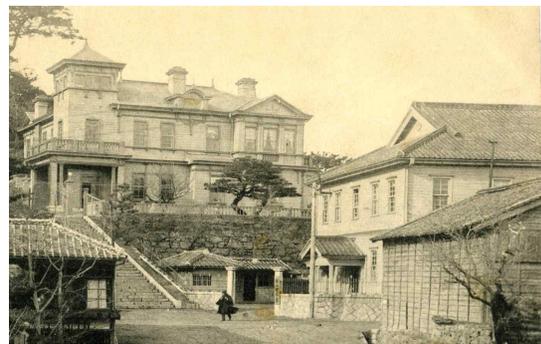
부산공립상업학교 제4회 졸업사진 속 박재혁
©독립기념관



박재혁(좌)과 최천택(우)
©독립기념관



박재혁의 의거를 보도한 부산일보 호외(1920.9.14)
©독립기념관



1910년대 부산경찰서(제일 우측 건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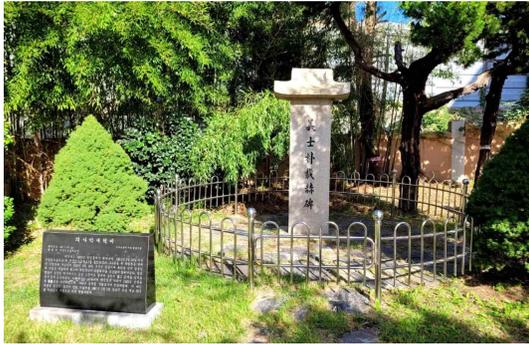


박재혁 의사 부고 관련 동아일보 기사(1921.05.17)
©동아일보



박재혁 의사 생가터 알림판과 이순녀 김경은
©오마이뉴스

▶ 현장사진자료



박재혁 의사비(부산진초등학교)



박재혁 의사상(부산진구 초읍동)



박재혁 의사 흉상(개성고등학교)



박재혁 의사 생가터(동구 중앙대로 471-10)



박재혁 의사 생가터 인근의 정공단



박재혁 거리 표지판(조방로)



박재혁 거리(조방로)



의거 장소인 옛 부산경찰서 터(동광동2가 10-5)

우장춘 유적



© 국제신문

■ 주요 개요

대상	우장춘 유적	소재지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62번길 7구
선정연도	2021년	건립용도	기념관
건립시기	1999년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8년 아버지 우범선과 일본인 어머니 사카이 나카 사이에서 탄생 - 1916년 동경제국대학 농학실과에 들어가 1919년 졸업 - 1919년~1937년까지 육종학에 대한 20여 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육종 연구에 몰두 - 1930년 세계에서 최초로 겹꽃 페튜니아 개발 - 1950년 귀국 후 한국 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역임 - 1953년 씨 없는 수박 생산 - 1954년 결구 배추인 원예 1호가 육종 발표 - 1957년 제1회 부산시 문화상(과학상) 수여 - 1958년 원예시험장장 - 1959년 8월 9일 정부로부터 문화포장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 8월 10일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사망 - 1999년 10월 21일 우장춘 기념관 건립
보존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서 태어나 육종연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그는 해방 이후 한국의 식량 사정 개선을 위해 귀국하여 한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큼 - 귀국 이후 부산에 마련된 '원예시험장(현 우장춘 기념관)'에서 주로 활동 - 기념관 마당의 '자유천'은 연구에도 활용되었지만, 당시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역 주민을 위해 공유되기도 했으며, 이는 우장춘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공공성 회복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의미를 지님 - 지역의 공동 가치로서 '우장춘 정신'의 전승이 필요

■ 설명문

[개요]

우장춘은 대한민국의 육종학자로 유전학 연구를 통해 광복 후 열악했던 한국의 식량난 해결에 힘썼던 인물이다. 일본 태생인 우장춘은 해방 후 50세가 넘는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와 10여 년간 한국농업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특히 일본 수입에 의지하던 무, 배추와 같은 채소 종자들을 국내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품종묘 개발로 한국의 기아 문제 해소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외에도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할 다수의 후학을 길러냈으며, 연구용으로 개발한 우물 '자유천'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공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 우장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가 소장자로 재직했던 부산 동래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자리에 우장춘 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또한 그의 연구 정신과 육종학 분야의 세계적인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2000년 미남교차로에서 금강식물원으로 가는 도로를 '우장춘로'로 이름 짓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우장춘의 생애와 활동은 그가 삶과 학문 모두에 있어 얼마나 지역공동체를 사랑했고, 헌신했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인을 위한 사랑과 헌신'은 개인화 되어가는 우리 사회와 개인들에게도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며, 부산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 우장춘을 찾아 떠나는 여정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해 배고픔을 면치 못했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는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에선지 젊은 세대에게 우장춘 박사가 가지는 위상 역시 잘 와 닿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식탁의 출발에는 우장춘 박사의 업적이 적지 않다. 게다가 그가 부산에서 생애 마지막 10년을 보냈다는 사실은 부산 사람들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를 기념하는 공간이 부산 동래구에 위치해 있다. 부산 지하철 4호선 미남역에서 내려 14번 출구 위로 올라와 '우장춘로'를 따라 약 700m 정도 걸다보면 '우장춘 기념관'을 만날 수 있다. 기념관 앞에는 그의 흉상과 그가 연구용으로 개발한 '자유천'이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가 생전에 이루었던 연구 성과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가 한국 농업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친일파였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일본인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해방 후 귀국하여 부산에서 연구와 후학양성으로 말년을 보냈다. 그가 남긴 삶의 자취는 많은 의문을 품게 한다. 그는 왜 일본이 아닌 부산에서 여생을 보냈을까? 그는 생전 활동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정신을 남겼을까? 그리고 그가 남긴 정신을 찾아서 부산의 미래 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정신을 발전시켜야 할까? 그의 삶의 궤적에서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니었던 청년 우장춘

우장춘(禹長春)은 1898년 4월 8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우범선(禹範善)은 무인 집안 출신의 친일 개화파로 한말 혼련대 제2대대장으로 활동했다.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도피 생활 중 사카이 나카(海井仲)라는 일본인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 둘 사이에 큰아들 장춘과 작은아들 홍춘이 태어났다. 하지만 우장춘이 불과 여섯 살이던 1903년 11월,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해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만민공동회 회장이었던 고영근에 의해 암살되었다.

우범선 사후, 모친 사카이가 우장춘과 동생 홍춘을 홀로 양육하였다. 사카이는 우범선과 처음 만났을 당시 귀족의 저택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던 빈곤 계층 여성이었다. 더군다나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고 글을 읽을 줄 몰랐다. 그렇기에 사카이 혼자 형제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우장춘은 1년 6개월, 혹은 3년간 양절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된다. 일정 기간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 우장춘을 다시 데려간 사카이는 샷바느질과 포목 행상을 하며 형제를 양육했다. 하지만 무학의 미망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벅찬 생활고로 형제의 학비 마련을 위해 우범선의 묘지를 팔기까지 하였다.¹⁾

우범선은 비록 일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우장춘 형제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지었고, 서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때문에 우장춘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한평생 한국인이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본 정부는 병합에 진력한 이들에게 작호를 부여하면서 우범선의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은 현금이 아닌 공채증서로 주어졌는데, 공채증권의 수익자 이름이 우장춘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장춘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이자를 받아 생활했다.²⁾

우장춘은 중학교 시절까지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활발하게 학교생활을 하지도 않았다. 다만 수학과 과학에서는 두각을 드러냈는데, 중학교 졸업 후 교토제국대학 공학부에 진학하기를 희망했지만 가정 형편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부친 우범선이 생전에 절친했던 한국인 망명객들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장춘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관비 유학생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총독부가 지시하는 학교와 전공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이에 따라 총독부가 요구한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실과에 진학하게 된다.³⁾

도쿄제국대학 농학 실과는 대학의 학부가 아닌 전문학교 과정이었다. 농학 실과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밝은 농촌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친다고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조선인 유학생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청강생 신분을 부여받았다. 이후 그는 청강생 수료증이 아닌 정식 졸업장을 받았지만, 대학 진학을 단념하고

일본 농림성 소속의 농사시험장에 취직하였다.⁴⁾

우장춘은 농사시험장에서 나팔꽃을 시작으로 유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⁵⁾ 이 연구로 일본 과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 그는 이어서 유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발견한 ‘종의 합성’은 세계 유전 육종(育種)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전까지 과학계에서는 다른 종 사이의 교잡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우장춘이 그것을 깨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로써 우장춘은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론을 초월하는 상호공존이라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우장춘은 1936년 도쿄제국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종의 합성’으로 우장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조선인이라는 한계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우장춘은 1937년 농림성 농사시험장에서 사직하고 그 해 다키이(瀧井) 종묘회사의 초대 연구 농장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키이 종묘회사에서 그는 채소 육종 기술 개발에 집중하였다. 일본 패망 이후 우장춘은 다키이 농장장 자리도 사임하고 별다른 활동 없이 자작농으로 세월을 보냈다. 이처럼 청년 우장춘은 자신의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그의 삶은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3월 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때 그의 나이 51세였다.

3. 한국 농업 근대화를 위해 힘 쏟은 생애 마지막 10년

우장춘의 귀국은 한국에서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심각했던 한국의 농업 상황 속에서 우장춘 귀환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해방 직후 한국은 일본 패전과 국교의 단절로 종자를 들여올 방법이 끊기고 종자 개발을 수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의 농가는 재래식으로 얻는 종묘로 농사를 짓고는 있었지만, 농업 생산성은 현저 떨어져 종묘업자들은 외화를 들여 일본에서 종자를 밀수입하기도 했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당시 경상남도 농림국장이었던 김종(金鐘)은 우장춘을 한국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초반에는 우장춘의 부친 우범선의 매국 행위로 인해 그의 환국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종묘 문제와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국내 기술자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점차 김종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귀환 제의를 받은 우장춘도 고민 끝에 귀환을 승낙하였다. 이에 곧바로 김병규(초대 민선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동래원예고등학교 교장 김홍수, 이희보(김병규의 외사촌), 곽종섭 등 동래기영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우장춘 환국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였다.⁷⁾

동래기영회 중심의 환국추진위원회는 귀속재산이었던 부산 금정산 기슭 과수원을 불하받아 시험농장 부지를 마련하는 등 우장춘 환국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나아가 시험농장을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시 초대 농림부 장관 조봉암 등의 제안으로 1949년 4월 한국농업과학연구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모은 100만 엔을 일본에 잔류하게 될 가족들의 생계비를 위해 사용하라며 우장춘에게 송금했다. 해당 금액은 당시 일본의 상급 공무원의 4~5년 치의 연봉이었다. 하지만 우장춘은 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육종에 관한 서적, 실험용 기구, 각종 종자 등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챙겨왔다.⁸⁾

우장춘은 1950년 3월 8일 대한민국으로 귀국했다. 열흘 후인 3월 18일, 동래원예고등학교에서

그의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도 환영식에 축전을 보내왔다. 이 자리에서 우장춘은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인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3월 20일 우장춘은 서울역에서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았던 우장춘이 이제야말로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말하는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나는 해방 전부터 우리나라에 돌아와 일하고 싶었다.”(서울역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

기자 : 한복은 일본서 만든 것인가?

우장춘 : 아니다(웃으면서) 부산서 만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복을 계속해 입고 우리나라의 일꾼으로 과학에 길을 걸을 따름이다.⁹⁾

이후 5월 10일, 우장춘은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하였고, 부산 동래원예고등학교 인근의 ‘원예시험장(현 우장춘 기념관)’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연구소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했고 시험농장은 고작 2만 평 규모, 연구 기자재라고는 우장춘이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이 전부였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장춘은 우선 자신의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채소류 연구에서 출발하여 점점 농업 전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해가기로 했다.¹⁰⁾

우장춘이 연구에 진력하던 1953년, 갑작스런 소식이 그를 찾아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편지였다. 그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 대통령에게까지 청원하였으나 끝내 일본에 가지 못했다. 결국 우장춘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낙심한 우장춘을 본 연구소 제자들은 연구소 강당에 빈소를 차려 놓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 각지에서 우장춘을 위로하는 전보와 돈이 우장춘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우장춘은 이 부조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는 그 돈으로 당시 식수로 고생하던 지역민들을 위한 우물을 만들었다. 우장춘은 우물의 이름을 ‘자애로운 어머니의 젖 같은 샘’이라고 하면서 ‘자유천(慈乳泉)’이라고 명명했다.¹¹⁾ 이후 우장춘은 매일 아침 우물 주위를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한다. 자유천은 어머니와 지역민을 향한 그의 애정을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이다.

계속해서 우장춘은 우량형질의 채소를 재배하고, 그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두 단계로 연구 사업을 나누어 추진했다.¹²⁾ 첫 번째 단계는 1950~1955년까지 기한을 두고 기존 품종으로부터 우량 품종을 찾아내 채소 종자를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다양한 재래 품종과 외래 품종으로부터 한국 기후와 식성에 맞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했다. 육즙이 촉촉했던 재래산 무와 병충에 강한 일본산 무의 장점만을 가려서 새로운 품종의 무를 생산해냈다. 무를 시작으로 배추 등 채소의 품종 개량에 성공하게 되어 1952년에는 우량 개체 개발에 성공한 무, 배추 종자를 전라남도 진도에 심어 7,000여 톤의 우량종자를 확보했다. 이때 현재 우리가 먹는 무와 배추의 원형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1955년 무렵에는 채소의 종자를 자급자족하는 데 성공했다.¹³⁾

두 번째 단계는 1955년 이후 진행되었다. 이때 서로 다른 품종들 사이의 교잡 시험을 추진하여 우량 일대잡종의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들어 배추 원예 1호와 2호, 양파 원예 1호와 2호, 양배추 동춘 등과 같은 신품종들이 잇달아 나왔다. 이들 신품종은 민간 종묘회사에 분양되어

종묘 산업이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품종 개량에 성공한 무와 배추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官)에서 만들었다는 점에 농민들의 불신이 강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육종의 신기함을 보여주기 위해 ‘씨 없는 수박’을 홍보 방법으로 이용하였다. 씨 없는 수박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우장춘은 한국에서 해당 품종의 재배에 성공한 것인데, 오랫동안 우장춘이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¹⁴⁾

우장춘은 채소 품종 개량에 성공한 이후에도 다양한 먹거리의 품종을 개량하고자 노력했다. 제주도에 온주밀감을 심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가 굴 생산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씨감자를 수입해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대관령이 감자 특산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당시 채소 재배가 안고 있는 불결함, 기생충 감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정 재배를 시도했다. 이렇듯 우장춘은 한국에 육종이라는 유전학 기술을 처음 들여옴으로써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1957년 제1회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¹⁵⁾

환국 후, 연구·개발에만 힘썼던 우장춘은 말년에 위궤양과 당뇨병을 앓았고, 신경통약을 달고 살았다. 1959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자 그는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세 번을 수술했지만 건강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때 우장춘에게 건국 이래 두 번째로 문화포상을 수여했다. 1959년 8월 7일 농림부 장관 이근식이 포상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우장춘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3일 후 8월 10일 별다른 유언 없이 숨을 거두었다.¹⁶⁾

우장춘의 장례는 8월 14일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장지는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자리한 한국 농업과학의 총본산인 수원역의 여기산(麗妓山)에 마련되었다. 이듬해에는 ‘故 우박사 장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추모비 건립 사업이 완성되어 4월 8일 여기산 기슭에 추모비가 건립되었다.¹⁷⁾ 또 우장춘이 머물렀던 동래의 원예시험장이 수원으로 이전한 1973년에는 부산시에서 그의 동상을 건립하였다.

부산에서의 본격적인 추모 움직임은 사실상 우장춘 기념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1998년 동래구는 우장춘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생전 연구 활동을 하였던 과거 원예 시험장 자리에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 10월에 개관하였다. 이 기념관에는 우장춘 박사의 육종연구에 사용한 현미경과 친필 논문 원고, 가방 등 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는 농업진흥청이 제작한 ‘씨 없는 수박’, 무와 배추를 합성한 ‘무추’, 토마토와 감자를 합성한 ‘토감’ 등 20여종의 묘종과 과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¹⁸⁾

2000년 부산시는 우장춘 기념관이 있는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와 금강식물원(과거 금강공원)을 잇는 도로를 ‘우장춘로’로 지정하였다. 이 거리는 과거 ‘동래도호아문(東萊都護衙門)’이라는 현관이 걸려 있었고, 부산시민에게는 금강공원 입구로 알려져 있었다. 부산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상징적인 이 거리를 한국 과학자로서 세계적인 연구 수준을 보여준 우장춘의 이름을 붙여 명명한 것은 그 상징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¹⁹⁾

이외 2006년에는 제1회 우장춘 박사 시민 추모행사도 열렸으며, 1주기부터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원우회는 ‘우장춘상’을 만들어 과학영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장춘의 사후에도 그의

육종 및 그의 성과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부산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²⁰⁾

4. 우장춘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야

우장춘의 생애는 참 기구하다. 청년시절 전체를 일본에서 보냈으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학문적 업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표가 일평생 따라다녔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가 한국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니었을까?

우장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슬픔을 오히려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그 감정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일평생 우장춘에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그가 얼마나 지역민들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우장춘은 한국에서의 연구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연구소 직원들에게도 ‘연구를 위한 시험이나 논문을 위한 시험’은 당분간 미룰 것을 요구하는 등 오로지 한국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에 집중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수요가 가장 컸던 배추, 무, 고추와 같은 품종을 개량하는데 집중하였다.²¹⁾ 이러한 우장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은 단기간에 육종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장춘이 한국에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육종연구인 한국 배추가 국제 계능 분석의 표준 연구품종으로 선정되고 한국 과학계가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가 한국 농업과학기술사에 남긴 지대한 업적과 ‘자유천’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만성적이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는 곧 한국인들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자유천은 개인의 슬픔마저도 지역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그의 뛰어난 정신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장춘의 연구와 행동들에는 나를 넘어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기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장춘 정신’은 그의 업적뿐 아니라 동래 지역을 넘어 부산시민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어가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김근배, 「우장춘의 한국 귀환화 과학연구」, 『한국과학사학회』26-2, 2004 143쪽, 김근배, 『우장춘 종의 합성을 밝힌 과학 휴머니스트』, 다섯수레, 2009, 12~15쪽.
- 2) 변상지, 「우장춘 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1편」,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17-2, 2021, 21~23쪽, 이영래, 『우장춘의 마코토』, HNCOM, 2013, 135쪽.
- 3) 김근배, 「우장춘의 한국 귀환화 과학연구」, 『한국과학사학회』26-2, 2004 143쪽.
- 4) 정종원, 「과학과 내셔널리즘- '해방전후' 과학(자)의 이동과 우장춘 서사의 과학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9, 2013, 216쪽, 이영래, 위의 책, 2013, 140쪽.
- 5) 김근배, 위의 책, 43~44쪽.
- 6) 이영래, 위의 책, 205~206쪽.
- 7) 부산광역시, 『古道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2021, 366쪽; 김근배, 「우장춘의 한국 귀환화 과학연구」, 『한국과학사학회』26-2, 2004, 149쪽.
- 8) 김근배, 위의 책, 82쪽, 이영래, 위의 책, 206~208쪽.
- 9) 「묵묵히 일하겠다 고국인상은 변천 없는 듯 우장춘박사 상경 제일성」, 『동아일보』, 1950.3.22.
- 10) 이영래, 위의 책, 218~236쪽.

- 11) 김근배, 위의 책, 116~121쪽.
- 12) 변상지, 위의 논문, 33쪽.
- 13) 김근배, 위의 논문 161쪽
- 14) 김근배, 위의 책, 104~111쪽
- 15) 변상지, 위의 논문, 24~37쪽, 이영래, 위의 책, 245~274쪽.
- 16) 변상지, 위의 논문 38쪽.
- 17) 「여기산에 추모비」, 『동아일보』, 1960.04.03.
- 18) 「[부산의 건축물]①우장춘 기념관」, 『부산일보』, 2003.04.11.
- 19) 「우장춘 7년만에 개통」, 『부산일보』, 2000.01.22.
- 20) 「제1회 우장춘 박사 시민 추모행사 열려」, 『전자신문』, 2006.08.09.
- 21) 변상지, 위의 논문, 120쪽.

■ 조사목록

- 논문 및 저서

- 김근배, 「우장춘의 한국 귀환화 과학연구」, 『한국과학사학회』26-2, 2004
- 변상지, 「우장춘 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1편」,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17-2, 2021
- 변상지, 「우장춘 박사의 생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2편」, 『종자과학과 산업: 한국종자연구회지』17-3, 2021
- 이수윤, 「과학자, 민족의 영웅에서 탈출하기 - 우장춘」, 『열린전북』130, 2010
- 정종원, 「과학과 내셔널리즘- '해방전후' 과학(자)의 이동과 우장춘 서사의 과학 담론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9, 2013
- 김근배, 『우장춘 종의 합성을 밝힌 과학 휴머니스트』, 다섯수레, 2009
- 이영래, 『우장춘의 마코토』, HNCOM, 2013

- 신문기사

- 「우장춘 박사 귀국」, 『경향신문』, 1950.03.10.
- 「묵묵히 일하겠다 고국인상은 변환없는 듯 우장춘박사 상경 제일성」, 『동아일보』, 1950.03.22.
- 「욕지도 밀감재배 우 부사 현지조사코 확인」, 『부산일보』, 1955.04.09.
- 「우장춘 박사 결세」, 『부산일보』, 1959.08.16.
- 「세계육종학계의 권위 우장춘박사 도라오다」, 『부산일보』, 1959.03.10.
- 「위국항일의사열전」, 『동아일보』, 1956.06.19.
- 「문화상 수상식 성대」, 『동아일보』, 1957.12.26.
- 「식량증산에 대하여」, 『조선일보』, 1958.01.12.
- 「문화표창 수여」, 『동아일보』, 1959.08.08.
- 「14일에 사회장으로 치러질 것」, 『동아일보』, 1959.08.10.
- 「여기산에 추모비」, 『동아일보』, 1960.04.03.
- 「“우장춘(禹長春)박사 = 씨없는 수박은 잘못”」, 『조선일보』, 1986.08.09.
- 「동래에 우장춘 기념관 선다」, 『부산일보』, 1998.01.14.
- 「[부산의 건축물]①우장춘 기념관」, 『부산일보』, 2003.04.11.
- 「제1회 우장춘 박사 시민 추모행사 열려」, 『전자신문』, 2006.08.09.
- 「원예산업 발전 이끌 우장춘 박사의 후예들」, 『농촌여성신문』, 2015.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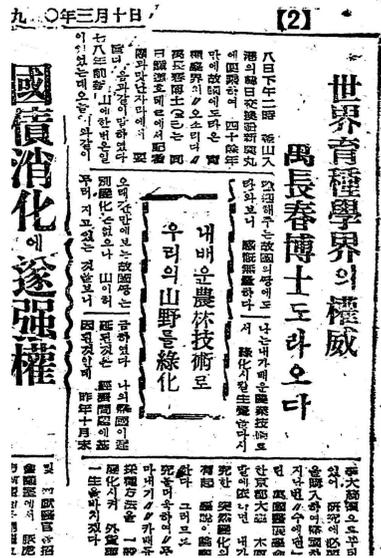
- 「육종학 개척자 우장춘 박사 서거 59주기 추모행사 다양」, 『뉴시스』, 2018.08.06.
「동래구, '우장춘 박사 서거 60주기 추모행사' 개최」, 『부산일보』, 2019.07.24.
「동래구, '우장춘 박사 서거 61주기 추모주간' 운영」, 『부산일보』, 2020.07.28.
「'농업의 아버지'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 서거 62주기」, 『뉴시스』, 2021.08.10.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농학자 우장춘」, 『한겨레』, 1989.10.06.

- 기타 참고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
부산 KBS, 부산의 재발견, '우장춘 박사 부산에서의 10년'

■ 사진자료

▶ 사진기록자료



우장춘 귀국기사
(부산일보 1950년 3월 10일)



우장춘박사 환영 시민대회
(부산일보 1951년 9월 6일)



육지도에서 밀감 생산 성공
(부산일보 1955년 4월 9일)



우장춘 박사 부고 기사
(부산일보 1959년 8월 16일)

▶ 현장사진자료



우장춘 기념관 전경



우장춘 기념관 입구의 동상



우장춘 기념관 정면에 있는 '자유천(慈乳泉)'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타리 우장춘로

제3차 부산 미래유산 심화연구

2022 부산 미래유산 조사·연구 용역

발행일 : 2022년 09월 30일

발행처 : 부산광역시
051-120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www.busan.go.kr

연구기관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051-200-6502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하단동)
www.donga.ac.kr

발행번호 : 52-6260000-000613-01

